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The Theology and Its Faith of Restoration of
God's Image)*

제 2 권



2018 ITCS campus

전화령

캄보디아 개혁주의 신앙연구소

목 차

목차/2

머릿말 / 5

B. 역사서 -

사무엘상하/6/30,

열왕기상하/48/77,

역대상하 /98/125

C. 대선지서 -

이사야/141,

예레미야/173,

애가/202,

에스겔 / 211

머릿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안지 50 여년 (목회사역 30 여년, 교육사역 20 여년 선교사역 10 여년) 필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신학과 신앙”이란 주제를 우리 시대에 표현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여러 고난의 밤을 지나오면서 필자의 가슴 속에 성령이 새겨 놓으신 진리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처음 믿어 한 감리교인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복음주의적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사역하신 위대한 목회자와 설교자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세계적 개혁주의 거성들, 엠지 클라인, 클라우니, 제이 아담스, 테니슨, 가프리, 후레임 그리고 나의 박사학위 논문 멘토인 죠셉 파이파 박사님을 만나면서 필자의 주제는 더욱 견고해졌었다. 그 후 캄보디아에서 교육과 선교사역을 하는 중, 동료교수들과 후학들과 캄보디아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체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유익을 주려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다.

막연히 캄보디아 25 개 도에 브니엘장로교회 지교회를 세운다는 목표와 에베소서 교회의 부흥운동과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자립사역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려는 새로운 비전아래 소형세미나를 통해 필자가 깨달은 진리를 서로 나누고 싶은 열망이, 킬링필드, 물의 나라,

더운 나라 그리고 푸른 초원의 나라 위에 성경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려는 도구로 이 교제를 제시한 것이다.

13 년동안 인생 길에서 수많은 눈물, 곤고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거하게 하신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두운 병상에서 비참함 속에 있는 나에게 “너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합 3:19)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책을 정리한다.

본 내용은 필자가 따랐던 구속사적 신학과 청교도신학을 근간으로
설교 신학과 30 년 이상의 목회경험과 20 여년 개혁신학 교수로서의
사역이 녹아있고 개인적으로 파라치취 운동의 성경공부 교재연구,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교리 및 각권 성경 세계를 집필 하는 중,
캄보디아의 개혁주의 신학교 ITCS 와 성경장로교 교회 노회
(CBPCP)와 브니엘 교회(CPPC)와 캄보디아 25 개 도의 브니엘 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현장감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이다.

평소 이 땅 위에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필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기에 매우 고무적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오랜 세월동안 나의 전공인 구약신학, 설교신학
그리고 청교도신학에 관한 주제를 매 학기마다 질문 대답을 통해

건고하게 한 캄보디아 국제신학대학교 신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의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국 브니엘 장로교회 성도들과 캄보디아 브니엘 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10 명의 캄보디아 스태프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캄보디아에서나 미국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편집을 위하여 기도와 침묵과 격려로 협력한 사랑하는 가족, 아내 전중임, 세 딸들, 에스더, 샤론, 메리에게 감사하며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여러 선교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고마운 마음과 격려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12 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산간 겨울 들판에서 무릎을 꿇고 “나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전하게 해주소서”라고 한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돌린다.

2017 년 6 월 30 일

미국 캘리포니아 포모나 서재에서

[제 2 권]

4.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빛 아래 우리는 벌써 역사서의 세권의 책,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검토 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 즉 구속적 윤리의 관점에서 사무엘상을 살피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원수가 상징주의 실체인 사탄과 세상이라면 사사기는 죄된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서 사무엘상은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성품을 통한 크 리스찬 생활을 통제하는 주된 원수로서 정욕의 중심인 교만 거만 탐욕 등으로 표현된 자아를 가리킨다.

무엇보다 그 책은 왕정이 신정으로 옮겨짐을 강조한다. 특별히 신정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구속의 열 매 즉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가리킨다. 많은 그림 계시가 분명히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를 통한 주제를 분명히 나 타낸다. 우리가 그것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그 그림의 실마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상징 속에서 구속의 씨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러 비유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죄의 흐름을 발견한다. 그들의 죄의 욕망 은 크리스찬 생활의 중요한

이슈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찬의 생활에 심각한 이슈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 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본서를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관점에서 다룰 때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한된 주제아래 다룰 것이다 1) 한나의 신학 2) 죄의 욕망은 아담처럼 왕이 되려는 욕망으로 나타났다. 3)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이시다.

사사시대를 통한 신정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을 가장 근사치로 보여준 그림 계시 를 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인 의와 인과 신이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구체화된 형상을 보게 된다. 엘 리라는 한 가정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고난 속에서 경건을 지키는 한나라는 한 가정에서 회복되어 신정의 기초인 의와 인과 신 위에 그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우리는 한나의 신학과 신앙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미스바 부흥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백성의 불신앙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왕권제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의 신앙 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운동과 인간주의의 방법의 표상인 사울 왕의 개인 역사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흘러 나옴을 본다.

1. 한나의 신정신학 (삼상 1:1-14)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나님은 한 가정의 한 여인의 한 아들을 통해 일하셨다. 첫째, 한 가정의 마음 아픈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씨앗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을 쏟지만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단위를 주목하신다. 엘가나 가정의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둘째, 운명 탓으로 돌리기 쉬운 불임 문제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었다. 영혼을 쏟는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단지 아들 하나 갖고자 하는 소원을 넘어 어두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강렬한 소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벌써 그 시대에 소망의 빛이 비취졌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뜻이 굳게 세워진 것이다.

1) **심정을 통한 기도 (삼상 1:15-28)** - 하나님의 작정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나로부터 찾을 수 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 하나님만 상대한 골방기도이다. 외식에 빠진 시대라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상대해 기도한 것이다.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산제물이다.(마 6:6) 둘째, 영혼을 쏟는 기도였다. 엘리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심정을 통했다(15)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마음을 주께 토하는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기 때문이다.(요 4:24) 셋째, 믿음의 기도였다. 예상을 뒤엎은 대답에 엘리가 감동을 받고

축원하자 그대로 믿고 간 그 날에 역사가 일어났다.(17-19) 믿음이란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심정으로 성경 약속을 얹어 놓고 믿는 것이다.

2) **한나의 영적 체험 (삼상 2:1-10)** - 한나는 아들을 얻은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았다. 여호와로 인해 얻은 구출에서 더 온전한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원수에게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1-2) 둘째,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는 참 믿음의 경지에 나갔다.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 보시는 하나님.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세우심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만을 찬양했다.(합 3:18) 셋째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과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보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본 것이다. 구약 인물이지만 수천 년 후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구원 성격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 보다 더 밝은 시대인 신약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배운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겠는가?

3)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삼상 2:11-21)** -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다. 첫째, 겸손한 순종의 섬김을 보신다. 한나에 의해 바쳐진 사무엘은 아이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와는 서투른 아이의 섬김이지만 그것을 흠향하셨다.(11) 중심에 진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둘째, 산 제사를 주목하셨다. 그 모습이 “주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17)”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났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사무엘은 장차 이를 비밀을 알게 되었다.

4) **하나님의 작정 (삼상 2:22-36)** - 엘리 두 아들의 고집이 심판받을 증거임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첫째, 여호와에 대한 태도 따라 갇으셨다. 엘리가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다. (29-30) 둘째,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성전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며 성전 수종을 드는 여인과의 음행이 죽이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낸 것이다.(25) 그 후 그들은 전사했다. (34) 셋째,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해 견고한 집을 세우셨다. 사무엘을 통한 새 역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준다. 우리의 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

5) **엘리의 죄 (삼상 3:1-21)** - 엘리의 죄는 제물로 사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심각한 죄였다. 그 죄는 어디서 나왔는가? 첫째, 계시를 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4) 어린 사무엘은 계시를 받는데 잠에 취해 있는 엘리의 대조적 모습은 계시를 받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계시인 하나님 말씀(성경)만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한다. (시 119:9) 둘째, 외식에서 나왔다.(2) 엘리가의 의자에 앉아있는 표현은 제사장 직무의 태만한 모습을 보여준다.(1:9,4:13,1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의 마음만이 외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셋째, 육체 소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13-14)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은 엘리가가 육체 소욕에 사로잡힌 증거이다.(14-15)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롬 8:7)

6)타락의 실상 (삼상 4:1-11) - 기독교의 타락은 대부분 외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다. 본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첫째,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전쟁터에 보냈으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발생했다.(3) 법궤를 뺏기고 사람 3 만명이 죽는다. 외식주의로 치 달는 시대 정황을 볼 때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물리적 숫자보다 영적 교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둘째, 법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의 연합관계가 아니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외식에 처한다. (4-5) 상징주의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상징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우상화하는 죄가 반드시 일어난다. 참 신앙을 거짓 신앙으로 바꾼 것이다.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타락은 계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7)이가봇 (삼상 4:12-22) - 블레셋과의 전쟁 참패는 엘리

집안이 망하는 심판받는 날이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첫째, 두 아들의 죽음(11), 흡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가다가 전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었다. 법궤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기적이 일어난 것과 대조되는 사건이다.(수 3:15) 웃사의 죽음처럼 그들은 하나님보다 법궤를 더 신뢰한 마음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둘째, 엘리리의 죽음(18),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것도 몸이 비둔한 건강 이유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불통에 놓인 것이다. 40 년간의 사사 직분을 바로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삼상 3:13) 셋째, 난산으로 인한 며느리의 죽음(19-20).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죽으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 것은 예언대로 된 것 뿐이다.(3:14)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목표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8) **하나님의 손(삼상 5:1-12)** - 불레셋 진영에 도달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드러내셨다. 첫째, 다곤 우상의 무력함을 보이심으로 나타내셨다.(4) 일어나는 일연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법궤 자체보다 그 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그들의 우둔함은 심판을 자처하는 행동이다. 현대인이 믿는 온갖 우상의 머리는 반드시 부서지고야 만다. 둘째, 독종재앙이 생기게 하심으로 나타내셨다.(9) 강퍽한 바로 앞에 재앙을 더하심같이

돌이킬 줄 모르는 불레셋 사람들에게 몸에 독종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득케 하셨다. 이 일로 방백회의가 소집되고 방책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다.(11-12)

9) **하나님의 목적 (삼상 6:1-7:2)** - 불레셋 진영에 들어간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도구가 되었다. 어떤 목적인가? 첫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다.(5). 바벨론 포로생활, 애굽의 포로생활을 허락하심이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셨다. 고난은 조롱당함과 고통당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다. 둘째, 인간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으로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하셨다(19). 진정한 수단도 하나님뿐이다. 셋째, 구원받은 우리의 할 일은 성령의 겹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시 1:1-3)

II. 미스바 성회 (삼상 7:3-17)

어떤 점에서 미스바 성회는 교회부흥의 모델인가?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상을 회복했기 때문이다(3).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 부흥이다. 인간과 인간의 수단이 왕되신 주님께 수종들 때 바로 되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죄를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4). 회개와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는 고백은 회개의 증거이다.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셋째, 위기에서도 먼저 주를 찾았다는 점이다(6-10). 먼저 제사를 마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그들을 파하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는 놀랍게 일어난다.(마 6:33) 엘리와 그 백성의 외식은 실패였지만 사무엘과 그 백성의 진실주의는 성공을 가져왔다.

1)왕을 구하는 백성 (삼상 8:1-22) - 사사시대의 욕의 부패성은 사무엘 통치에도 계속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자녀들의 부패로 나타났다.(3) 사무엘과 대조된 자녀들의 부덕은 인간의 육체소육에 기인한 것으로 마음 관리의 실패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바울의 지적대로 욕은 경건 모양으로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위험에 떨어지게 한다. 둘째, 인간 왕을 구하는 욕망으로 나타났다. 이 명예욕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선을 행하려 하나 죄를 범하게 하는 자극적 욕과 항상 싸우는 것이 신자생활이다. (롬 7:21-22) 셋째, 오직 하나님의 왕 됄을 인정하는 순종만이 나갈 길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좋아하고 따르는 순종만이 복된 길이며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이 왕 되심이 인정되는 현장이 천국이다.

2)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 (삼상 9:1-14)** - 백성의 악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소유할 특성을 발견한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다. (1-4) 사울이 자기 부친의 잃은 나귀를 찾으러 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임을 볼 수 있다. 가정 생활에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사도 기준은 구약에도 동일하다.(딤펴전 3:4-5) 둘째,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이었다.(10) 한 종의 권고대로 선지자를 찾아가는 겸손한 인격을 보인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주시는 진리에 부합된 것이다. 셋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7-10) 선견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은혜를 받을 중요한 조건이다.

3) **준비하시는 하나님 (삼상 9:15-27)** -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항상 준비하신다. 왕을 구한 일이 그릇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첫째, 왕을 준비하셨다.(16)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 차근 진행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이시다. 전날 밤 사무엘에게 보여진 대로 그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겸손한 지도자를 만난 것이 또한 하나님 은혜였다.(20-21) 둘째, 기도 제물을 준비하셨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영똥한 것을 구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불레셋 위기의 도움을 구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기까지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부르짖는 기도의 별미가 드러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16)

III. 성령의 감동 (삼상 10:1-16)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사울과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일꾼에게 절실한 필요는 성령의 감동임을 본다.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

첫째, 순종하는 마음에 임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엘의 지도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10) 성령은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계속 따르게 하시는 순종의 영이기 때문이다. 신자는 불순종의 영을 대적한다.(엡 2:1-2) 둘째, 말씀과 교제할 때 임한다.(5-9) 신학교로 통하는 선지자 무리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삶으로 연합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은 말씀(예언) 안에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교제할 때 홀연히 임하신다. 기도에도 항상 힘쓰고 성령의 손가락인 성경에 입 맞추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1. **한 생애의 결산 (삼상 12:1-18)** - 사무엘이 거짓과 탐욕 없는 자신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증거하는 본문은 한 인생결산의 본을 보인다. 첫째, 충성된 종이였다. 그는 도적질, 속임, 압제, 뇌물에서 깨끗했다. 이것은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고 사리 사욕을 벗어난 고백과 같다.(행 20:33-35) 둘째, 역사적 안목을 가졌다. 사무엘은 애굽에서의 구원, 사사시대의 구원 (여룹바알 바락 입다 사무엘)을 언급하며 구원자를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것이(14) 큰 죄라고 지적했다.(17) 또 왕을 허락한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분명히 가르쳤다. 셋째, 영력이 충만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16)”는 선포는 홍해 앞에서 모세와 같다.(출 14:13) 그의 간구로 우뢰와 비가 내려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였다.

2.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순종 (삼상 15:1-15)** - 사울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 순종에 주목하셨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1) 사울은 즐겨하지 않았다고(9) 말한다. 사무엘은 무척 슬퍼했으나(11)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한 것은 영적 둔감 상태를 보인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첫째, 마음 받이 문제였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함은 가난한 마음이 상실된 증거이다. (마 5:3) 회개는 안되고 온유함이 없고, 의를 사모함도 없었다. 둘째,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감하는 죄악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이다. 말씀 순종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한다. 작은 말씀 순종에 실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제사보다 나은 순종 (삼상 15:16-35) - 순종자에게 외적 복이 임하지만 사실상 순종 상태 자체가 복이다. 마음이 환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것은? 첫째, 제사의 본질이 순종이란 뜻이다. 종교의 씨를 가진 제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참 종교는 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드려 순종의 예배를 드린다. 둘째, 순종의 마음에 응답의 불이 임한다.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탐욕의 불이 타올랐으나 순종하는 사무엘의 마음에 성결의 불이 타올랐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탐욕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골 3:5) 셋째, 순종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란 뜻이다. 제사의 본질은 순종이기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형식으로 드러지는 제사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제사이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 순종으로 일관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한다.

4. 승리의 비밀인 순종 (삼상 16:1-23) - 본문은 다윗의 소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했는가? 첫째, 순종자를 통해 부르셨다. 사무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심은 오늘날에도 변치 않으신다. 순종일관하는 신앙이 승리의 비결이다. 둘째, 순종의 중심을 가진 자를 부르셨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중심을 택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 셋째, 순종자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개별적으로 기름이 부어졌고 그 날부터 성령의 감동이 따랐고 지혜와 기술과 용맹이 출중한 은사가 임했다. 무수한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뿐이다.

5. 불순종의 위험 (삼상 17:1-11) - 하나님 경의를 잃어버린 사울은 무기와 대군을 보고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불순종의 마음에는 담력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 회개해야 한다. 사울은 후회는 했어도 회개할 줄 몰랐다. 그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해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고 슬피하며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한다.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순종의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둘째, 믿어야 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었다. 믿어지는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려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될 때 길을 가르쳐 주신다. 불순종은 일이 잘되어도 안 되어도 항상 위험하다. 외부 중압감이 몰려올 때라도

순종할 때 소망이 시작된다. (렘 33:3) 신앙의 치명적인 불순종을 몰아내야 한다.

6. **능력의 원천인 순종 (삼상 17:12-27)** - 왜 순종이 능력의 원천인가? 첫째, 순종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순종 없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며 거짓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순종과 기도만이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다. 둘째, 순종은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골리앗 앞에서의 담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빈틈없이 믿은 순종의 마음에서 나왔다. 셋째, 순종의 그늘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는 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대로 하면 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가노라는 다윗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 하신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데 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은혜가 떠난다.

7. **다윗의 예민한 영감 (삼상 24:1-22)** - 본문은 사울의 살기있는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에 예민한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난다. 첫째, 원수인 사울을 죽이는 기회를 선용하였기 때문이다. 타락한 사울이지만 기름부음 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권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에 최소한 은혜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귀히 여긴 것이다.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다. 둘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존중히 여김은 말씀과 깊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옷자락을 베어도 마음에 찔림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과 내적 연합으로 깊이 연결된 것을 증거한다. 혈루증 여인에게 주님 능력이 임하자 즉시 치료를 느낀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마음은 살아있는 진리의 교통이 예민하게 일어난다.

8. **원수로 복 빌게하심 (삼상 26:13-25)** - 또 다시 사울을 제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끄셨는가? 첫째, 다윗의 선택. 아브넬의 단호한 간청과 주변 상황을 보고 인간적 방법을 따를 것 같은데도 기름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다, 작은 한마디 말씀을 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복되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 2:3)은 다윗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있다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의 혈육의 소리를 제하고 바로 이 길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배려를 접한 사울은 일시적 감동으로 다윗을 축복했다. 원수로 복을 빌게하시는데 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마 5:16)

9. **왕이신 하나님 (삼상 10:17-27)** - 구속사에 있어서 한 전환점이 되는 본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왕권 주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미스바에 모인 회중에게 사무엘은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했다.(18) 동시에 왕을 구한 그들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더 분명히 하셨다.(19) 세월이 흘러도 그는 여전히 왕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어리석은 주장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그들 고집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 위한 인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인간 왕을 통해 자신의 왕 되심을 보일 목적 때문이다. 이 넓은 사랑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의 왕이신 그 분을 높여 드려야 한다. 겸손의 왕 안에 사는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즐거워해야 한다.

10. **하나님의 기회 (삼상 11:1-15)** -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한 사울에게 어떤 기회가 주셨는가? 첫째, 하나님의 신이 부여졌다. 암몬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신을 부으셨다. (6-7)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받을 기회이다. 둘째,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높이셨다.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한 그를 경멸하고 조롱한 자를 처단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정도로 그의 왕권을 세워주셨다.(12-15) 이것 또한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는 기회였다. 셋째,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뻐하게 하셨다.(15) 그릇된 동기에서 왕을 구하던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은혜받은 기회를 복되게 여기며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 회개할 기회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착념하여 그 분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높일 때이다.

11. **아비가일의 신앙 (삼상 25:1-44)** - 나발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는 참 신앙의 표현이다. 참 신앙이란? 첫째, 사건 속에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본다.(28) 다윗이 고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적전쟁에 참여한 것임과 다윗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확신이 있었다. 참 신앙은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 중심한 생각으로 채워진다. 둘째, 생명싸개의 보호를 알았다.(29) 역시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는 확신 즉, 생명싸개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성취됨을 믿었다. 임마누엘의 약속만이 성도의 길을 보장한다. 셋째, 그 기업에 참여하기를 소원했다.(31) 그는 위기 속에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복의 소중성을 알고 바라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을 받은 신자는 그 날에 완성될 기업을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아비가일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12. **경외의 신앙 (삼상 26:1-12)** - 다윗의 위대함은 경외신앙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태도로 보여졌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기름부음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났다. 다윗 진영에서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기름부음에 대한 존중을 보인 것이다. 기름부음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경멸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9) 부족한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목사 통해 설교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다. (살전 2:13) 둘째, 그에게 사울을 깨우려는 긍휼의 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죽이지 않는 대신 창과 물병만을 가져감으로 강팍한 사울의 마음에 거룩한 자극을 주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 했다. (17-19) 성령의 역사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의 인도를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

13. **하나님의 지혜 (삼상 27:1-28:2)** - 숨 막히는 사울의 공격으로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사울의 단념으로 나타났다.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불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사울은 단념했다.(4)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원수를 잠잠케 하셨다. 둘째, 시글락에 거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불레셋 진영에 들어간 다윗에게 시글락에 거하도록 배려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가족들이 불편했지만 다윗 왕국을 세우는 전초기지가 마련되었다. (6-7) 셋째, 아기스의 환영을 받게 하셨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증거를 보임으로 (2)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랍다.

14. **성경에 착념하자 (삼상 28:3-25)** -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두려움에 싸인 사울은 점점 수렁 속에 빠져가는 불행한 왕이 되었다. 불행한 인생이란? 첫째,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다. 블레셋의 위협 속에 두려워 한 사울 왕은 여호와께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5-6)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그는 불행한 최후를 마쳤다. 둘째, 무당을 찾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자 회개보다도 신접자를 찾아 해결하려 했다.(7) 종전 자기 손으로 모두 멸한 신접자를 찾은 것은 영적으로 심히 공허한 상태임을 증거한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마음은 자연히 악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셋째, 거짓 교훈에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신접자의 초혼 행위는 마귀의 장난이다. 과거와 현재의 무엇을 맞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14-19) 육적 호기심에 끌리는 것보다 성경이 가는데 까지 가고 멈출 때 멈추는 성경에 착념된 마음만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15. **원수의 굴복 (삼상 26:13-25)** -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보인 다윗의 순종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첫째, 사울이 감복했다.(21)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준 증거를 본 다윗의 선행이

알려지자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누우치는 자리까지 나갔다. 신자의 순종 행동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 둘째,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빌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인했다.(25) 일시적이지만 자기 탐욕적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은 셈이다. 원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려지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 신자가 먼저 세상 빛이 될 때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다. 구약의 야곱도 브니엘에서 기도하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예서가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순종의 위력을 증거한다.

16. **피할 길 (삼상 29:1-11)** -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길이 있다는 진리가 다윗을 통해 증명되었다. (고전 10:13) 첫째, 열방에서도 여호와와는 높아지셨다.(6)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깔린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증거이다.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심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둘째, 이스라엘에서 치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모면케 하셨다.(9-10) 다윗의 출전을 앞두고 왕과 방백들 간의 의견 충돌로 다윗은 자기 동족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윗이 당한 시험의 환경, 원수 나라에서의 망명 생활의 갈등, 애매모호한 상황,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롬 8:28)

17. **보좌로 나가는 관문 (삼상 30:1-20)** - 애매한 시험을 모면한 안도감도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큰 슬픔으로 바뀌어졌다. 다윗 생애에 가장 큰 시험을 당했기 때문이다. 아말렉 침략으로 진영이 모두 불타고 모든 처자식들이 잡혀갔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다. 결과적으로 그 까닭 없는 고난이 그로 이스라엘의 보좌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는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했다. 자기를 따르던 심복들마저도 다윗을 쳐 죽이려는 극한 상황을 당할 때 군급하였다.(6) 형언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완전히 항복했다. 자아부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다. 둘째,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 그 위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 주께 모두 맡기는 믿음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6)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에 더 철저히 순종했다.(9-20) 큰 시련을 통해 큰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

18. **의를 세우는 다윗 (삼상 30:21-30)** -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의의 노선을 지켰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하나님의 의를 모든 생활에 세워가는 것이 신자가 가야할 길이다. 어떤 점에서 그는 의를 세웠는가? 첫째, 잃은 것을 되찾아 온 전리품을 출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했다.(24) 수고한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따라 온다. (마 6:33) 둘째, 유대 장로들에게 그 탈취물을 보냈다.(26) 망명생활 중 자기 보호에도 힘드는 때 여호와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임을 알고 율법을 따라 의를 세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종의 순수한 의로 세워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사는 자를 찾으신다. 인간의 의 위에 세우려는 혼란한 세상에 그의 의인 성경을 바로 알고 나 자신부터 의를 좇으며 작은 일부터 의를 따라야 한다.

19. **사울의 죽음 (삼상 31:1-13)** -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은 물론 자신까지 죽는 비극을 맞이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탐욕의 값은 사망이란 것을 배운다.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어도 자기 명예와 탐욕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울은 그 자신의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약 1:15) 많은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회개의 증거를 갖지 못했다. 둘째, 하나님의 손이 정말 두려움을 배운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의리를 배반하고 신접자를 찾는 타락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으로 임했다. 조용한 가운데 듣고 계시고 말씀 따라 은밀하게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정말 두렵다.(마 10:28) 셋째,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백성들이 구함으로 허락된 인간 왕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친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려는 본래 의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어져도 언제나 동일하다.

결론:

사무엘상에 사무엘로 보여진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사울이 왕이 됨으로 퇴색된 모습만을 보이던 것이 다윗 때 와서 처음으로 진정한 신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본주의적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마침내 더 추한 사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윗을 통해 그의 형상을 궁창의 별처럼 더 뚜렷하게 나타내셨다. 한 개인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1. 사무엘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자화상을 보인 신정의 왕이신 여호와와는 다윗 속에서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을 계속 하셨다. 사무엘 하에서 시작되는 유다지파의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주체이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영광의 성령의 주도하심을 여러 상징주의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과도기

때에 어떤 인도를 하셨는가를 볼 수 있다.

마태는 다윗이 메시아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으로 기록하였고 (마 1:1) 바울은 다윗이 구약시대에 살고있었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 죄사함을 아는 다윗으로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불렀다고 말한다. (시 130:1, 마 22:43)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존된 신정과 연합된 다윗의 왕정은 신약의 구속윤리로 나타난 최초의 본으로 계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즐겼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언약궤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하 6:7)

오벰에돔이 자기 집에서 법궤를 3개월 모셨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 후 다윗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공정으로 옮겼다. 그때 그는 그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쳤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 집안을 축복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첫째, 웃사의 죽음이 다윗을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앙에 머물 수 있었다. (12) 그는 3개월간 침묵을 지키다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결심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다윗은 성령의 임재 속에 군중 안에서 춤을 추었다. 법궤의 상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에덴,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섬기는 것과 같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욕체의 욕망의 결과로서 사탄과 그의 세상적 욕망은 그 속에서 일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성공적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그는 성령의 기쁨을 소유했다. 법제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군중 앞에 춤을 추었다. 다윗은 그가 성령으로 영감받은 사실을 증명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는 성령의 동일한 흐름을 따른 것이다. 그들 노래의 공통된 주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분명히 나타내신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애굽의 죄 때문에 나일강을 마르게 하실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의해 가나안의 방언을 하게 하시며 애굽 중앙에 성소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다.

셋째, 그는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을 축복하였고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졌다. 그가 숭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자기 가족과 자기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다. 창 12:3 의 현실적 성취가 성령안에서 성령의 부으심이다. (갈 3:14)

우리는 세가지 주제로 다룰 것이다. 1) 다윗 왕조의 성령의 역할 2) 다윗이 갈망한 복 3) 사무엘하에 나온 하나님 형상 회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에 나타난 영원한 언약에 관해 생각한다.

I. 다윗 왕권 속의 성령의 역할

우리가 계시 속의 전체 그림을 보기 때문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령의 역할을 검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창세기 속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것이고 창조의 영은 구속의 영과 동일하다. 다윗시대의 성령의 역할은 어떠한가?

1. **성령을 경외하라 (삼하 1:1-16)** - 사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에게 그를 죽인 아말렉 사람이 상급을 바라고 면류관과 팔지를 증거물로 가져왔을 때 여호와 경외 신앙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첫째, 아말렉 사람을 죽임으로 의를 세웠다. 기름부음에 대한 경홀이 하나님에 대한 경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원수를 죽인 공로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나라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예민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둘째, 기름부음에 대한 존중심이 특별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도가 진정한 동기였음이 더 분명해졌다. 경외신앙은 항상 진실의 길을 걷는다. 기름부음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성령을 경외함이

참 믿음이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친히 세우시는 그의 인격적 역사를 인정하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2. **다윗의 마음 (삼하 1:17-26)** -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한 중심을 보여준다. 그가 부른 활의 노래에 어떻게 표현되었나? 첫째, 그들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겼다.(19-21) 이스라엘 두 용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했다. 둘째, 그들의 수고로 이스라엘이 유익되었음을 인정했다.(24) 사울의 희생이 이스라엘의 안녕을 가져온 것을 기리며 그들의 죽음을 애통했다. 셋째, 무엇보다 그들 위에 일하신 기름부음의 역사를 인정했다.(21) 기름부음을 존중하여 긴 까닭은 인간의 부패한 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기름부음이 복중 복임을 확신한 것은 모든 부요, 명예, 권력은 물론 영생의 풍성한 삶이 여기서 나올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답후 1:7)

3. **다윗의 복관 (삼하 2:1-11)** - 다윗의 경외신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였다.(1) 유다가 올라가는 일이나 헤브론에 머무를 때도 기도응답을 그대로 따른 것을

보면 다윗은 단순한 삶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울이 죽은 직후 마음대로 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철저히 주의 뜻을 따랐다. 성령을 좇는 성도는 바로 이 길을 가야 한다. 그 길만이 모든 유혹을 피하며 이길 수 있다. 둘째,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표창하고 축원함으로 그 신앙의 진실성을 증거했다. 무엇보다 그는 은혜와 진리에 초점을 둔 복을 구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은 기름부음의 인도를 따른 것으로 반드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사랑으로 요약되며 하나님 성품의 닮음을 가리킨다. 다른 복은 부수적이라면 주님 형상을 닮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복을 사모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요 1:14)

4. **인간명철은 무력하다 (삼하 2:12-32)** -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과의 일연의 갈등에서 인간명철은 무지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첫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의는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다윗 편이 승리로 기울어 지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보여진 것처럼 혼란 속에서도 그 나라는 반드시 세워진다. 바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이 없으면 죽고 만다. 둘째, 쌍방의 싸움에서 그 나라의 의와 긍휼은 나타나야만 한다. 아사헬이 자기 힘만 믿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려갔으나 도리어 자신이 죽고 말았다. 자기 재능과 지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일 때만 쓰임 받는다. 자기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할 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잠 3:5-6)

5. **미갈을 데려오라 (삼하 3:1-16)** - 예나 지금이나 가정생활의 창조 질서가 존중되는 진리는 살아있다. 이것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이 본문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첫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한 죄때문에 그는 요압의 손에 의해 죽는다.(27)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통일왕국건립에 일조하였지만 그가 행한 탐욕과 간음의 죄가 하나님께 목인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다윗 생애에 많은 유혹이 몰려 온 것은 가정생활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이다. (1-5) 일부일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못한 것이 옳무가 되었다. 그 중 첫 사랑 미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브넬로 반드시 미갈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13) 미갈처럼 큰 사랑을 저버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첫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

6. **죄를 미워하는 다윗 (삼하 3:17-39)** - 아브넬의 망명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였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었다. 무장을 해제한 아브넬을 요압이 죽임으로 또 다른 위기가 몰려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가? 첫째, 그는 죄를 미워했다. 요압의 한 행동을 심하게 책망하며 그 죄를 미워했다. (28-29,39)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장례식을 잘 치렀다. 죽은 사울과 아브넬에 대한 배려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혼란한 민심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36)

정말 다윗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다. 구약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적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를 이루셨다.

7. **경외신앙의 진수 (삼하 4:1-12)** -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을 죽인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경외신앙의 진수를 발견한다. 무엇인가? 첫째, 사울이 받은 기름부음을 진심으로 존중한 것이다.(11) 성령을 가리키는 기름부음은 구약의 삼중직(왕, 선지자, 대제사장)에 부여됨으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사역이 가능함을 보인 것이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경외 신앙의 특징이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다. 성령을 따름으로 하나님나라의 의를 세우려는 마음이 경외신앙의 또 다른 진수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좇으며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거기에 마음을 바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8.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삼하 5:1-10)** - 다윗이 왕이 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단지 중간보고에 불과했다. 왜 그런가? 첫째, 다윗이 받은 복은 왕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보는

것이 참된 복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한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둘째, 다윗의 사역을 점점 강성케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임하심으로 그 복의 노란 자위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 질 수 밖에 없다. 신자의 구원 여정에 은혜로 주어진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는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복이다. (롬 8:29-30)

9. **왕이신 그리스도 (삼하 5:11-25)** -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왕이 된 다윗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의 아내와 첩들에게서 나온 소생이 11 명이나 되는 부끄러움을 보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왕도를 잘 알았다. 그것은 순종이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진리를 발견하는가?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란 사실이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 단지 인간 왕을 통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만이 왕이시지만 친히 싸우신 용사이셨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준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 속에 나타난 그의 고백에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 피난처, 요새, 능력, 망대라는 확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왕이고 신자는 그를 섬기는 종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친히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받은 것이다.

10. **웃사의 죽음 (삼하 6:1-11)** - 다윗의 통일왕국은 법궤를 가져옴으로 신정국가의 안정성을 찾았다. 그 과정에 일어난 웃사의 죽음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째, 땅에 떨어지는 법궤를 막는 일로 즉사한 웃사로 인해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제사규례를 배운 웃사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 하나님 보좌의 상징인 성전, 성막, 그리고 법궤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이 일을 가져왔다면 성경, 성령, 복음, 그리고 예배에 관한 그릇된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는가? 성찬을 남용하던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생긴 것을 보면 그 두려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전 11:30) 둘째, 오벰 에돔 집에 임한 복은 웃사에게 임한 화와 대조를 이룬다. 모든 일의 기초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 복은 먼저 마음이 영열로 뜨거워지고 거기에 맞는 은혜가 따르는 것이다.

11. **예배의 축제 (삼하 6:12-23)** - 21 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삼하 6:21) 란 말은 예배의 독특성을 설명한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이 즐거워 춤을 춘 것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조롱받을 정도로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만 미갈에게 징계가 따른 것을 보면(23) 다윗의 행동이 주께 열납되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에 즐거움의 요소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경배와 거기에 따른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감정적 반응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축제가 무시될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선행과 구제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히 13:16) 경배가 빠진 축제(cerebration)만 남는 행위는 웃사의 행동과 같은 것이다. 축제를 통해 경배가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먼저 이루어질 때 축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가 먼저이지 열매가 먼저가 아닌 것과 같다.

II. 다윗이 갈망한 복 (삼하 7:1-29)

본문에 보면(27) 다윗 신앙은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열심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백향목 궁정에 있는 자신과 장막에 있는 법궐을 비교할 때 성전 건축할 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다. 둘째, 은혜로 임할 영원한 복을 구한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다. 한 가문과 한 민족의 복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근원으로서의 복을 구한 것이다. (창 12:3) 알고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풍성함을 맞본 것이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부어진 것을 밝힌다.(엡 1:3) 동일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항상 즐거워해야 한다.

1. 다윗의 목표 (삼하 8:1-18) -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삶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첫째, 자기 일에 성실한 삶이다. 다윗이 그 나라를 평정키 위해 내적, 외적으로 많은 힘을 쏟았다. 외적으로 몰려오는 원수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한 것뿐이다. 복음 안에서 모든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이나 내가 머무는 때는 모두 나의 승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임마누엘로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윗은 나라 평정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웠다.(마 6:33) 원수를 정복한 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의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신자는 구원받은 후 공의를 세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 나 자신부터 이 길을 따라야 한다.(마 6:33)

2. **하나님 나라의 의 (삼하 9:1-13)** -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는 다윗의 노력이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첫째, 그 의는 공훈과 자비로 나타났다. 므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배려는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이다. 공훈과 공의가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다. 원수의 손자, 절뚝발이를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공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나게 한다. 그의 초청 소리를 듣고 마음 문만 열면 내게 들어와 큰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계 3:20)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그 인자와 진실을 즐기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다윗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아브라함이 민족적 복을 누림보다 자기 권속이 하나님의 공과 의를

행하는데 있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언제나 그 나라의 공과 의를 세우는데 심혈을 쏟았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성령이 그래서 오셨고 그의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마 4:4, 신 8:3)

3. **다윗의 방법 (삼하 10:1-19)** - 원수의 교묘한 난관에 처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가? 첫째, 원수의 꾀계에 휘말리지 않았다. 친선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불기를 들어내 보낸 처사는 일종의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었다. 은혜를 수치로 응답하는 암몬의 악한 행동은 다윗으로 더욱 더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했다. 신자가 세상을 향해 선을 베풀 때 좋은 응답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까닭 없는 핍박이 돌아올 때에도 의의 노선을 잘 지켜야 한다. 둘째, 의를 세우기 위해 정당방위로 그들을 멸절시킴으로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보여주었다. 신자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원수의 이유 없는 공격앞에도 의를 따르기란 정말 힘들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의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 일에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4. **회복의 길 (삼하 12:1-14)** - 유혹은 언제나 신자의 길에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숨어있다. 다윗은 이 타락을 어떻게 회복했는가? 첫째, 유혹이란 고난보다 승리 후에 더 자극적으로 찾아온다. 긴장 속에 사는 고난보다 번성의 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발동한 욕심으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것이다. 왕의 권력, 경건의 모양, 자연적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죄를 가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셨다. 둘째,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즉각 용서를 받았다. 시편 51 편에 나온 영적 고통과 고백을 보아 죄 짓는 순간, 다윗 속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하시며 큰 자비로 일하셨다. 죄악에 대한 경악, 중압감, 격리감 그리고 자신의 비참 상태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다윗은 책망받자 마자 즉각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십자가 효능은 회개할 때 참 용서로 즉각 나가게 한다.(요일 1:9) 참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

5. 악을 선용하는 지혜 (삼하 15:1-37) - 악을 선용하는 지혜 (12) 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일찍이 요셉에게 보여진 그 지혜가 다윗에게도 나타났다. 도망가는 자기 상태를 비난하며 티끌을 날리는 시므이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자세히 아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는 부하의 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죄를 갚으시는 손을 보고 참 회개의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다음, 그는 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보았다. 원통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회복하시는 형통의 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고난 속에서 받은

진정한 은혜였다. 그 사랑의 회복을 알면서도 다윗은 장담하거나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경외심으로 겸손히 말할 수 있었다. 참된 경외심만이 악을 선용할 수 있다.

4. **참된 피난처 (삼하 17:1-14)** - 잔인한 퀘제가 친하를 주름잡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만이 반드시 세워진다. 압살롬의 배은망덕과 거기에 동조한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다윗 왕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하심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였다.(14) 합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일이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현재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 분만을 의지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7. **신자 복의 진면목 (삼하 22:1-20)** - 주전 1200년 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만을 절대 구주로 믿은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다. 첫째, 다윗은 아브라함과 바울의 신앙과 같은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이란 한마디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리킨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예수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요 14:6)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신앙만이 구원이고 복이고 복음이다. 둘째,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의 피난처로 달려가 그것을 조용히 따랐다. 그 결과 환난 날에도 그는 암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뛰어 다녔다. 이기는 은혜는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말씀의 신앙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복의 진면목이다.

8. **원 복음의 길 (삼하 22:21-28)** - 다윗은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숨었다. 환난 당할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규례를 앞에 두고 의를 따르며 악을 행치 아니하였고 스스로 악을 피했다. 성경의 피난처에 숨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거머리처럼 성경에 달라 붙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시 1:3) 둘째, 하나님이 갓으셨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으로,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으로 갓으시나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끈고하여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동성에 죄를 은근히 동조하는 세상 분위기로 고통하는 현대 교회는 원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가 거기에 착념하여 그 속에서 펼쳐지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다.

III. 영원한 언약 (삼하 23:1-7)

높이 올리우신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은 어떤 삶을 약속하는가? 4 절에서 세 은유로 표현된 약속을 발견한다. 하나는 일출의 햇빛, 구름 없는 아침 햇빛, 비온 후에 돌아나는 풀 위에 머문 햇빛의 밝음이라 했다. 모두 빛의 성격과 관련된 비유이다. 정말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늘 소망이 있었고 풍요와 새로움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좋은 일을 체험했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따사로운 보호를 체험했다. 그의 피난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에 마음을 두는 상태를 진정한 복으로 확신했다. 그의 확신은 복음 안에 있는 신자에게도 약속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신자는 빛의 능력과 영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주께 부어진 관제 (삼하 23:13-35) - 바울 같이 자신을 관제로 바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본문에 두 관제가 부어졌다. 첫째, 세 용사의 관제가 부어졌다. 다윗의 세 용사들(요셉반세벳, 엘르아살, 삼마)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찾는 다윗을 위해 적진을 뚫고 걸어 온 물은 하나님에 대한 관제였다.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등불이기 때문이다. 개인을 위한 것보다 여호와를 위해 단번에 드린 제물이 신정왕국을 든든히 세운 것이다. 둘째, 다윗의 관제가 부어졌다. 자기가 받은 물은 자기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임을 알고 쏟아 바치는 다윗의 아름다운 관제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였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귀하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지금도 찾으신다.

2. **나를 치소서 (삼하 24:1-17)** -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여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갔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를 해결했는가? 첫째, 다윗의 회개, 인구조사의 동기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 게로 옮겨갔다. 성전 짓겠다는 마음이 이제는 자화자찬하는 자리로 나간 것이 재앙의 원인이었다. 그 비참한 형편을 본 다윗은 즉시 회개하기를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 회개가 재앙을 중 단시키는 방법이다. 자기 몸만 사리는 것은 불행 이다. 다윗 신앙이 인정받은 것은 책임지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 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공휼, 회개하면 자비는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에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디어 책임지고 기도해야 한다. “나를 대신 치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곳에 새 역사가 일어난다.

3. **열납된 제사 (삼하 24:18-25)** - 재앙을 당한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열납하는 제사를 드렸는가? 첫째, 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타작마당에 값없이 제사 드리도록 배려되었으나 정당한 값을 치른 것은 의를 따른 행동이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의의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셨기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우리는 그 공로가 완전한 의의 제사임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았다. 둘째,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열납되었다. 유일한 속죄제이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모든 재앙을 제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로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의 기도는 그 자체가 제물이다.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 재앙이 그친 것처럼 성도의 진정한 간구는 놀라운 효력을 반드시 가져온다.

6. 열왕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계시된 분별의 지혜, 일반은총의 이해 그리고 공동생활의 지혜를 나타내었다.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원천에 관하여 논의를 했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지혜가 예수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인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솔로몬이 구약의 성령을 받은 사실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첫째, 그는 기브온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기브온 높은 곳에서 드렸던 일천 번제는 여러 제단에서 실행되었던 번제처럼

보인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상의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한다. 그가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의식의 차원 위에 최상의 헌신을 갖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다.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영광에 기울어진 마음에 남아있다. 주님은 참된 예배로 보셨다. 성전, 장막 제단은 예배의 상징주의를 의미한다. 신약 속에 주님이 성전을 깨끗케 하신 바는 참된 예배가 그의 관심인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배자이나, 강도이나, 기도의 집이나 혹은 강도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육적 욕망과 영적 욕망과의 다툼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매일같이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흠 12:1-3)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제물을 이해해야 한다. 솔로몬은 다윗의 경건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정직과 신실과 의를 다윗에게서 배웠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 (11) (16-28) 솔로몬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그는 꿈 속에서 소원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다. 그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싶어했다.

셋째, 그는 일반은총을 깨달은 지혜를 얻었다. (4:29-34) 솔로몬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아는 지혜였다. 우리가 특별계시인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의 역사로 일반은총의 지혜를 얻는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을 받아들인 우리는 지혜의 원천을 가진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 형상, 의인신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그가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2) 그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다. 3) 그는 성령의 지혜로 일반은총을 이해했다. (4:29-34) 그리고 4)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다윗 왕국은 망하였다.

I. 하나님의 형상이 산제사로 계시되었다. (1:1-3:28)

솔로몬의 첫 경건은 다윗의 영적 영향때문에 산 제사의 삶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목적이었고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은 곧, 의, 인과 신이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정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정과 같은 흐름이다. 이는 성령 안에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증거는 어디있는가? 왕상 1:1-11:27 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적인 요소 즉, 겸손, 영적 지혜,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산제사의 삶과 달리 자신에 대한 극도의 제사 곧 정욕이 왕상의 역사가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역사를 결코 부서뜨릴 수 없었다. 실제로 솔로몬의 상징주의는 새 언약 백성의 산 제사를 위한 본을 나타냈다 (롬 12:1-2) 그러나 솔로몬 통치 후에 분열 왕국은 두가지 요소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냈다.

1.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 (왕상 1:11-27)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왕상은 하사란 솔로몬과 그의 왕조에 성령의 지혜의 역사를 나타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다. 왕상 1:11-27 에서 우리는 먼저 지혜의 흐름을 발견한다. 나단과 밧세바는 몰락하게 된 반역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 그들은 성령의 지혜를 따랐다. (13) 다윗의 자문으로 일한 나단은 인간의 뜻을 부서 뜨렸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길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일하시기 때문에 열리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이나 혹은 저 일이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거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참 지혜이다. (약 4:15).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다.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열매이다. 성령의 지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2. 우리가 겸손해야만 되는 이유 (왕상 1:1-10) -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배운다. (5) 겸손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본래 사람이 겸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흠으로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자신을 주님에게 위탁하고 겸손의 상태로 변화되었을 때 비록 그가 자기 속이 매우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 속에 아무런 밀천이 없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겸손할 때 오기 때문이다. 교만은 아담이 뱀에 의해 유혹을 받거나

니므롯이 사탄에 의해 바벨탑을 세우려는 교만에 의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한 주요한 도구이다. 비록 그가 경건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해도 교만이 짝이 텅기 때문에 겸손한 법을 따를 수가 없었다. 세째, 그의 영적 눈이 열려졌을 때 그는 어떤 것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알 수 있다.

3.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자 (왕상 3:16-28) -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고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28)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이다. 두 사람의 고소를 사랑의 성격을 사용함으로 해결되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그것은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28 절에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와 지식의 기초이다. 은사가 나타날 때 영광과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원시교회는 성령과 지식으로 충만한 일꾼을 임명했다. 셋째, 그것은 성령의 지혜이다.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행정기술과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으나 성령의 지혜를 가진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조명하신 성령의 지혜였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

4. 솔로몬의 대관식 (왕상 1:28-37) - 혼란의 때에 솔로몬의

대관식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20 절에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우리는 과거에도 구하셨고 현재도 구하시고 앞으로도 구하실 여호와와 손에 입 맞추어야 한다. (고후 1:10). 둘째, 그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지혜이다. 셋째,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부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셨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행 1:8)

5. 하나님이 세우신 왕 (왕상 1:40-53) - 성령의 지혜는 참된 왕의 상징주의로서 인간 왕정 속에 거룩한 왕을 세우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목적은 세상에 왕권을 알리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나타냄이다. 그 나라는 두가지 성격으로 되어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 나타난다. (45)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나단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선지자였고 브나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솔로몬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외의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신실한 일꾼이었다. 둘째, 그러나 반역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나온다. (50) 아비아달, 요압, 아도니아는 육체의 부패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서는 반역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 결과는 약함과 죽음이다.

(마 16:16)

6. 번성의 비결 (왕상 2:1-12)- 크리스찬은 다윗이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명한 길을 필요로 한다. 첫째, 우리는 말씀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번성의 길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것이 복된 길이라 했다. (2, 수 1:8)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 길외에 다른 길은 거짓된 길이다. 둘째, 우리는 전심으로 그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마음, 성품과 뜻을 다하여 첫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다. (4) 여기서 하나님은 산제사를 요구하셨다. (롬 12:1-2) 셋째, 우리는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한 바르실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요압과 시므이는 의도적인 반역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갈망해야 한다. (벧전 1:8)

7. 육적 생각 (왕상 2:13-25) - 본문은 육체의 위험을 아도니아의 그릇된 요구에 대한 솔로몬의 단호한 태도를 통해 보여진다. 첫째, 아도니아는 육체 생각의 결과를 따름으로 경건한 신앙을 내동댕이 쳤다. (21) 만일 우리가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윤리와 가치의 표준이 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부패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성령의 생각이 솔로몬의 생각에 의해

나타났다. (23) 믿음은 왕권이나 생명보다 더욱 귀하다. 그는 육체의 생각이 죽음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으로 그 이슈를 해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많은 일에 우리 마음에 육체의 음성을 분별함으로서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 감정과 공황에 의해 유혹되기 쉬운 교묘한 일을 분별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성령의 길을 추구해야만 한다.

8. 육의 결국 (왕상 2:26-35) - 우리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처리로 비참하게 죽게 된 일을 통해 육적 행위의 마지막은 죽음이란 사실을 배운다. 첫째 아비아달은 세상에서의 반역적 모형이다 (26-27).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경외신앙의 흐름을 따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 둘째, 비록 요압이 다윗을 돕는 용사라할지라도 그는 탐욕과 명예를 구하는 육적 욕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 (28-29)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죄인을 죽이는 모든 수단으로 검을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의 마지막은 죽음이나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9. 완전한 회개 (왕상 2:36-46) - 본문에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잃어버린 종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한된 노선을 넘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참 회개란 무엇인가? 첫째, 참된 동기를 필요로 한다. 역시 시므이는 탐욕의 행동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육체 소욕의 기회를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38-39) 그는 도박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았다. 둘째, 완전한 회개를 필요로 한다. 완전한 회개없이 는 생활의 변화로 나가지 못한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이런 일을 잘 알았다. (43-44) 그가 또 다른 이슈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바울이 한 것 같은 회개를 따른다면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II 하나님의 의를 구함

하나님에 대한 산제사의 삶은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한다. 더욱이 그것은 의의 실제 길을 걸어야만 한다. 타락 전의 솔로몬은 그의 삶에 의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의 부패에 떨어지기 전에 의에 초점을 맞춘다. 솔로몬 생애에 그 때의 의 추구는 하나님의 의인신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암시했다. 우리는 왕상 4:20-9:28 에 나타난 요소를 다룬다.

1.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왕상 4:20-34)** -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 첫째, 그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20-23) 열방이 조공을 드림은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증거이다.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 의식을 주장해야 한다. 둘째, 평화로운 생활은 평화의 사람들에 의해 공급된다. (24-25) 모든 왕이 솔로몬에게 나아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한 것은 모든 나라 속에 택한 백성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보인 한 상징주의이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권위, 평화 그리고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2. **신실한 솔로몬 (왕상 5:1-18)** -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묘사하는 본문은 우리의 삶에 성소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친다. 첫째,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3 절은 “하나님을 위하여”는 바벨탑을 세울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란 말과 대조된다. 사실상 에덴동산, 제단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의 장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는 주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의 실체임을 의미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주하시는 참된 성소이다. 역시 궁궐의 가건물을 세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만남에 집중한다. (8:27) 둘째,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 성전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4) 그리고 재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러진 것처럼, (6-7)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3. 성소 (왕상 6:1-13) -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 구조를 나타내실 때 상징주의는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 속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로 길이고 생명이요 진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둘째, 그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이다. 고린도 전서의 사도의 해석, 곧 성전의 상징주의의 실체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셋째, 성전은 천국이다.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나누어야 할 영원한 코이노니아에 의해 성취되어질 것이다.

4. 장식된 성소 (왕상 6:14-38) - 솔로몬 성전은 외적인 모양과 내적인 장식을 하는데 심혈을 7년 동안 기울여 세웠다. 그것은 성막의 식양을 따라 어떤 특징을 가진다. 첫째, 지성소와 성소- 같은 규빗으로 세워진 지성소는 금으로 싸여졌고 그 벽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룹의 모양으로 새겨졌다. 그리스도는 지성소와 성소의 성취이다. 크리스찬 생활은 지성소와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둘째, 의를 의미하는 두 그룹 즉 두 화염검을

기억나게 하는 감람나무는 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의미한다.

크리스찬은 성소를 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 (히 10:19-20)

5. **그리스도 안의 생명 (왕상 7:1-12)** -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생명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금하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솔로몬은그 자신을 위하여 그의 궁정을 세웠고 주님께 대한 경외신앙을 경멸했다. “그리스도안의 삶”이란 무슨 뜻인가? 첫째, 물질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먼저 성전을 세우고 다음에 궁정을 세우는 귀한 일이다. 우리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의 청지기로 살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생활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우리의 우선권을 그 분께 두어야한다. 둘째,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솔로몬의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정을 세우는 노력(8)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표준을 벗어났다. 청지기가 그의 주인을 먼저 기쁘시게 하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족보다 우리의 직업보다 주님은 먼저 구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된다.

6. **성소 도구의 실재 (삼상 7:13-26)** - 기둥과 바다는 무엇에 초점을 두었나? 첫째, 두로의 히람에 의해 만들어진 이 기둥은 (13-

14) 야긴과 보아스로 일컬렸다. 전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힘 있게 하시고 후자는 능력이 그에게 속함을 의미한다 역시 그들은 기쁨을 의미하고 백합은 생명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안의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요 1:14) 둘째, 늦으로 된 바다는 히에라오폴스 성전에 소아세아의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바다와 다르다. 그것은 제사장의 몸을 청결케 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뜻하는 유리바다를 기억케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킨다.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은 새롭고 산길을 오가며 (히 10:20)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7. 성소 도구의 실체 (왕상 7:40-51) - 성막과 성전의 구조, 곧, 복음의 빛 아래서 구약 교회의 중심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나? 첫째, 늦바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며 늦은 은혜와 진리이고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김으로 성취되었다. (히 10:19-22) 둘째, 황금 재료는 우주 속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하고 늦은 세상의 보화로서 영적 생활을 의미한다. 인자의 빛나는 주석같은 발과 머리의 금면류관은 성장주의를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금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을 의미한다.

8. 지성소 도구의 운반 (왕상 8:1-11) - 지성소 속에 법궤를 옮기는 활동에서 세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충성과 희생으로 섬겨야 한다. 법궤를 옮길 때 짐승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희생을 통해 옮겨져야 했다. 하나님은 웃사와 다윗에게 주었던 원리는 산 제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롬 12:1-7) 둘째, 우리는 주님을 말씀 중심한 태도로 섬겨야 한다. 법궤에 둘러싸인 천사는 우리로 천상의 보좌와 말씀 중심한 생활을 기억하게 한다. 셋째, 그것은 주님을 성령충만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10 절에 구름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11, 출 40:34, 행 1:1-2) 크리스찬 생활은 주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한다. 그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9. 믿음의 우선권 (왕상 9:1-9) - 기브온에서 솔로몬 앞에 두 번 나타나신 하나님은 믿음의 우선권을 보여주셨다. (1-3) 그들은 무엇인가? 첫째,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 (3)-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놓도록 하심으로 건물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탐욕의 유혹으로 떨어지지 않게하기 위하여 기도의 향이 계속 타올라야만 한다. 둘째, 제사보다 복종 (4, 5) - 하나님은 복종이 복을, 불복종이 저주와 조롱을 가져 올 것을 선포하셨다. (6-9) 사울 왕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복종을 상실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10. 사람의 욕심 (왕상 9:10-28) -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5) 는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져야 한다. 솔로몬의 헌신과 복종이 귀할지라도 그의 욕적 욕망은 그를 과멸시키는 올무였다. 그는 어떤 점을 취했는가? 첫째, 극도의 사업으로 나타났다. (10) 솔로몬이 그의 일을 12년 동안 마쳤을 때 성곽을 세우고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특이한 방법의 무역은 그의 번성을 가져왔다. 그는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욱 사랑했고 경건보다 문화의 유익을 더 좋아했고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업의 확장을 더 사랑한 사실은 주체가 객체로 바뀌어지게 변하는 일임을 증명한다. 둘째, 죄를 극복하는 길은 채워진 욕적 욕망을 성령의 소욕으로 가로 지르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야 한다. (갈 5:16) 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살아야 한다.

III. 일반은총을 이해함 (10:-12:11)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마태복음 6:33 절을 잘 나타내었음을 살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또 다른 표현이다. 더욱이 그의 경건은 왕정 속의 일반 은총을 포함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경건 속에 일반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 모세의 은혜 언약은 구속적

은혜 언약이 활동 할 수 있는 현시대의 일반 은총으로서 노아의 은혜를 포함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은총의 진리를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생각한다.

1. 부요를 지배하는 지혜 (왕상 10:14-29) -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으로 부터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를 받았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부를 자기 궁궐에 축척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에 실패했다. 그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그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 보았으나 그의 영광이 들의 꽃처럼 사라졌다. (약 2:)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받은 자이다. 둘째, 그는 은혜를 관리함에 지혜를 갖지 못했다. (빌 4:13)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즐기며 풍성한 은혜를 관리해야만 한다. 그 점에서 솔로몬은 실패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

2. 바른 믿음 (왕상 11:1-13) - 크리스찬 생활에서 시작이 중요하나 마지막 일은 더 중요하다. 크리스찬 생활은 완전한 열매를 생산하지만 일시적 열매는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계시를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한다. 솔로몬의 실패는 말씀의 빛을 경멸함에 있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의 매력에 끌려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5-6)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남으로 우상숭배에 떨어졌다. 존중은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둘째, 우리는 신지식으로 충만해야 한다. 신지식은 헌신된 마음을 가짐으로 얻어진다. (요 17:3)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의 매력에 끌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4,9) 성령의 조명으로 사물을 바로 이해하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3. 회개를 구하는 손 (왕상 11:14-25) - 하나님은 르손과 하다스가 솔로몬과 맞서 싸우는 것을 허락했다. 솔로몬 생애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다스와 르손은 솔로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였다. (21,25) 남은 생애에 그는 환난에 직면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는 자연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했다. 솔로몬이 당한 수치는 회개로 나아가는 자상한 하나님의 손이다. 만일 그가 즉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불행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질 것이다. 참된 회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자상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의 영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영을 회개의 영으로 채워야 한다.

4. 빛의 직분을 지키자 (왕상 11:26-43) -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와 맞설 다른 원수를 일으키셨다. 신실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핸들할 수 있나? 첫째, 그는 이스라엘 속에 등불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그 사명을 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가 빛의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둘째, 그것은 회개하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비록 다윗이 즉각 회개했으나 솔로몬은 그의 원수를 죽이려고 했다. 참된 회개와 참 믿음은 성령의 역할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를 복종해야 한다. (요일 1:9) 그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빛의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

5. 섬김의 길 (왕상 12:1-11) - 참된 지도력은 종의 리더십이란 사실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다. (막 10:43-45) 솔로몬의 죽음 후에 르호보암의 악한 태도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구하는가? 첫째, 권위의 리더십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젊은 세대의 주장은 전갈처럼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인격적인 연민과 열정이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교묘한 유혹의 범주 안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길에 익숙해야만 한다. 둘째, 구세대의 요청을 거절한 르호보암은 전갈의 방법을 강조했다. (6-7)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리를 경멸했다. (눅 9:23)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공통된 원리는 발을 씻기는 것이다. (요 13:)
성령의 길은 섬김의 길이고 섬김의 길은 기도의 길이다.

IV.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다윗 왕조의 멸망 (14:- 22:53)

1. 르호보암의 죄 (왕상 14:21-31)- 나라를 갈라 놓은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첫째, 그는 권위를 그릇되어 사용했다.
(21) 암몬 자손인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특권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반역했다. 크리스찬의 생활은 환경으로 인해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산다. 둘째, 그는 우상을 섬기는 열심을 가졌다.
그들은 산당을 세움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죄를 범했다. 불신실성은 수직적 죄에서 수평적인 죄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의 가난함을 이해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특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참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2. 개혁의 필요성 (왕상 5:1-15) - 아비암 (3 년) 과 아사
(41 년) 의 기록을 나태내는 본문에서 우리는 개혁의 필요성을 배운다.
첫째, 우리는 정직한 삶에 개혁을 필요로 한다. (11) 정직한 하나님
안에 확고히 서있는 사람의 응답이고 신실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다. 둘째 우리는 구속적 윤리적 삶을 회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2 절에 그가 남창을 몰아내는 결단이 증명한다. 우리의 활동이 진리에 뿌리를 박을 때 바른 삶이 그 열매가 된다. 남편과 아내 생활의 회복은 모든 개혁이 우선이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종교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가 그의 할머니의 이상승배를 버리고 담대한 개혁을 한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1) 정직한 삶을 구하고 성령 안에 갱신된 삶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3. 경고를 존중하라 (왕상 15:25-34) - 북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은 나답이 이스라엘을 2년 다스리고 아사가 유다를 2년 다스릴 때 바아사가 그를 반역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난 정치적 개혁이 또 다른 멸망의 구도를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26)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중함을 보인다. (34) 심판대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가 지혜의 사람이다.

둘째, 그는 계시의 경고를 존중해야만 한다. 참 믿음은 성경을 존중함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함이 모든 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중세시대의 속죄부를 팔던 악한 영이 일어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속히 돌아가야만 한다.

4. 악순환을 피하라 (왕상 16:1-14) - 바아사와 여로보암의

과멸의 원인을 보인 본문은 우리에게 악순환을 보여준다. 첫째, 악순환의 원인 - 그들이 우상숭배로 주님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2-7,13) 그와 다른 나라로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성전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한다. (고후 3:16) 둘째, 악순환에서의 자유 -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행으로부터 피해야 한다. 그들이 선지자 에훗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는 반역의 보좌에 대한 탐욕으로 기울어졌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따를 때 참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악순환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옮겨야 한다. 그 때 우리는 악한 시대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영적 혼란을 극복하라 (왕상 16:15-34) - 이스라엘은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왕조를 통하여 혼란에 떨어진다. 어떻게 그는 영적 혼란에서 피할 수 있었는가? 첫째, 영적 혼란의 특징은 점차 악을 더해갔다. 문화 문명의 발전이 악을 낳고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도구이다. 그 특징은 미움, 전쟁 그리고 탐욕으로 나타났다. 바벨탑의 혼란이 그들 속에 나타났다. 둘째,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개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31) 혼란과 질서는 회개의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개인의 죄, 그 시대의 죄 그리고 민족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

6. 보호의 하나님 (왕상 17:1-16) - 아합의 통치아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일을 성취하셨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그것은 성도를 견고하게 하셨다. 엘리야 말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1) 아합 앞에 그는 절대 권위로 나타났다. 모세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앞에 하나님이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그릿시내와 까마귀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은 이스라엘을 애굽, 가나안, 바벨론에서 건지시고 사역에도 변함이 없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호하셨다. 사르브트 과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절대 보호자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

7. 하나님이 왕이신 증거 (왕상 17:17-24) - 어두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빛처럼 일어났다. 본문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다른 모양이다. 첫째, 그는 당하는 고난으로 죄감을 가졌다. 비록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17-18)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열정적인 기도를 응답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어깨에 짐을 지고 세번 간구했을 때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다. (22) 이런 일 때문에 그 여인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신적권위를 가진 종으로 받아들였다. 참된 회개와 신실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진다.

8. 혼란을 이기는 길 (왕상 18:1-15) - 이스라엘의 재난은 영적 혼돈을 나타낸다.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1 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특히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필요로 한다. 신약시대에 그 보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졌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마 7:7-9) 둘째, 경외자의 복종을 통하여 고난이 극복된다. (3-12) 주님은 오바다와 엘리야의 복종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종을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이 영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한 복종의 사람이 혼란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겸손히 복종함으로서 약속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9. 불의 응답 (왕상 18:16-29) -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 하나님이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할 수 없는 거짓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의 빛처럼 풍성한 영적 은혜를 즐길 수 있다. 둘째, 그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이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증명했고 가뭄을 해결하고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실을 나타냈다. 비록 현대 과학과 문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본질적인 해결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된다. 우리는 그에게만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한다면 우리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는 놀라운 열쇠를 가진다.

10. 신 지식 (왕상 18:30-46) -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백성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 제단을 쌓아야 한다. 12 지파를 의미하는 12 돌을 세움으로 나타난 제단 쌓음은 성전 지움과 성전 청결을 의미한다. 외적 제단보다 그의 마음의 제단에 자기 몸을 드림이 더 중요하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드리며 주의 종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았다. 둘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38 절에 방황하는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46) 성령을 받고 은혜를 맛본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영생인 하나님의 참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 (요 17:3)

11. 주님의 위로 (왕상 19:1-8) - 죽기를 구하는 나심의 자리에서 위로의 본을 나타내는 본문에서 엘리야는 무슨 위로를 받았나?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위로이다. 승리 후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 도피하여 고독할 때 그런 유혹이 찾아왔다.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그들이 항상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셨음을 증명한다. (고전 10:13)둘째, 세가지 방법으로 나타난 자상한 위로였다. 그는기적의 떡을 매일 공급받고 천성의 보호의 위로를 경험했다. (6-7)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 (7) 엘리야의 영적 절망은 그리스도인이 가끔 그들의 삶에서 만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12. 사명의 생활 (왕상 19:9-21) - 하나님이 최상의 복인 성령충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사명수행을 위한 것이다.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무엇으로 실현했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폭풍, 불,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다. 그 현상이 지나간 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이해하고 겸손히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둘째, 엘리야의 사명은 세가지 구도로 나타난다. 첫째, 그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복되다. 우리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

13.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왕상 20:1-12) - 첫째, 그들은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다. 벤하닷의 침략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다. (롬 8:28) 둘째,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한다. 아합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의도적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벤하닷의 강한 요구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평화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로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눅 12:31)

14. 우리를 인도하는 분 (왕상 20:13-30) -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그는 환난 중에 공황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합의 활동이 매우 악하였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공황을 공급하셨다. (1,3) 악한 왕에 대해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복종으로 나타내셨다. 28 절에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라”는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알리심이다. 아합이 약한 능력으로 그의 원수를 이긴 것은 선지자의 계시를 따랐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용사이시다. 29-30 절에 작은 군대로 그들을 파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15. 아합의 불행 (왕상 20:31-43) - 왜 아합은 그의 생애에 불행을 가져왔는가? 첫째, 그의 탐욕 때문에 그는 파멸로 떨어졌다. 변장술로 속이려 했던 아합은 원수를 자기 형제로 용납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에 떨어졌다. 둘째, 그는 선지자의 계시를 무시했다. 계시를 무시한 한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사건은 (35-36) 계시를 경멸할 때 저주가 임함을 경고한다. 역시 아합은 계시를 떠남으로 불행으로 떨어졌다. 셋째, 그는 벤하닷을 대신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순간의 욕적 선택은 불행을 가져왔다. 우리는 약속된 은혜를 얻고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사랑해야만 한다.

16. 진리와 거짓의 분별 (왕상 22:1-12) - 남북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하여 연합할 때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름으로 죽음의 올무에 떨어졌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참된 연합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공동체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진리의 연합을 배운다. 우리는 진리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요 17:7) 둘째, 우리는 진리의 연합을 배워야 한다. 교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잘 해석하고 진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책망함을 배워야 한다. 진리는 책망의 구도로 부터 나온다. 아합은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매력적인 시드기야의 예언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잘 회복할 때 많은 유익을 얻는다.

17. 거짓된 영의 계략 (왕상 22:13-25) - 미가야가 본 거짓 영은 무슨 특징을 가졌나? 첫째, 물질주의로 떨어졌다. 400 명의 지지를 받은 왕은 그들에게 무계를 더 두었다. 400:1 의 비율이다. 거짓 영은 외형적으로 분별하고 모호한 방법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작은 겨자씨 움직임과 같다. 둘째, 그는 이상한 현상 속에 우선권을 두었다. 여러 이상 가운데 동일한 예언을 통하여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을지라도 탐욕으로 시작함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에 우선권을 두었다. 말씀의 표준과

성령의 역사에 신실함은 크리스찬의 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일을 경멸한 모든 일은 사탄의 꾀계임이 틀림없다.

18.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왕상 22:29-40) 아람의 공격 이유에 대하여 미가에 의해 경고를 받은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째,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21:9) 미가야는 지혜의 마음을 가졌으나 인간 지혜의 지지를 받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21:9) 비록 인간이 그의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주님은 그의 뜻으로 충만하셨다. 여호사밧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은혜를 구할 때 고통으로 떨어졌을 때 구원받았음이 틀림없다. (대하 18:31)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볼 수 있다.

19.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 (왕상 22:41-53) - 35 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5 년을 다스린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두가지 교훈을 남긴다. 첫째, 그는 젊은 날에 주께 헌신했다. (42) 젊은 날에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은 매우 아름답다. (1:9-10) 그는 현재의 번성을 가졌고 미래의 구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그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밖에서 오는 모든 동성애자를 제함으로서

정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 그가 산당을 남겨둠으로 난관을 당할 때 그는 악과 타협했다. (49) 특히 그가 위기를 당할 때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마침내 믿음으로 악을 이겼다. (49) 언제 어디서나 교회는 헌신된 기도를 필요로 한다. 경건의 본을 따라야 한다.

결론:

열왕기상 시대에 하나님 형상 회복의 중요한 통로는 엘리야였다. 북왕조가 깊은 어두움이 가려졌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한 역사 속에 은혜 언약을 지키도록 신실하게 일하셨다. 왜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형상, 의인신을 회복했는가?

- 1) 그가 자율주의의 상징인 우상숭배를 대적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 2) 백성들이 영적 혼란의 상태인 중간상태에서 머뭇거림에서 벗어나게 하려했기 때문이다.
- 3)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 형상의 원형인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 4) 그 일은 3년 6개월간 메마른 땅에 개인기도의 응답으로 비가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성취되었다. 이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천국은 열려졌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사탄의 머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어졌다. 엘리야가 세례요한의 사역의 상징일지라도 실상, 그의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 형상의 원형이신 완전한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5. 열왕기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왕, 선지자, 제사장의 3 중직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회복 곧, 의인신을 나타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윤리를 이루셨다. 그 가운데 선지자직은 신실함이, 왕권을 가진 신정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열왕기의 시대가 어두웠어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의를 세웠다. 모세가 출애굽 교회를 돌보는데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엘리야가 열왕기 속의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영적 권위였다. 엘리야는 은혜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시대의 모세였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은 어떤 도움없는 시대에서도 일하셨다. 특히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를 대신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사용, 삼위일체의 천상회의를 통하여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를 보내셨다. 엘리사의 사역은 능력이 있었고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확장되었다. 본서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하여 구속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를 통하여 본서에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 1) 성령의 갑절의 영감의 의미 2) 신약의 복음의 은혜를 맞본 엘리사의 사역 3) 악한 왕들 속에서 신실한 사역이 선지자들에 의해 나타났고 열왕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I. 성령의 갑절의 영감의 의미

먼저 하나님 형상회복은 능력의 원천 곧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왕하 1 장에서 그 이슈를 다룬다. 왕하의 구속계시는 엘리사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성령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워진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1. **여호와께 구하라** (왕하 1:1-12) -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보좌에 오를 때 그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그는 다른 방법을 구했다. (2) 그는 경외신앙과 거리가 멀었다. 믿음의 대상을 정착시키는 것이 믿음의 방향이고 그의 생애의 방향이다. 응답을 듣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징계하셨나? 하나님이 그를 경고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사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불이 내렸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2. 하나님의 사람 (왕하 1:13-18) - 오십명과 오십부장을 불사르는 엘리야의 마지막 경고로 아하시야는 50 명을 더 잃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복종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을 가져야 한다, 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일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6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와 경건을, 삶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며, 자신에 대하여 인내와 온유를 구하여야 한다고 했다. (딤후 6:11)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야 한다.

3.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 (왕하 2:1-14) - 장자의 몫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간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그는 영감의 가치를 알았다. 그는 엘리야 속에 남아있는 성령의 영감이 최상의 가치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눅 11:13) 둘째,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배울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끝까지 구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였다. 비록 그의 선생이 그를 따름을 멈추기를 요청해도 그는 결코 선생을 떠나지 않았다. 세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함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따를 때 임한다. 비록 그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했어도 그가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칠 때 갈라졌다. 갈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그 위에 임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한다. (엡 5:18)

4. **영감의 사람** (왕하 2:15-25) -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음으로 갑절의 사역을 수행했다. (15) 그는 무엇을 나타내었는가? 첫째, 기적이 일어났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리지게 한 사건은 믿음의 행동이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접근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막 16: 17-18) 둘째, 치료가 나타났다. 물로 인한 익지 않는 토산을 치료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21)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의 태양이 그에게 임하고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 4:2) 셋째, 영적 권위가 나타났다. (23-25)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조롱하는 아이들이 꿈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 영감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한다.

5.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왕하 3:1-12) - 본문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낸다. 그가 에돔과 싸울 때 선지자에게 물을 구함으로 광야 길에 물이 생겨 승리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 그는 온순한 태도를 가졌다.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지도 덤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질 때 임한다. (대하 17:9) 둘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을 구할 때 은혜를 받는다. 여호람과 대조된 여호사밧은 위기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구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 함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6. 하나님의 사역의 길 (왕하 3:13-27) - 모압을 이긴

이스라엘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간구를 통해 일하신다. 비록 그가 우상을 구할지라도 그가 엘리사를 찾고 그 앞에 길이 열리도록 선지자의 도움을 구했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하셨다. 어떤 사람이 비파를 칠 때 엘리사에게 영감이 임했다. (15)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도랑을 팠다. (16-20)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은 성령의 감동을 따른 것이다. 셋째, 하나님 자신이 일하셨다. (20-27) 하나님이 물을 보내시고 원수가 그 사실을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였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기를

구해야 한다.

7.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왕하 4:17-37) -

선지자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넬 여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본다. 첫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셨다. 불임여인이 아기를 낳고 죽은 아이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손이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초자연적 손길을 통하여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고난으로 훈련하셨다. 모든 작고 큰 일은 세상에서 참된 의미를 가진다. 수넬 여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실망된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겸손과 복종을 배워야 한다. (마 6:33)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8. 치료의 과정 (왕하 5:1-14) - 나아만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의 문둥병에서 놀라운 치료를 받았는가? 첫째, 작은 말씀을 주장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는 작은 한 여종의 권면을 복종함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그것은 어떤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복종의 과정 속에 어떤 유혹이 그에게 임했다. 그가 선지자의 무례한 태도와 어떤 약한 상태로 경멸을 당하였어도 그는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복종했다. 셋째, 그는 끝까지 복종했다. 그는 그의 계급장을 떼고 그의 옷을 벗고 물 속에 일곱번 들어갔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할 때 종들이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기적처럼 그런 일이 생겨났다. 복종은 기적보다 더 낫다.

9. **은혜관리의 법칙** (왕하 5:15-27) - 치료의 기적보다 은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쉽게 받은 은혜를 거절해야 한다. 나아만은 그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으나 엘리사는 그의 혼합된 믿음을 염려하여 그것을 거절했다. 둘째,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임으로 보화를 취하고자 하는 (22-24) 그의 탐욕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27)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외식과 탐욕을 조심해야만 한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침돌과 싸워야만 한다. 엘리사의 믿음을 따라야만 한다.

10. **영적 통찰력** (왕하 8:1-13) - 영적 지식을 가진 엘리사는 여러 문제를 영적 통찰로서 해결하는 점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따를 본이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만나? 첫째,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엘리사는 신학교 건물을 세우고 위기의 때에 그의 나라를 구했다. 중생한 사람은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다. 방언의 은사와 치료의 은사를 가짐이 없이 다른 특별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격적 은사를 가진다.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의 은사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사용받도록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는 교회의 통일을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전 12:1)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은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한다.

11. **하나님의 뜻을 세우자** (왕하 8:7-24) - 벤하닷이 병 때문에 하사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요람, 에돔 그리고 립나의 장래가 예언된 본문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첫째,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 립나 아람을 다스리시고 전쟁의 승패, 생사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등불의 중심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허락한 등불은 종말시대에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19, 요 4:35 -26)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사랑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 뜻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 (10-12)는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낸다. 크리스천 전체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세워야만 한다.

12. **주님의 방법** (왕하 8:25-9:10) - 본문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첫째, 하나님은 이것의 수고를 넘어 일하신다. 요람이 전쟁에서 해를 당하고 그의 나라가 혼란에 빠질 때 하나님 자신이 그의 뜻을 성취하시고 아하시야의 질병 때문에 방문하여 동맹을 맺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오직 그 만이 주 중 주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위한 영적 권위를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이 아합의 왕조를 명하시고 예후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 그 사실을 선지 생도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학생들이 예후에게 알려진 후 마침내 예후는 실행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기에 복종의 즐거움으로 응답해야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직접 수행했다.

13. **성령의 사람** (왕하 9:30-10:14) - 아합의 70 아들과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때에 우리는 두가지 교훈을 배운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신 사실이다. 우상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의 의중을 증명했다.(22) 하나님은 나봇의 불행한 죽음을 직접 갚으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 원리는 항상 세상에서 계속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예후가 받은 보상은 매우 불행했다.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죽임으로 얻은 극도의 심판의 응답은 그의 탐욕에서 나온 결과이다. 기적과 지혜로 기울어지는 것은 탐욕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기울어지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 신실한 행동을 가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II. 엘리사의 사역

1. **예후 개혁의 실제** (왕하 10:15-36) - 예후가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참된 개혁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여호나답이 거짓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사건은 참 지식을 따른 열정이 아니었다. 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름에 달려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참된 개혁과 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항복하는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 예후의 개혁은 하나님 경외신앙을 빼버린 열정에 의해 실패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보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힘 쓴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2. 여호야다의 개혁 (왕하 11:1-12:3) -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일에 사용하신 두 가지 기능을 배울 수 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그 가운데 아달라가 왕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여호야다를 통해 피신시켰다. 우리가 곤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번성의 길이 열린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둘째 그들은 언약을 회복해야만 한다. (17) 그 상황에서 잘 견딘 여호야다는 언약을 갱신시키고 (17) 모든 우상 제단을 파괴하고 아달라를 죽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런 일은 언약으로 성취되었다. 엘리야가 12 돌을 세움으로 언약을 회복할 때 참된 개혁,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평강이 따르게 되었다.(20) 자신을 헌신함으로 참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3. 요시야가 주는 교훈 (왕하 12:4-21) - 혼란의 때에 유다의 왕으로서 보좌에 오른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는 개혁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개혁은 예배의 갱신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야다에 의해 수행된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참된 예배로

시작되기 때문에 성소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격적인 제사제물들과 (4-8) 그것을 자원적인 제물로 수리 했다. (9-11) 둘째, 거룩한 재료를 분별하는 개혁이었다. 거룩한 재료를 줌으로 먼저 성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13-14)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로 은을 예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약한 믿음을 가진 그는 하사엘의 공격을 받을 때 성물을 드림으로 타협책을 구했으며 그는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고 신실한 종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요 4:24)

4. 정직한 삶 (왕하 13:1-13) -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삶에 의존하는 것을 보인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하나님이 정직의 표준임을 배운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다. (2) 북왕국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아람의 손으로 훈련시키셨다. (2) 정직은 하나님 안에 있다. 둘째 어떻게 우리는 정직할 수 있나? 여호아하스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부으셨다. (4-5) 정직은 매일 주님에게 나아가는 열매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한다. 단번에 하나님을 구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불드신다. 16년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요아스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데 실패했다.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세움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한다.

5. 신실하신 하나님 (왕하 13:14-25) -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계시하시나? 첫째, 그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하신다. (16-17) 화살을 공중에 쏘는 왕의 행동은 아람에서 나온 구원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약속한 바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다. 죽은 몸이 그의 뼈에 닿자 살아난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영원히 증거하심을 보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를 자기 영광 속에 참여하도록 만드셨다. 요아스가 세번 땅을 친 것은 3번의 승리를 보장한 것이다. (1825)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것이다. 마치 예수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고 그의 겹옷을 제하라고 한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시키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사용해야 한다.

6. 정의는 살아있다 (왕하 14:17-29) - 날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충분히 성취하시려 하심을 본문이 보인다. 그것은 아마샤와 여로보암 통치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중심의 삶의 혼란가운데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첫째, 아사는 에돔을 점령하나 그의 교만 때문에 도망다니다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참된 정복자는 교만을 던지고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둘째, 여로보암 2 세는 이스라엘 속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으나 정직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보내고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회복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다. 영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겸손의 길을 배워야 한다. 역시 우리는 우리의 풍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7.하나님의 집중하심 (왕하 15:23-38) -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신의 통치를 나타 내셨고 브가라, 베가, 호세아 그리고 요담의 왕조 속에 3 가지 일을 행하셨다. 첫째, 그는 악행을 보셨다. 항상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 집중했다. (28)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참된 소망은 시작된다. 둘째, 그는 정직에 집중했다. 34 절에 요담의 정직은 그의 아버지 웃시야가 징계받은 열매이다. 여호와와의 성소를 세운 요담은 끝까지 정직하지 못했다.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을 말한다. 말씀 중심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귀하다. 셋째, 하나님은 시간을 집중하셨다. 마치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노스의 시대의 부흥과 안디옥 교회의 부흥처럼 정한 때에 그것을 성취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악한 날에 시간을 아껴야한다.

8.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왕하 17:24-41) 종교의 혼합주의는 사탄이 항상 공격하는 타깃이다. 첫째, 산당과 우상이 만들어졌고 앗시리아 왕은 각 나라가 체제 유지를 위하여 식민지 정책으로 종교적 믿음을 지키도록 명했다. (29-33) 그는 모든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와 믿음을 바꾸었음을 허용했다.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고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고 영적 어두움으로 떨어진 후에도 계속되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다. (35-37)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때 다음 스텝이 잘못된 것 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오기 전일지라도 소망이 없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 날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구해야 한다. 혼합주의라는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9. **원수를 극복하는 길** (왕하 18:17-37) -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아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을 의존했다. 젊은 개혁자로서 그가 앗수르에게 보화를 주어 타협책을 썼으나 마침내 실패하고 만다. 앗수르 왕은 랍사게의 유혹으로 인하여 항복 문서를 받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조롱했다. 히스기야가 매우 약하였다 할지라도 그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받아들이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 공홀이 많으신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 아래서 구하셨다. 둘째, 그는 그 기구를 제시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는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

님께 직접가지고 나가 퍼놓고 간구했다. 참된 구도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의 기구건을 정직하게 나타낸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한 것 같은 기도를 배워야한다.

10. **히스기야의 개혁** (왕하 18:1-16) - 25 세이었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으로 어떤 개혁을 이루었는가? 우상을 부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개혁과 부흥의 시작이다. 셋째,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따른다. (12) 참된 번성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때에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9-11) 당대 교회가 개혁의 원리를 따를 때 교회 번성의 은혜를 즐길 수 있다.

11. **기도의 능력** (왕하 19:20-37) -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이 그의 울음을 보셨다. 랍사게의 조롱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셨다 (20)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 (전 5:1-2)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보다 하나님 중심적 마음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기도는 그에게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절대 보호의 약속에 따라서 앗수르가 초자연적 능력으로 망하는 증거를 보이셨다. (35) 역시 그 구원은

구속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31) 환난 중에 하나님께 참기도를 드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한다.

12. **신실한 기도** (왕하 20:1-11) - 히스기야 생애에 초자연적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첫째, 섭리적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다. 모든 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가의 개혁과 앗수르의 침력이 큰 일이었지만 개인적 질고는 더욱 큰 이슈였다. 우리가 현재의 이슈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둘째,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일의 해결자이심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결심했고 과거의 선행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기억하면서 그의 전 생애 속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했다.(3) 그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환난날에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

13.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왕하 20:12-21) -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본문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첫째, 그는 칭찬을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12) 그가 자기 피부병을 치료받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때 그는 보물창고 를 열어 자신의 교만을 들어냈다. 모든 죄가 자기 자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눅 6:26) 둘째, 그는 화를 불러왔다. 16-20 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신앙을 잃었다고 한다. 그의 때에는 평화와 안정을 계속 즐겼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에게 혹독한 벌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믿음과 은혜로 훈련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리스도안에 은혜를 관리하자.

14. **므낫세의 죄** (왕하 21:1-26) - 므낫세는 자기 부친 히스기야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금하고 본래의 우상숭배로 돌아갔다. 첫째, 그는 아합의 우상숭배를 따랐다. 그는 아버지의 장점을 따르지 않았고 아합의 죄로 돌아갔다. 기업을 관리함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평화로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저주로 떨어짐이 우리에게 올것이다. 둘째, 그는 신명기 법전을 파괴했다. 그는 종교적 호화주의에 떨어졌고 그의 건전한 믿음의 모든 기준과 표준을 경멸했다. (10-11) 불경건이 불경건을 낳기 때문에 육의 지도력은 극도의 부패로 떨어졌다. (16) 평화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

15. **자상한 개혁** (왕하 23:1-20) - 역사의 굴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개혁을 이루셨는가? 첫째, 그는 모든 우상과 제단을 파괴하였다. 거기에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12 별자리 몰록, 해, 아스다롯(시돈), 그모스(모압) 닐곰(아몬) 그리고 산당들과 남창이 있다. 주님을 떠나려는 모든 유혹이 제거되었다. 둘째, 그는 제단을 새웠다. 참된 개혁은 성소를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았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칠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참부흥이 일어났다.

16. 죄와 싸우자 (왕하 23:31-24:7) - 죄란 하나님의 뜻이 과녁의 중심에서 빗나가거나 짧거나 넘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요시야 후의 엘리야김과 요시아의 통치는 죄의 실상을 보여준다. 첫째,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을 때 그것은 요시아의 개혁을 철폐했고 애굽과 바벨론의 침략을 받드는 자리로 떨어졌다. (1-4 32) 죄란 두려운 것이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싸우는가? 보이는 우상을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속에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육적 부패성을 주의해야한다. 매일 같이 나는 죽노라는 바울의 신앙을 따르는 자가 모든 일에 은혜를 누린다. 우리가 육, 세상 그리고 사탄과 싸울 때 승리자가 된다. 그 길을 가야한다. (록 9:23)

17. 시드기야의 비극 (왕하 24:8-25:7) - 본문에서 유다의

과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의 중요성을 배운다. 첫째, 불복종의 결과 -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눈을 뽑혔고 바벨론에 의해 잡혀갔다. (19)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는다. (요 1:7) 우리는 불복종으로 돌아감으로 시드기야의 비극에서 또 나와야 한다. 둘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한다. 1 절은 선언하기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름으로서 보이는 일을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그의 말씀에 위탁할 때 (행 20:23) 마침내 우리는 내가 달려야만 하는 그 길을 잘 마치게 될 것이다. (딤후 4:7)

18. 죄의 결과 (왕하 25:8-30) - 하나님은 성전과 궁정이 불에 타고 성소의 도구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도둑을 맞을 때의 혼란 상태를 허락하셨다. 이런 상태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는 두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불복종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운 혼란 속에 포로가 되었다. (12,21-25) 이스마엘이 그달라를 죽인 혼란이 일으킨 불복종은 혼란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심을 본다. 여호야긴 왕은 그의 나라를 잃고 37년 후에 왕으로 대접을 받았다. (27-28) 새싹이 돌아나는 것럼 하나님의 손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지키기 위하여 친히 일하셨다. 우리 세상이 혼란과 공허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결론: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 형상회복의 역사는 아무리 어두움의 세력이 활동해도 성령이 그 속에서 지혜롭게 일하심을 보았다. 스가랴가 본대로 깊은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나무 속에서 계신 붉은 말탄 자의 이상처럼 구속의 핵인 하나님 형상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였다.

6. 역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야베스의 기도 (대상 4:8-10)는 크리스찬 세계에 아주 흥미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미국 시카코의 한 목사인 월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작은 책을 하나 발행했다. 그 내용은 실용주의 번영신학 그리고 물질주의로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외적 요소와 현실 지향적인 생각 즉 적극적 사고와 가능성적 사고 등을 추구함을 강조한다. 그는 그의 기도를 병고치고, 돈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등에 적용했다. 야베스가 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고

번성하게 되고 놀라운 건강과 큰 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 건강, 존경받는 명예 그리고 최상의 관계를 가르치는가? 야베스는 그의 생애에 실용주의를 추구했는가? 아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아굴 기도(잠 30:7-8)와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다.

근본적으로 “고통”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는 역대하 4:9-10 절에 나타난다. 특히 역대상은 사울의 왕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즉,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르호보암의 역사까지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저자는 4 장에서 야베스의 프로필을 기록하고 다윗의 초기 왕정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10 절은 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에 특별한 사건으로 마쳐진다.

1. 야베스는 누구인가? (8-9) 구약성경 주석가 카일 (Keil) 대상 4:8 에 “고스는 아눗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증족들을 낳았으며 “ 라고 하기때문에 (2:55)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는 존귀한 어머니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애에 많은 고난이 일어났던 것처럼 보인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의 생애에 일시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 같다. 잠 3:8-9 은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만성적 고통, 질병, 가난의 반복된 싸움에 의해 실망한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종류의 고초를 드러낸다. 그 때 우리는 곤고의 사람이었던 야베스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한다. 비록 그가 불행하였어도 그의 생애는 좋은 조건의 삶과 비교할 때 매우 달랐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 풍부나 빈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는 그의 생애를 목상할 때 우리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최악의 상태로 오셨기 때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최악의 상태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한다.

둘째, 무엇이 존귀한 자의 복인가? -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세가지 제목을 발견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 “.

첫째 제목은 그의 지경을 확장케 해달라는 기도이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 그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구했다. 요셉이 담을 넘는 넝쿨같이 큰 영토를 받은 것처럼 야베스는 그런 확장을 원했다. 그는 성공과 번성된 영역을 원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것을 포함한다. 아브라함이 풍성한 영토를 가져다면 다윗은 왕권을 가졌고 솔로몬은 놀라운 풍부 (지혜, 물질)을 가졌다. 비록 바울이 풍성한 부와 건강은 그의 생애에 소유하지 못했어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지혜, 기술, 돈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의 부름, 우리 나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마을 복음화에 적용하기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 구해야 한다. 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빌 2:12-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그대의 꿈은 무엇인가? 그대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대의 사역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비전 없이 그대는 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비전과 영을 점검해야 한다. 그대가
캄보디아를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경건의 본됨과
캄보디아의 종교다원주의를 깨뜨리는 전도 방법을 연구하기를
권한다.

두번째 제목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의 건짐받는 복을 구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그의 건강,
재정적 이슈, 관계의 이슈 그리고 자녀의 이슈 등 어떤 고통을 만났다.
그는 “고통으로부터의 건짐받기를“ 구했다. 약 1:5-6 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라고 했다.

만일 우리가 현재의 해됨, 현재 부족한 지혜가 있다면
야베스처럼 주님께 구할 수 있다. 2년전에 나는 개인적인 일로
고통의 날을 당했으나 분명히 지금 나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셨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그의 정한 때에
주셨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현재 생활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세번째 기도 제목은 그의 영혼에 평강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됨을 구해야 한다. 요삼 1:2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한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영혼이 잘됨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말한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된다. (엡 5:18) “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 그것이 우리 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나 어떤 장소이든지 엘리사가 구약시대에 그리한 것처럼 갈모를 가져야 한다.

왕하 2 장에 의하면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의 고통의 날에 온전한 교훈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한 그의 열정과 인내를 보라 “무엇을 원하느냐?” 고할 때 그는 “ 내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기 위해 세가지 이유를 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환난 날에 온전한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성령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은총을 통한 건강을 구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상태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의, 인,신을 아름답게 나타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말한다.

셋째,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 성령이 그 결과를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바를 허락하셨다.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문화의 사람, 건강한 사람, 물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기도의 세계를 잘 알았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기를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 안에서 누리는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였다. 그는 벤엘의 야곱 기도의 본을 따랐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응답으로 받았을 때 야베스는 놀라운 은혜와 번성, 육체적 건강 그리고 영혼이 잘됨을 복으로 받았다. 이것이 성령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I. 족보 (1:-9:)

1. 세상을 다스리는 분 (대상 1:1-54) - 역대상 1:-9: 은 족보를

말하고 있고 10 장은 사울부터 다윗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을 나타낸다. 첫째, 그것은 역사를 인도함으로 나타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일반은총 속에서 일하셨는가? 그것은 세속 민족가운데 자라남을 나타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분별이 선한 씨앗과 나쁜 씨앗 간의 기준으로 분명히 나타났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났다. 겨자씨가 점차적으로 자라나 온 세상을 의와 평강으로 덮게 될 것이다. (사 9:6)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에 먼저 그것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오고있는 그 나라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마 6:33)

2. 구속을 적용하는 생활 (대상 2:1-17) - 1-17 절이 나타내는 유다의 족보를 보인 독특한 기록은 메시아가 그 족보를 통해 세상에 오시기 때문이다. 그 기록이 어찌서 구속을 나타내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유다의 첫 아들 열에 대한 죽이시는 심판을 나타내심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신다. 구속에 대한 구분된 마음과 태도의 행위는 성령의 길을 막는 거침돌이다. 둘째, 유다 자손을 퍼뜨림은 구속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4)우리는 구속의 역사가 다말 자손을 퍼뜨림으로 인류의 장점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본다.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가 불결 상태에 떨어진 신분이었다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따라 살 때 그들은 구속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따라 살아가자.

3. 믿음의 후손 (대상 2:18-55) - 족보로 부터 우리가 무슨 특징을 배우는가? 첫째, 수산의 믿음 (34) - 헤스론의 첫 아들, 예라므올의 후손인 수산은 외동딸만을 가졌기에 가족의 계대를 위하여 애굽의 종에게 그를 아내로 주었다. 믿음의 가족은 남자의 혈통, 가족의 명예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복음이 가족 족보와 명예에 좌우된다면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한 일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주된 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레갑의 믿음(55)-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사용받았으나 두 첩을 가졌다. 그 족보에서 믿음 좋은 레갑이란 사람이 나온다. 그는 그의 생애에 포도원 농장이나 집을 가지지 않았고 성막에 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렘 35:5-11)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신앙을 가진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서 은혜와 진리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

4. 다윗의 후손 (대상 3:1-24) -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장점과 상관없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을 발견한다. 첫째, 다윗은 매우 유명하나 그의 가족 생애는 복잡하다. 하나님은 그가 간음과 살인으로 떨어졌어도 구속의 은혜를 나타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는 신약의 놀라운 사명을 보았고 복음 안의 실체를 즐겼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사함의 은혜를

가진다. (롬 4:7-8) 둘째,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이나 그의 결혼생활에 실패했고 그의 나라를 우상숭배로 채워지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지혜를 구함으로 그의 필요는 주님께 대한 기이한 신앙을 가진 것이 증명된다. 이것은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신약의 복음 시대를 생각해 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의 타협함이 없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5. 야베스의 기도 (대상 4:1-23) - 야베스는 기도의 귀한 본으로 나타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 그는 기도의 어떤 특징을 보였나? 첫째, 그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다. 비록 그가 고통가운데 출생하였어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공동체의 하나님이며 여호와가 인격적 하나님이고 그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 자신이 그의 요청을 들으셨다. (9-10) 둘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렸다. 그는 그의 지경을 확장시켜 달라고 했고 그가 당한 고통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아뢰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켰다. (히 11:6) 셋째, 그는 자기 생애에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성공했기에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풍성하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6. 시므온의 족보 (대상 4:24-43) - 렘 17:5-8 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긴 과일 나무처럼 풍성한 번성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의 자손을 흘리는 것은 그가 세겜 도사에서 레위와 함께 범한 잔인한 죄로 인해 그의 후손이 고난을 당한다. 창 49:6-7 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정착지를 찾고 함축속을 몰아내기까지 방황할 것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그들은 유다의 기업을 받았으나 그들은그들 지파에 독특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자기를 의존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갖지 못했다. 아말렉을 점령했다 할 지라도 그들은 영적 승리를 잃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정복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7. 장자의 기업 (대상 5:1-17) - 율법은 족보를 강조한다. 그

시대에는 첫아들이 갑절의 기업을 받았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첫 아들의 권리를 빼앗겼다. 우리의 매일 삶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사람은 복되다. 그가 홀로 있을 때의 은밀한 활동은 그의 성공적 생애의 특징을 좌우한다. 둘째, 그는 그의 권위와 성결을 빼앗겼다. 그의 권위가 요셉지파로 옮기워졌다. 요셉은 첫 아들의 기업을 받은 강한 지파가 되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 위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갈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복음의 일군으로 살아야 한다.

8. 신실한 믿음의 생활 (대상 5:18-26) -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찬양하지만 영적 간음자는 심판하신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첫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난관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20) 그 때 하나님은 원수들을 이기도록 이끄셨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였고 악으로 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였다. (칼빈) 둘째,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승리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 없으나 점차적으로 은혜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일시 적으로 사용되나 버림받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 용하시도록 신실해야 만 한다.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로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

9. 예배 중심한 생활 (대상 6:1-48) - 본문은 레위 지파의 예배 중심적 삶을 강조한다. 레위 지파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배이다. 계시록 4-5 장의 24 장로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예배한 것같이 참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까? 첫째, 우리는 성령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성령안” 이란 것은 성령의 역사 안의 예배를 가리킨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둘째, 우리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말씀해석과 말씀 적용이 중심이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을 찬양함으로서 감사와 찬양 속에 예배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표현으로 그를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겸손히 적용함으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만 한다.

10. 책임의 생활 (대상 6:49-81) -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한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피난처 안에 산다. 여기서 그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레위지파가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온갖 제물을 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를 보호하고 일반 백성들이 집과 밭과 그들의 삶을 돌보는데 성공적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보호해야만 한다.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에 자신을 헌신하고 평신도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본다. 일하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않음 같이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의 필요가 그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기까지 수고해야만 한다.

11. 기업의 꿈을 그려라 (대상 7:20-40) - 여섯 지파가 기업을 점령하고 분배함이 마쳐지고 남은 지파는 제비 뽑는 방법을 따랐다. 구원의 은혜(므나)는 일반적이거나 달란트(은사)의 은혜는 성경이

다른 보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기업을 즐길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기업의 욕망을 가져야 한다. 여섯 지파의 꿈과 갈렙의 꿈은 기업이였다. 위에서 오는 능력과 재능은 영적 법칙을 살아간 사람에게 속 한다. 둘째, 우리는 기업을 그려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섯지파에게 기업의 계획을 그려보라고 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진 기업을 알 때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갈망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실로 앞에서 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복종의 중요성 (대상 8:1-40) - 베냐민 지파의 장래는
 라헬의 죽음과 관계된다. 그녀가 베냐민을 낳을 때 죽게된 라헬의 슬픈 사연은 그들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장대하나 많은 재능을 가졌으나 영적 노선을 이탈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징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 사울이 그 지파에서 나왔어도 그들은 작은 지파로 떨어졌다. 본문에서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사울의 겸손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은혜의 그릇이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첫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둘째, 한번의 불복종이 그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그는 명예와 탐욕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종해야 한다.

II. 통일 왕국 (대상 10:- 대하 29:30)

1. **성령이 성취하는 나라 (대상 12:23-40)** - 본문은 사울의 왕정이 다윗의 왕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넘어갔는가를 말한다. 첫째, 모든 지파가 한모로 연결되었다. (3) 유다 족속이 중심이 된 모든 지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고 그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다. 둘째, 그는 다윗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겼다. 38) 성령이 남은 사람들을 한 마음이 되게 했다. 세째,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40) 성령이 준비된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유아기 때, 성령은 사랑과 진리로 자신의 일을 하셨다. 성령은 항상 연합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항상 일하신다. (엡 4:1-3 행 2:42-27)

2. **법궤 중심한 생활 (대상 13:1-14)** -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속에 언약궤를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2,6)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보이지 않는 왕만이 헤브론에 법궤를 옮기려고 했음을 다윗은 믿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 기쁨의 원천 중 원천이다. (8) 그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한 사실은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한다. 세째, 그것은

이스라엘의 복의 원천이다. 법궤를 옮기는 거정에서 웃상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경외를 회복하는 복이심을 나타냈다. 말씀 중심한 생활이 참 복이다. 충분히 복을 즐겨야한다.

3. 다윗의 주권믿음 (대상 14:1-17) - 사울과 달리 다윗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집중 했다. 그의 주권 신앙은 어떻게 나타났나? 첫째, 그는 하나님이 동료들의 신실함이나 지혜가 아닌 왕권을 그에게 주셨다. (2) 둘째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복종했다.(10,14) 그리고 어릴 때처럼 전쟁 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주장했다. 그가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랐다. 세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권위를 옮기셨다. (17) 역시 그는 세상의 명예와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임을 인정 했다. 우리는 다윗이 한대로 주권의 믿음을 가져야한다. (창 12:3)

4. 말씀 중심한 생활 (대상 15:1-15) - 다윗은 자기 궁정을 세우고 그것을 돌볼 제사장 들을 임명하고 말씀 중심한 삶을 나타내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기초임을 나타 내기 위해 궁정 중앙에 두었다(1) 다 윗 왕국의 기초는 성경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말씀에서 벗 어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둘째, 레위 제사 장의 어깨 위에 짊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2) 어느날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 에 메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운반함으로 옷사가 징계를 받았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기록을 범했기 때문이다. (12) 말씀의 중심은 기록으로 가까이 나아가야한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기록이다. (요 17: 17) 우리는 말씀을 중심화하는 복을 즐거워해야한다

5. 말씀과 찬양 (대상 15:6-16:6) - 그들이 법례를 운반할 때 합창대는 그들 마음의 감동과 감사의 표현이다. 이것은 성령충만한 생활이고 감사를 보인 것이다.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가? 첫째, 찬양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 (4)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성령이 그들의 눈을 떠 진리를 보게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엡 5:18-19) 둘째, 감사가 일어났다. (1,4)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보는 열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 (엡 1:3)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다. 세째, 번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1) 이웃을 축복한 것은 그들의 번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백성과 자기 가족에게 복을 빈 것은 그의 풍성한 복을 누림을 증명한다. 그러나 미같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조롱했다. (29)

6. 하나님 중심한 생활 (대상 16:7-36) -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속자, 섭리주 그리고 성자 가 나타난 본문 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그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 첫째, 우리는 그의 얼굴을 구함 으로 그에게 감사해야한다. (11)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기위하여 하나님을 보아야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의 언약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한다. (16-1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따라 부자관계, 군신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 성실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이다. 세째, 우리는 헌신함 으로 그에게 감사해야한다. (29) 우리는 주께 항복하고 헌신함으로 감사해야할 자들이다.

7. 영원한 찬양(대상 16:37-43) - 본문은 법례를 들여오는 것을 마치고 계속적 관리를 함으로서 참 예배 의 본을 나타낸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섬기기 위하여 (41) 하나님은 주님을 질서있게 찬양할 사람들, 헤만과 여두둔을 선택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법을 지키도록 가르 치셨다. (40)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접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세째, 우리는 자기 가족을 축복한 다윗의 본을 배워야 한다. (43)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집에 돌아온 가족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조직적이고 질서있게 따라야할 일이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윗의 본을 따라야한다.

8. 영원한 왕국 (대상 17:1-15) - 하나님 중심한 믿음은 고난의 날이든 번성의 날이든 바꾸어지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나? 첫째, 그가 여호와께 헌신할 때 그 자신을 주셨다. (16)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바울의 확신은 정말 귀하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의의 하나님 이시다. 둘째, 그는 주님이 자신을 진토 곧 불행한 상태에서 건지심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7-8)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원수를 꺾고 주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확신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킨다. (12-14) 그 집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영원한 집이다. 비록 다윗의 가족이 세상에 특별해도 교회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집 안에 신실하게 거해야 한다.

9. 다윗의 확신 (대상 17:16-27) - 아브라함의 기쁨은 다윗의 것이고 아부라함의 확신은 다윗의 확신이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쁨을 표현했는가? 첫째, 그는 모든 일이 은혜로 성취됨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놓은 곳에 두시고 이스라엘 안에 목자가 되게하셨다.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둘째, 그는 영원한 나라 안에 모든 것을 기뻐했다. 24 절에 힘있는 나라는 그리스도가

가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세째,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자가 복된다. 그리스도 인은 영원을 모시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다. 교회의 문제는 성령으로 치료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의식을 가져야한다.

10. **다윗의 승리 (대상 18:1-17)** - 우리는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리킴을 이해해야한다. 본문은 영적 승리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째, 모든 승리가 다윗에게 속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긴다. 둘째, 그는 왕국을 공의와 정의, 긍휼과 자비로서 세웠다. 크라스찬이 싸우는 목적은 그 나라를 이런 것으로 세우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나라이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의인임을 인정하고 그들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인신을 나타냈다. (마 23:23)

11. **은혜의 통로 (대상 19:1-5)** -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첫째, 그 기준-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받은 한쪽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언약의 첫 표식이다. (창 12:1-2) 이 약속은 다윗의 시대에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속에 분명히 나타났다. (마 28:19 -20)
복음을 선포한 후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즐겼다. (갈 3:14) 둘째,
그 성취 - 마태가 선포 한 메세지의 목적은 임마누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다. 성령은 이사야의 예언 처럼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
야한다.

12. 절대 승리 (대상 19:16-20:8) - 아람은 암몬을 돕기 위하여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으나 불레셋은 그들의 교만으로
망했다.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첫째,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이다.
아람은 적그리스 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리킨다. 주님의 모든
원수는 확실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웃을 자각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함 으로서 된다. 교회는 그 나라의 열쇠를
가진 다. 이것이 복음이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해도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열쇠 를 사용함으로 승리를
기뻐해야한다. 어려운 날에 참된 가족의 회복은 복음을 사 용함으로
새로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13. 회개를 통한 기적 (대상 21:1-17) - 정상적인 군대를
계수하여 정착의 기반을 확고 히 하려는 인구조 사는 속죄금을 거두기
보다 하나님 왕권에 대한 도전을 가져왔다. 이런 일로 7 만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가? 첫째, 그는 마음의 동기를 관찰했다. (6) 비록 그곳이 현실적으로 정사적인 인구조사라 할지라도 교만을 가져왔다. 사탄의 자극(1)과 요압의 충고(6)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욕은 그의 일을 의도적이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외적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를 바로 가짐으로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둘째로 그는 회개를 사랑했다. (7)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가운데서 다윗은 회개했다. 비록 그가 자기 죄를 즉각 회개함으로 큰 상처를 가졌어도 하나님은 즉각 치료하셨다. 그의 은혜는 매우 놀라우시다. 우리가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요일 1:9)

14. 제사장으로 사는 신자 (대상 23:1-23) - 법례 중심한 삶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특별히 다루셨다. (1-3) 여기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 무엇을 배우나? 첫째, 그는 주님을 찬송해야만 한다. (5) 다윗이 4000 명의 노래하는 자를 임명함은 찬양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복음을 받은 사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벧전 2:9) 둘째, 그는 거룩 속에 살아야만 한다. (13) “영원히 거룩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거룩을 유지해야만 한다. 거룩이란 그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소유의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다.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15. 예배에 관한 교훈 (대상 24:1-31) - 본문은 그들의 나이가 25 세 그리고 20 세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 하고 아론 가족만이 제사를 섬길 수 있음 보임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리 킨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첫째, 예배가 생사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1-2) 술취함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 나님께 제사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언약백성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침이다. 우리는 외식된 방법에 유혹을 받지 안기 위하여 성령과 진리안에서 예배해야한다. (5) 하나님은 여러가지 단계의 예배를 원치 않으 시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 열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이지만 공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한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차적인 생활이기 때문이다. 세째 그들은 진리를 따라야만하기 때문 이다. (3)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흘림은 열납하는 예배의 중심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의 상징주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히 4:16)

16. 영적 노래를 섬김 (대상 25:1-31) - 다윗이 영적인 사람들, 아삽 후손들, 헤만, 여두둔 을 임명하고 찬 양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 첫째, 성령충만에서 나온 노래이다. (3)

영가는 성령이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이어야 한다. (엡 5:18-2) 성령충만은 말씀풍성이다 성경을 부지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종한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게된다. 둘째, 하나님에게 속한 헌신의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6) 각 가족은 그들의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드렸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연 악기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인간 예찬으로 채워진 이 세상에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계 4:10)

17. 성전 문지기 (대상 26:1-19) - 시인이 다른 곳에서

백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한날이 더욱 좋다고 할 때 (5)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일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한다. (5) 오벧에돔의 자손은 성전지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첫째, 참 복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 드림은 참된 복이다. (대하 13:14) 3 개월 동안 법궤를 섬겼던 오벧에돔은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도구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만일 성전지기가 타락하면 교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된다. 둘째, 참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오벧에돔의 활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복을 그와 그의 자녀에게 부여주 셧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성전문지기 처럼 겸손과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한다. 우리는 모루드개가 문지기 로서 섬길것처럼 존귀한 은혜를 받아야만한다. (에스더 3:3-4)

18. 창고지기 (대상 26:20-32) - 본문에서 우리는 두가지를 배운다. 첫째, 우리의 주인이 고 우리의 주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창지기로 부러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골방을 거룩하게 돌보는 선한 창지기로 살아야한다. 둘째, 하나님은 왕과 선지자에 의해 교회의 원리를 따르기 위하여 어떤 제물을 드림으로 본을 나타내고 싶어하신다. (26-28) 사도 바울의 경건한 본은 교회의 기초이다. 디모데에게 경건의 본을 보임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건의 본을 명했다. 이 요구는 오늘날도 중요하다. 엘리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골방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과 겸손으로 창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한다.

19. 거룩의 그릇 (대상 28:1-21) - 아무도 거룩과 화평이 없이 주를 볼 수 없는 진리 (히 12:14) 는 다윗시 대에도 같은 진리이다. 첫째, 다윗은 무엇을 원했나?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감사 때문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정된 장소 곧,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우리는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갈구해야 한다. (빌 2:3)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일하신다. 둘째, 그는 거룩을 잃었기 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 보다 거룩과 평화를 열심히 세우고자 하셨다. 비록 우리가 성전세우는데 헌신했어도 그가 거룩을

없다면 그의 일은 의미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요 4:24) 성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그의 임재로 충만해야한다.

20. 성소를 갈망하는 마음 (대상 29:1-19) - 다윗의 요청이

하나님에 의해 거절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고 (3)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했다. (10-19)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마음을 원하셨다. (3)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함은 하나님을 갈망함과 같다. 성소 자체의 갈망은 놀라운 복이다. (시 42:) 갈망의 영의 충만함은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사모 하고 유지하는 길이다. 둘째, 그는 영적 기쁨을 원한다. (6) 다윗과 군대 장수들은 기뻐하는 시로 응답하였고 (6) 기쁨이 흘러 넘쳐 (9) 하나님께 부지런히 제물을 드렸다. (14)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다. (17)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의 마음 위에 머물 고 은혜의 마음에 기쁨이 머문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수에 의해 핍박을 받았고 성령이 하늘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다. (행 16:28)

21.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대상 29:20-30) -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타내려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첫째, 그것은 예배의 나라이다. 20 절은 하나님에게 천번제를 드린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새 언약 백성이라 부른다. (롬 12:1-2)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참 자녀로 자라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세계는 참 예배의 세계가 될 것이다. 둘째, 그것은 번성의 세계이다. 솔로몬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를 번성케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항상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의 생애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수 1:8) 27 절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셨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사야의 영원한 나라와 다니엘의 영원한 나라를 다윗 속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신비스러운 일이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헌신해 야만 한다.

결론: 앞선 영광기서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해서 통일왕국의 독특성, 성전중심한 생활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준다. 다윗으로 완성된 통일왕국 곧, 신정의 그림자이지만 신약에 오실 참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주권주의, 평강, 의 그리고 보편주의를 (사 9:6) 여러면에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그 세계를 부정적인 요소인 왕조의 불의, 광포와 불신실함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었다.

7. 역대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딜라드(Raymond B. Dillard)는 “제롬은 옛 시대의 요약인 역사서는 이것 없이 성경 지식을 가지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게 된다.” 고 말한 바가 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가짐이 없이 역대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기에 성경의 모든 책을 떼어 놓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Saltman) 그의 구분에 역대하를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관점에서 1) 역대기의 솔로몬 (1:-9:) 2) 직접회복의 신학 (10:-36:) 으로 구분한다.

I. 역대기의 솔로몬 (1:-9:)

1. 불의 응답 (대하 7:1-22) - 성전건축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 하셨다. 불로 응답하는 곳에 두 가지 일이 생겼다. 첫째,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했다. 불의 응답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그 때 일제히 경배함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3)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경배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이한 치료가 일어난다.(14)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성품을 체험케 했다. 백성들의 사명은 선과

인자의 맛을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다.(3)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 때 하나님은 찬양 회복의 길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회복하셨다.(13- 14) 불 같은 성령을 갈망하여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눅 11:13)

2. 첫 사랑의 열심(대하 8:1-18) -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첫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였다. 첫째, 거룩을 좇는 열심이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한 솔로몬이 그를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법제가 있는 곳을 거룩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그 표준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변치 않았음을 알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한다. 둘째, 예배에 열심이였다. 이스라엘 중심이 예배에 있음을 확신한 솔로몬은 번제를 드릴 때 (12) 안식일, 월삭, 정한 절기를 철저히 지키며(13), 제사 장들의 반차를 정해 직분을 행하게 하고, 레위인으로 찬송과 제사를 돕게 하고 (14) 그리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지키게 했다. 예배 중심한 삶이 아름답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3. 솔로몬보다 나은 영광 (대하 9:1-12) -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듣고 방문하는 시바여왕과 히람 왕의 방문을 보인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신 그리스도가 이방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가리키는 예표였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 하시는 분이시다. 문제의 유일한 해답자이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전능자이시다. 둘째, 풍성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시바 여왕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보다 더 탁월하 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지혜 자체이시다. (마 13:42)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골 2:3) 셋째, 성 도의 헌신을 기뻐 하시는 분이시다. 예물을 받은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는 성도가 드리는 헌신의 예물을 기뻐하신다. 자신의 몸의 산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항상 기쁘시게 한다. (롬 12: 1-2)

4. 솔로몬이 받은 복(대하 9:13-31) - 본문은 성전건축 후

솔로몬이 받은 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받은 복을 알게 하며 누리는 방법을 알게 해 줍니다. 첫째, 그것은 언약의 복입니다. 창 1:27-28 절에 복은 솔로몬 때 또 다시 확인됩니다. 그는 재물이 넘쳤고 유브라테스에서 애굽까지 넓은 땅을 다스렸 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포함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보다 더 영화로운 복 곧 그 복의 실체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엡 1:3) 둘째, 지혜의 복입니다. 풍성한 영적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신자는 그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유복자입니다. (골 2:3) 셋째, 어떻게 누렸는가요?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그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 경외신앙을 떠날
 때 그 복은 저주로 바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노란 자위의 복인 복음을 나눠주는 꿈을 꾀시 다.

II. 직접회복의 신학 (10:-36 :)

1. 스스로 겸비하면 (대하 12:1-16) -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 하셨습니까? 첫째,
 르호보암의 교만은 하나님의 길을 막았습 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1) 스스로 강성케 함으 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함은 매우
 위험한처사였 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자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 기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과 사망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의 겸손함으로 난국을
 타개했습니다. 방백들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 겸비 한(6)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시삭의 공격 을 막게 했습니다.(9) 겸손한
 자에게 은혜주시는 주 님이십니다. 온갖 혼란 속에서도 겸손을 지킬
 때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의 근원,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나가야합니다. (딤후 6:3-4)

2. 이기는 방법 (대하 13:1-22) - 구속사의 한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첫째,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16) 40 만이 2 배나 많은 80 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깁니다. (18)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하시는 간단한 원리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다투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12)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면 이깁니다. (21)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시고 붙들 때 강해지고 반드시 이깁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합니다. 신자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 항상 승리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장합니다. (엡 6:10-18)

3.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대하 15:1-9) - 이스라엘이 여호와 경의보다 우상숭배에 처할 때 약해졌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사에게 성령이 임하여(1)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아사 왕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람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성령은 일하셨습니다. 아사랴와 아사의 순종을

통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의 아사의 경건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모든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신앙을 거역한 태후까지 꿰뚫어볼 정도로(16)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회와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힘쓸 때 거기서 진정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4. 끝까지 쓰임 받는 생애 (대하 16:1-14) - 개혁의 왕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다고 하지만 말년까지 쓰임받는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아사가 어찌서 타락했습니까? 승리 후의 자기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 자기 머리를 더 신뢰하였습니다.(3-4) 작은데서 부터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자만이 승리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수단을 더 의지했습니다.(12) 발명이 들었을 때 하나님보다 수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관리 실패의 요점입니다. 자연 혜택 곧, 일반은총의 도움을 받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앞 설 수는 없습니다. 일반은총 속에 숨겨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의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체 건강을 위한 온갖 수단들이 복음보다 앞서는 운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수단을 목적화하지

말고 제 자리에 돌려 놓아야합니다.

5. 하나님을 구하자 (대하 17:1-19) -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한 자에게 능력 주심이 여호사밧 생애 속에 보여졌습니다. (6) 어떻게 구했으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첫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마 6:33) 율법을 가르칠 교사들을 급파하여 율법을 가르치고(8-9) 산당을 헐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딤후 3:16-17) 그래서 성경 공부에 힘쓰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둘째, 그에게 네 가지 은혜가 따랐습니다. 1) 그의 속사람이 강해졌습니다.(1) 2) 원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1) 3)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14-15) 4) 그의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18:1) 노란 자위의 복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신자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해 성경의 세계로 달려갑시다.(계 1:3)

6. 미가야 선지가 그림다 (대하 18:12-27) - 하나님은 자기백성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사 시대에는 아사랴와 하나니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어두운 시대에 미가야를 세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합의 욕심에 끌려 여호사밧이 전쟁출전 여부를 구할 때

거짓 선지자 400 인은 승리하리라는 것이었으나 미가야 만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거스리는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23-27)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마 5:10-12)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미가야의 정조 있는 신앙이 그림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 하고 선택할 때 진정한 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7. 신실하신 하나님 (대하 23:1-15) - 아달라의 잔인한 행동으로 다윗 왕가에 큰 위기를 맞았다. 불의 한 그녀가 왕이 되려고 왕이 죽자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위급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두심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 신실하셨는가? 첫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사 용하셨다.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 요시야를 피신시킨 그는 훗날 개혁을 주도하였다. 위대한 역사 뒤에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 신실한 하나님이다. 둘째, 우연한 일처럼 보인 것에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신실하셨다. 구속 역사의 맥을 끊으려는 사탄의 장난이 성난 사자처럼 날뛰어도 하나님의 지혜의 신실성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탄생 직후에도 헤롯을 통해 같은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이 마지막 때 더 극심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길이 교회를 붙드신다.

8. 진정한 개혁 (대하 23:16-24:3)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숨은 일꾼을 많이 두셨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첫째, 언약의 갱신을 일으켰습니다.(3-5) 첫 언약을 회상하며 그 언약의 골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원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신자의 갱신, 교회의 부흥, 사회의 개혁은 모두 이 기본원리에서 나와야합니다. 둘째, 예배갱신을 일으켰습니다.(17) 산당을 훼파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군신관계의 언약은 공적 예배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예배가 병들면 언약이 피기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신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잘 배워 그대로 해야합니다. 셋째, 삶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18-20) 생활 속에 경외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만합니다. 골로새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선과 진실과 의로 충만하기를 원한 바울의 기도 역시 바로 이 갱신과 통합니다.(골 1:9-12) 여호야다의 3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에 주께 쓰임 받는 가정이 됩시다.

9.계시에 붙어있자 (대하 24:17-27) - 여호야다가 죽자 요시야는 몰려 온 유혹에 곧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17-18)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째, 바른 소리하는 스가랴를 죽였습니다.(20-22) 우상을 섬기는 요시야의 배은망덕하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회개를 촉구했으나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죄를 더 범했습니다. 계시를 떠난 마음은 이렇게 부패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 년 만에 아람의 적은 숫자가 수많은 유다 방백들과 군인들을 죽이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아스를 암살하는 엉뚱한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시에 대한 무지는 방법마저도 이렇게 악합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를 통해 계시에 붙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요아스와 방백들은 생명을 버리고 스스로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계시(성경)에 붙어있는 생활을 힘씁시다.

10. 온전한 마음 (대하 25:1-28) - 아마샤는 정직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그의 실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암살에 가담한 방백들을 다 죽였으나(13) 율법의 가르치는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기군대를 정비하고 많은 돈을 드려 십만의 용사를 고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증거이다. 그리고 한 선지자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7) 에돔과의 전쟁 승리 후 우상을 가져와 섬기는 것을 보면 일전한 기준이 없는 우유부단하였다. (14)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는

신앙 생활에 무서운 상태이다.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백성이 잡혀는 비극을 가져왔다.(20-24)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지속적인 승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릴 때 찾아온다. (롬 12:1-3) 영적 중간상태란 진리의 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해야 한다.

11. 정도를 걷는 인생 (대하 27:1-9) - 요담의 프로파일은 정도를 걷는 왕으로 나타났으나 백성들은 부패하였다. (1-2) 어떻게 정도를 걸어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한다. 사람이나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한다.(2) 부왕, 웃시야의 오랜 징계의 사건을 통해 배운 두려움이 끼친 영향처럼 보인다. 여호와경외 신앙의 다른 표현인 코람데오(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신앙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존전의식에 있다.

둘째, 점점 강성해 갔다.(6)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잠 3:5-6) 성전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등 외적으로도 강성한 증거를 보였다. (3-5) 무엇보다 순간적 기적보다 점진적 형통이 나타난 것이 귀하다.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나은 일은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 정도를 걸어가야한다.

12. 낮아질 때 (대하 28:1-15) - 아하스 왕의 일대기를 보인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준다. 아람과 앗수르, 블레셋 그리고 에돔을 크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낮추셨다. 낮아질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첫째,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 버려야한다.(3) 유다가 낮아진 근본원인은 우상숭배였다. 우상숭배는 탐욕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을 섬김으로 결국 어둠 속의 살게 된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무서운 현대 우상을 버려야한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한다. (8-15) 참된 회개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려 살려주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최대의 심판이면 최대의 긍휼의 표현인 십자가를 붙들면 소망이 생긴다. 셋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한다. 아하스의 불신앙이 자기 신뢰에 있다면 신자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에 있다. 낮아질 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가야 한다.

13. 언약갱신 (대하 29:1-36) - 히스기야 왕의 언약갱신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성전 청결로 나타났다.(15-16) 그는 아하스때 더럽혀진 성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결케 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성전이 정결케 되는 일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제사장들을 새롭게 했다. (20-24) 제사장들을 새롭게 했다. 제사의 성공의 관건중 하나가 제사 직무를 받은 제사장의 성결에 있다. 제사장은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보관하고 제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탐욕이 발동하기 쉬운 직책이다. 셋째,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28-30) 아삽을 세워 찬송하게 했고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바치게 했다.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찬미와 선행과 구제의 예배를 항상 드리게 했다. (히 13:15-16)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14. 부흥의 구체화 (대하 31:1-21) - 히스기야의 비준은 구체화 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형통의 길이 열렸다. 그 부흥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첫째, 예배 회복으로 나타났다(2-5)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갱신에 힘썼다. 진정한 부흥은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둘째, 헌신 회복으로 나타난다.(6-10) 그동안 우상에게 드린 예물을 중지하고 율법을 따라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게 했다. 전을 청결케 한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백성은 만족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헌물도 넘쳤다.(10)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후하게 바치는 생활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진정한 부흥은 돈주머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 삶의 회복으로 나타난다.(11-21) 모인 헌물 역시 그 목적대로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평등하게 분배했다. 제사장에 받는 특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형통하였다. (21)

15. 반드시 이긴다 (대하 32:1-23) -산헤립의 침략 위기에
 히스기야의 절대 여호와 신앙이 백성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영전에 관해 의식할 사실이 무엇인가? 첫째, 반드시 일어날
 싸움이다.(1-6)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는데도 산헤립의 침공이 일어났다. (1-2) 형통이들 불통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초마다 시험하여 연단하신다. 우리의 원수 악
 영은 언제나 기회만있으면 공격한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살아가야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적긴장을
 가져야만한다. 둘째, 반드시 이긴다.(7-8) 산헤립의 위협에
 히스기야는 물을 막고 성을 쌓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3-7)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아무리 득세해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셨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 용사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당면한 싸움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16. 계시에 귀를 기울이자 (대하 35:20-27) -개혁의 왕,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사건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 혁혁한 사적에 비해 그는 아쉬운 죽음을 맞는다.
 예레미야 선지와 예루살렘 백성은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두 가지를 배운운다.

하나는 주권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높이고 낮추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놓여있기 때문에 만물이 주께로 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바울의 주권주의 신앙을 배워야한다. 다른 하나는 불신자인 느고스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밝은 성경계시뿐 아니라 주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예민한 영적감각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한다.

17. 흔들리지 않는 왕권 (대하 36:1-10) - 그렇게 복잡다단했던 유다왕조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막을 내린다. 유다 말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여호와하스는 애굽에 잡혀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여호야긴은 짧은 통치를 하게 되며 시드기야는 망국의 왕이 된다. 인간의 왕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단 7:13-14)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 가정은 혼란한 세상에서 이미 이뤄진 하나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핵 문제니 질병 문제니 하는 위협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이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한다.

결론: 다윗 이후 계속되는 왕권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나라의 왕권을 보여주었다. 유대 왕국의 었치락 뒤치락하는
쟁찰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본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신실의 채바퀴 속에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을 발견한다. 이것은 부패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의인신을 빚어내기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C. 대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위대한 성지자 모세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 형상회복의 목적은
이스라엘 역사속 속에 그 때마다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그림계시와
설명계시를 통하여 그 실상을 모세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흐름에도 점진성을 가진다.

그래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계시는 옛언약의 불능을 새언약과
비교하며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된 새언약의 증거들을 신약의
성취의 계시 그대로를 미리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12
선지자들은 신약의 펼쳐질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미리 맛조고 그
영광속에 살았던 계시의 도구였다. 그래서 보스는 신약의 이사야는
바울이고 구약의 바울은 이사야라고 말한 바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곧 완성된 언약의 핵은 형태만 다를 뿐 이미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이래 자기 백성이 누릴 목적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하겠다.

우리는 5 대선지서와 12 소서지서를 통해 우리의 주제를 확인하려한다. 먼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살펴보자.

I.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하나님의 탄식(사 1:1-17) - 구약 복음기자로 일컫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상하게 보여준다. 초두부터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첫째, 배은망덕의 죄는 신지식과 관계된다는 사실이다.(2-4) 양육 받은 자식이 은혜를 잊고 거역한 짐승보다 못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 생긴 것이다. 문을 열어 놓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둘째, 외식의 죄는 기도 응답을 가로 막는다.(12) 그렇게 정성스러운 제물을 가져왔으나 경외신앙의 상실로 그들은 성전마당만을 밟는 외식에 떨어졌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진실 위주의 삶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추구하며 그와의 교제를 힘쓰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뱀독 같은 무정한 세상에서 진정 자유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치료책(사 1:18-31)** - 불 경건, 외식, 배은망덕이 경건과 진실과 감사생활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한다.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첫째,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 주홍같이 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양털처럼 정결케 된다. 아무리 막히고 도저히 치료될 수 없을지라도 주께 나오면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치료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요일 1:9) 둘째, 주와 교제함으로 치료된다. “와서 변론하자”는 말은 교제하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오라는 초청이다. 주님과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받는다.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서 그에게 부지런히 나갈 때 소망이 일어난다. 말라기 예언대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는 이 시대에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완전한 치료의 자리로 나가야한다.

3. **말일에 일어난 구원(사 2:1-22)** - 이사야서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예언되었다. 말일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구원은 (2-3)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높은 곳에 우뚝 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가리키며 만방이 거기로 몰려오며 온 땅을 진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복음의 가정교사인 율법이 거기서 나온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온 세상에 흠어진 자기 백성이 몰려 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둘째, 그 빛 안에서 사는 교회로 이루어진다. 5절에 여호와와의 빛 안에 거하는 교회는 주님만이 높아지고 우상이 철 폐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22) 성령충만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세계 중심인 미국도 여러 이유로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다. 이 놀라운 구원 속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해야한다.

4.말일의 징조(사 3:1-12) -유다의 심판 직전에 일어날 사건을 보인 본문은 복음 운동과 함께 일어날 어떤 징조를 보인다.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유다의 의뢰하는 것을 끊어 버린 신다고 했다. (1-3) 양식, 물, 선지자, 용사, 전사를 제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신다. 하나님 영광의 눈을 촉범할지라도(8)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으신다. 둘째, 지도력을 약하게 하신다. 아이와 적자가 지도자가 되거나(4) 아이가 학대하는 일은(12)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증거이다. 셋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믿음에 놓였다. 말일에는 복음의 빛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말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노선을 따라 겸손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한다.

5.심판의 조건(사 3:13-4:1) -심판징조인 우상숭배와 역리적 행동 외에 심판의 어떤 다른 조건을 볼 수 있는가? 첫째, 지도자의 탐욕 (13-15), 가난한 자를 짓밟고 불의로 치부하기를 좋아했다. 지도자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져 신령과 진리의 예배에 집중해야하지, 재물이나 명예를 따르지 말아야한다. 언제나 탐욕의

을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온 딸의 교만(16), 모든 윤리적 죄는 교만에서 나온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서 자연히 생긴다. 결국 아담의 자율 주의의 전철을 답습함으로서 중심 잃은 자동차처럼 엉뚱한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중심하여 겸손으로 충만한 삶 곧, 가난한 마음을 지키는 길 뿐이다.(마 5:3) 이 일을 인도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좇는 일에 힘써야한다.

5.정결케 하시는 분(사 4:2-6) - 이번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구원 핵심인 죄를 하나님이 친 히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였다. 첫째, 2 절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란 그리스도가 구원의 싹으로 오심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실 뿐 아니라 그의 공로로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그 완성을 은혜로 얻은 교회는 여호와의 싹이 돌아남으로 점점 아름다워진다. 내가 할 일은 그 안에 달라붙어 그리스도가 그 열 매를 나타내시도록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이다. 둘째, 4 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심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구속의 전주곡처럼 이사야 시대에 일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 많은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6.포도원의 노래(사 5:1-12) = 유다의 죄악과 그 참상을 포도원 관리로 비유한 이사야는 어떻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가? 첫째 비유의 초점,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포도나무가 들 포도를 맺힌 점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1-2) 최상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 스도를 통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합니다. 둘째 비유 해석, 3 절 에 보인대로 하나님과 예루살렘 간에 일연의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울타리와 담을 허시고 질 려와 형극이 나게 하시고 구름을 명하여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셨다.(3-6) 공평이 포악으로, 의로 옴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났다. 탐욕과 황폐와 고독이 지배하며(8) 생산품이 없으며(10) 세상 연회에 빠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다.(11-12) 육 주의로 나가는 사람의 결국은 이러하다. 성령 충만 한 삶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약속을 확신해야한다.

7.은혜의 양면성(사 5:13-23) - 이사야서에도 인간의 전적부패와 불가항력적 은혜의 흐름이 그 바닥에 흘러간다. 인간은 부패로 연단되었으나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에 이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하나님의 높으심,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고 거룩 하고 의로우시다.(16) 어린양이 초장에서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 가난의 가치를 자랑하고 현실의 부요가 주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한다. (약 1:9-10)

둘째, 인간의 전적 부패함, 거짓(19), 무분별(20), 교만(21), 그리고 탐욕(22)으로 충만한 유다의 비참은 복음의 빛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진리를 아는 자리로 점점 나아간다. 그 기반을 분명히 함으로서 영적 풍성한 삶을 영위해야한다.

8. 말씀을 버릴 때 (사 5:24-30) -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회복의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의 원인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어떤 결과인가? 24 절에 근본적인 심판이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다.(25) 외적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화가 임했으나 죄를 범함으로 따끔한 징계를 받았다. 둘째, 왜 그랬는가? 생명의 근원인 율법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24) 말씀과 인간의 성격상, 사람은 말씀에 폭 젖을 때 소망이 생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란 거기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고 연합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진정한 복이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광야 건조한 땅의 떨기나무처럼 영적 고독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바른 교훈인 성경에 착념하는 성도가 되어야한다.

9. 성령의 비전 (사 6:1-13) 세상에서의 꿈은 보장을 받지 못하나 성령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선지가 받은

비전은 어떤 것인가? 첫째,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 볼 때 위로부터 임한 비전이다. 웃시야 왕이 죽던(1-4) 날에 주를 바라보았을 때 기이한 은혜가 임했다. 둘째, 정결한 그릇 위에 임한 비전이다. 이사야의 체험은 마음의 변화였다. 그가 깨달은 입술로 범한 죄(롬 3:13-18)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될 때 사해졌다. 정결한 그릇을 쓰시는 주님 앞에 자 신의 죄를 겸손히 살피야 한다. 셋째, 분명한 비전이였다.(9-10)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내게 주신 성령의 비전을 따라 자기 정결 에 힘씀으로 주께 쓰임 받아야 한다.

10. 임마누엘의 징조 (사 7:1-16)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이 더 빛나듯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징표는 더 확실해 진다. 아람과 합세한 북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증표를 주셨다. (14)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백성의 위로의 원천이되었다. 임 마누엘은 왜 신자에게 위로가 되는가? 첫째, 모든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 누엘에 달려있다. 이것이 구원의 발판이다. 아하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열방을 의지할 때 생긴 결과이다. 둘째, 북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북의 내용을 요약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 뼈터와 꿀의 풍성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고 뺨어나가는 능력이 있다. 노란 자위 은혜를 받은 성도는 힘써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야한다.

11. 심판하시는 지혜 (사 7:17-25) 우리는 제한된 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화로,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면 모든 일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신앙을 심판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이 파리와 벌로 비유된 애굽과 앗수르를 불러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18) 둘째, 잔인한 앗수르의 침략으로 수치를 당케 하셨다.(20) 셋째, 그리고 황폐케 하셨습니다. 번성이 중단되고 포도나무 1000 주에 질려와 가시가 나게 하심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23) 의뢰하는 모든 것을 미리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의 지혜이다. (렘 17:5-6)

12. 임마누엘의 은혜(사 8:1-8)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배은망덕 죄를 큰 문제로 삼아 근본적 해결에 심혈을 쏟으셨다. 이사야의 가정을 통해 약탈이 신속해 질 것을 보이셨으며(3) 진실한 증인들을 부르심으로 (1-2) 견책하셨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첫째, 임마누엘의 은혜를 귀히 여길 때는 풍성과 번성과 생명을 비유한 버터와 꿀을 먹게 하시는 약속을 하셨다. 예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다. 둘째,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멸할 때는 앗수르 침략이 그들을 덮어 버린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존중히 여기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러기 위해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하며 작은

것부터 진실되이 순종해야 한다.

13.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사 8:9-22) 유다의 불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앓수르를 두려워하는데 있었다. 신자의 생명인 영적 두려움은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나? 첫째, 하나님을 나의 기록의 표준으로 삼아야한다. (13) 거룩한 삶이란 모든 생각, 활동, 관계 그리고 말에서 구별된 삶을 가리킨다. 이사야의 체헴처럼 속임과 악독과 미워하는 말을 버려야한다. 둘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한다. (17-18) 죄 때문에 낮을 가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를 기다려야한다. 사울의 경망된 행동과 달리 블레셋 침략을 받는 위기 속에서도 제사를 끝까지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무엘의 태도를 배워야한다. 셋째, 그의 말씀을 좇아야 한다. (20) 하나님 말씀에 맞지 못하면 아침을 보지 못합니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광명의 날을 만날 것이다.

14.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사 9:1-7) 흑암에 비추이는 빛처럼 유다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소망을 갖는다. 이는 그리스도가 창성케 하는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다. 1-2 절이 성취될 그 나라를 성령은 무엇이라 하셨는가? 첫째, 기적으로 세우는 나라이다. 기묘자와 모사란 “놀라운 상담자(wonderful counselor)란 뜻이다. 전능자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둘째, 영원한 나라이다. 단 7:13 절에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왕이신
나라이다. 셋째, 평강의 나리이다. 공평과 의가 세워질 때 평강이
임한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이다.

15. 진노하는 이유 (사 9:8-10:4) 임마누엘 탄생의 소망과는 달리
본문은 심한 징계로 나타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보인다. (12, 17,
21, 10:4) 왜 이런 진노가 일어났는가? 첫째, 경고를 듣고도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8) 겸손한 마음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생기는
열매이다. 바른 교훈인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에는 마귀가
악한 교훈을 쉽게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돌이키는 용단을 내림이 가장 큰 지혜이다. 둘째, 영적지도자의
타락(14-15, 10:1-2)때문이다. 진실은 진리인 하나 님 말씀 위에
서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기대보다 먼저
말씀의 대접을 잘 받기위해 힘써야한다.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그 자체의 능력 때문에 최소한 30 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최대의 심판이 곧 도래할 시대를 사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즐기며 살아가야한다.

16. 겸손일관 (사 10:5-19) 앗수르가 창성하여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하려는 수고가 모두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구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헛된 자랑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앓수르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첫째, 앓수르의 교만. 자기의
 총명과 힘센 손을 자랑하며(13) 열국에서 재물을 얻었음을
 과시하며(154) 전쟁무기인 도끼와 톱을 자랑했다. (15) 그 교만이
 신상을 세웠다. 자랑이 모든 죄악의 뿌리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장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있다. (눅 6:26) 둘째,
 하나님의 벌은 불과 불꽃으로 황폐해지는 심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킨다. 기도하는 마음 과 말씀 순종하는 마음에
 겸손이 자라난다. 기도는 죄를 죽이 지만 죄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
 (변연) 겸손의 도를 따름으로 복수의 영과 배교의 영을 단절하고
 겸손의 영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17.남은 자가 세우는 나라(사 10:20-34) 본문은 심판 중의 기이한
 소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남은 자의 구원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유다의 배은망덕과 앓수르의 무자비한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나라는 세워진다.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째,
 하나님을 진실히 의뢰하게 하심으로(20) 세우신다.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롬 12: 102) 언제나 그 나라는 산 제물 삶 속에
 세워진다. 둘째, 속에서의 변화로 그 나라가 세워진다. 27 절에 어깨에
 기름이 끼게 하심으로 멩에를 부러지게 하신다고 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쉼을 얻는 길은 먼저, 주께 나와야하고 다음,

말씀을 배워야한다. 그럴 때 그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게 된다.

19. 메시아 예언 (사 11:1-9)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메시아 강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상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으로(역사적 천천년주의) 신약 전체의 영적 통치로(무천년주의) 보는 본문에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떻게 다스리는가? 첫째, 메시아가 오신 방법. 땅에서 돌아나는 작은 새싹처럼 연약한 인간 모습이지만 (1)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2) 여호와를 경외함과 순종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며(3), 공의, 정직, 성실의 권위로 사실 것이다.(4-5) 정말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둘째, 메시아의 다스림, 그는 화평(6)과 온유(7-9)로 다스리시고 충만한 신지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9) 역시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성부의 뜻을 모두 이루셨다. 이미 그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20. 주의 구원 (사 11:10-16) - 여전히 참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성립됩니다. 그런 구원만이 처음에는 미약하나 이후에 반드시 창대케 된다. 한 싹이 나와 죽음과 부활을 만민의 기호가 되게 하시고(11) 한 싹이 나와 결실하게 하시며(1) 마침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창 12:1-2) 구원은 어떤 승리를

약속하는가? 첫째, 남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 했다.(11-12) 비록 흩어져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창 12:2)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완성 되었다 (갈 3:14) 둘째, 화목케 하는 구원을 이루신다.(13) 유다와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는 투기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침내 이 화목은 원수가 정복되어 회복케 되심으로 완성 된다.(14 -16)

21. 구원의 샘물 (사 12:1-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샘물은 어떻게 솟아나는가? 첫째,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솟아난다. 1-2 절에 보인 구원은 참 안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려고 힘쓸 때 계속 일어나는 은혜이다.(요 4:14) 둘째,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선포해야한다. 그리스도의 구원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5) 온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솟구치는 샘물 같은 구원이다. 주님의 지상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 샘물을 사회로 흘러나게 하여 사도행전 현장을 만들어야한다. (마 28:19-20)

22. 바벨론심판 (사 13:1-8) 이사야 13-23 장은 열방의 심판을 경고한다. 바벨론 심판과 멸망은 전능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은 종말 심판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가? 첫째, 교만 때문에 심판 받음을 보여준다. 교만 때문에 망한 이스라 엘 처럼 교만 때문에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리라는 예언이다.(3)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있는 거기서 겸손히 주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힘써야한다.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못하게 하는 외식을 경계해야한다.(히 4:9-11) 둘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심판이다.(4) 한편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은 다른 편으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 모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주권적 심판이다. 그렇게 견고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작은 지혜로 망한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23. 진노의 날 (사 13:9-22) 바벨론 심판을 “그 날”, “여호와의 날”로 표현한 본문은 (9, 13)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예고한다. (17)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 그 날에 사람이 많이 죽으며 (12), 무자비하며 (16) 메대어 바사의의 침략으로(17-18) 소돔과 고모라같이 참담해 진다.(19) 이것은 고통의 때, 마지막 날을 알리는 경고이다. 둘째, 심판의 원인은 교만이다.(11) 천사가 타락한 원인인 교만은 세상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교만으로 넘어진 죄인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겸손인 십자가 공로를 믿는 길 뿐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눅 18:17) 그러므로 즉각 교만에서 돌이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추구해야한다. 우리는 택한 자를 위해 진노를 감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겸손히 붙잡아야한다.

24. 교만의 죄 (사 14:12-23) 마귀 타락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생각하는 것 (세대주의) 보다 자세한 문맥 관찰을 통해 유다를 망케 한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일차적 해석이어야 한다. 여기 서 우리는 교만한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배운다. 첫째, 교만이란 하나님이 정해 준 자리를 이탈하는 자율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사탄이 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죄이다. 그것은 인본주의로 발전하여 하나님보다 혈육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칭하는 무서운 죄이다. 어떤 교만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20) 둘째, 그 교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그 길을 가는 길 뿐이다. 말씀만이 교만의 해독제임을 잘 아셨기에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다. (요 15:10) 자랑과 교만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25. 왜 망하는가? (사 17:1-14) 본문의 요약, 아람, 다메섹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한다. 왜 그들이 망했는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에게 눈길을 주었다 믿음의 대상이 우상이된 것은 그 자신을 신뢰했다는 뜻이다.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둘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구원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심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셋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 겐손의 섬김 (사 16:1-14) 모압은 교만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부흥함을 보여준 본문은 겐손을 어떻게 지키리라고 말은가? 첫째,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을지라도 교만하게 된 것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만 모든 관계에서 겐손을 지킬 수 있다. 중생한 사람은 복음의 빛 앞에서 비로소 겐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실한 대제사장이요, 공평의 왕이요, 의의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겐손을 배우게 된다. 모압의 멸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겐손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27. 구스가 돌아오는 날 (사 18:1-7) 구스의 강성함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죄로 인해 파멸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 했다. 그러나 멸망 중에서도 복음 안에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돌아 올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참 구원 이기 때문이다. 구스내시가

광야에 서 복음을 접할 때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 것이다. 둘째, 예물을 가지고 주께 바치게 된다. 이것은 은혜 받은 증거이고 자신이 산제물이 된 증거이다. 셋째, 예배하게 하신다. 시온 산으로 나와 예배하는 구스의 변화는 속에서 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하게 되어있다.

28. 다메섹에 대한 경고 (사 17:1-18:7)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다메섹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첫째, 동맹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하지 않은 연합이기에 멸하신다. 이 연합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선 주님과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둘째, 우상을 바라 보았기에 망한다. 오늘날 무서운 우상은 물질주의, 쾌락주의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다. 셋째, 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18:3 절부터 종말시대의 심판과 구원의 소망을 말한 이사야 계시는 장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은 모두 시온이신 그리스 도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동맹이 이루어진다. 이 복된 성령의 연합 시대에 사는 자로서 그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한다.

29. 애굽에 대한 경고 (사 19:1-20:6) 이사야 19, 20 장은

17:3 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예언의 응답으로서 애굽 멸망을 경고한다. 이미 다메섹과 에디오피아에서 보인 남은 자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첫째, 주제권의 회복(16-17,18, 19-22). 메시아 통치의 첫째 특징은 주님이 주님 되는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혼드시는 손이 두려우며 (16-17),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18), 애굽 중앙에 여호와와 제단과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진다.(20-22) 여호와께서 애굽이 자기를 알게 되어 제물을 드리고 구할 때 그들을 치료하신다. 둘째, 예배의 회복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앓스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앓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앓스르로 가서 함께 경배하게 된다. 셋째, 주 안에 있는 복의 회복 (24-25).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24-25) 즉,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된 상태이다. (엡 1:3)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원천적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30. 용사이신 하나님 (사 42:1-26) -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진정한 용기로 현실의 영전에 임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용사로 나타난 이유. 그는 “용사처럼 행진하시고 전사처럼 분발하신다(13)”고 하셨다. 해산하는 여인이 소리치듯 용사이신 주님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크게 파하시어(15 -17) 공의를 반드시 세우신다. (4) 둘째, 싸우시는 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싸우신다.(1-2) 1) 겸손

(humility)으로 싸우신다.(2) 2) 긍휼(Mercy)로 이루신다.(3)
한마디로 어린양의 원리인 사랑으로 싸우 신다. 용사로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살핌으로 주를 본받아 우리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체 소욕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31. 신천 신지의 소망 (사 65:1-25) 신자의 소망인 신천 신지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용서로 채워진 곳이다. 그 세계는 “이전 것이 생각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17)” 곳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으로서 그리스도 피의 효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계가 될 것이다. (히 10:17) 바울이 정죄하고 대적하고 송사할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신천 신지의 세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백성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세계이다. 18-19 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백성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습 3:17) 셋째, 영원한 복의 세계이다. 장수의 복 (20), 노동의 복 (21-23), 값없이 주시는 복 (24) 그리고 화평의 복(25)이 넘치는 곳이다.

32. 주의 날 (사 24:1-23)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장래를 비교한

24 장은. 전자는 망하지만 후자는 영원하다고 말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가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21-23) 첫째, 하나님 나라(21-23)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교회를 통해 완성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며 그 나라의 도래와 세상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둘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 성령 안에서 주님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가정에 그 나라가 임하였는가를 살피며 항상 그 나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도들처럼 임하나라와 장차 임할 나라 사이에 사는 우리는 영적 긴장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33. 구원의 기쁨 (사 25:1-12)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문제를 본문은 어떻게 말해주는가? 첫째,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 오는가? 1-5 절은 주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 주의 예정을 따라서 주께서 강한 성읍을 무너뜨리듯이 원수들을 모두 낮추시고 제하시기 때문이다.(4-5) 빈궁한 자의 보호자, 환난 중에 있는 빈핍한 자의 보장이요, 폭풍우의 피난처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요, 폭양을 가리는 그늘처럼 성실하고 완전한 구원이다. 둘째, 그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산으로 비유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6-8)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구원의 연회가 일어난다. 셋째, 구원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 (1-12) 그것은 범세계적 (3, 7)이며 영적으로 연합되며, 겸손으로 가득 채워진

구원이다.(10-12) 모압의 교만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감격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야한다.

34. 주 안에서의 기쁨 (사 26:1-21)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첫째, 보장된 길을 주셨다. 평화 속에서의 보장(1-4)과 진노 중에서의 보호를 보장 (20-21)하셨다. 둘째, 평탄한 길을 주셨다.(7-9)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고 했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고 약속하셨다. 셋째, 높아지는 길을 주셨다. (12-15)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4 계명을 무시하는 혼란한 세상에서 주일을 성수함으로 야곱의 업을 먹으며 가장 높은 곳에 다니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35. 주께로 오는 구원 (사 27:1-13) 주께로 오는 구원은 어찌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가? 첫째, 주의 손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1절에 리워야단, 마귀를 제하시는 손은 하나님이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손이다. 결국날선 검을 가지신 그 분이

교회를 지키시고 심판하신다. 둘째, 주의 보호를 즐기는 구원이기 때문이다.(2-6)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비유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요 15:5) 셋째,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는 기이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 날은 하나님이 자기백성의 불의를 속하는 날이다. 주께서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폭풍 중에 지키시며 (7-8) 야곱의 죄를 없이하시며 (9). 하나님이 친히 모아(10) 성 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신다.(13) 이 큰 구원의 날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36. 하나님 나라의 기초 (28:1-29) 본문은 에브라임을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해 가는 꽃 (4)”으로 비유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지 않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 기름진 땅에 산다할지라도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어떠한가? 첫째, 쇠잔한다. 쇠하고 망한다는 뜻이다..(1-3) 우박, 광풍, 홍수로 면류관이 땅에 던져지고, 교만의 면류관을 발로 밟아 버린다는 것이다. 둘째, 보장받지 못한다. 7-22 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철저히 심판하신다. 셋째, 시온의 기초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16 절에 약속하기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이유는 그 위에 선 자는 심판 중에서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산 소망이 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다.

37. 징계의 손 (사 29:1-14)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첫째, 원수의 침략으로 징계하신다. (1-8)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시나 그들 역시 회개치 않을 때 심판하셨다.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 앓스르, 애굽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다. 둘째,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징계하신다. 9-13 절에서 말하기를 “잠들게 하는 신”을 허락하심이라 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 비틀거림이 아니고 미혹의 신이 역사함으로 비틀거린다고 말씀했다. 스가랴의 예언은 성령의 예언이었으나 거짓선지자의 예언은 거짓 신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철저히 다루신다. 외적 가시와 내적 검으로 죄를 도려내신다. (요 15:1) 그 철저한 징계의 손은 지금도 일하신다.

38. 회복의 손 (사 29:17-24)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첫째, 세상의 변화로 회복시키신다. 17 절에 이것이 예언되기를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기름진 땅이 삼림으로 여김을 당한다. 둘째, 개인의 영적 삶을 변화시킴으로서 회복시키신다. 15-16 절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는 화있을 진저라고 했고 17-19 절에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귀머거리와 소경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약속하셨다. 셋째, 야곱을 변화시키심으로서 회복시키신다. 22-24 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께서 야곱 족속을 친히 변화시키신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시대는 여호와의 영광의 두려운 징계(6)가 이미 시작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39. 불신실과 신실함 (29:25-33) -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불신실한 인간에 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했는가? (18-33) 첫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18)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신다. 둘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26)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셋째,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29) 그러나 앓수 르를 제하듯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31-33)이다. 영적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우리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입을 넓게 열어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40. 두로에 대한 경고 (사 23:1-18) - “내 영혼아 영원토록 마시고 즐거워 하자” 는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은 무엇을 경고는가? 첫째, 하나님 없는 물질문명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다.(1-14) 물질만을 믿던 두로, 다시스, 시돈의 번영은 황무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인간의 심판을 보인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한다. 둘째, 물질주의 심판이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 이 정하셨기 때문이다.(8-9)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행하셨기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셋째, 그러나 회복의 날을 약속하셨다. 물질주의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징계 기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은혜로서 두로와 시 돈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15- 18)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아야한다.

41. 기도의 능력 (사 40:27-31) - 본문 초반부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면서 후반부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초청소리를 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첫째, 기도 대상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기대를 걸고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18) 영원한 창조자요(15,21-22),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피곤과 곤비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시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보호하시는 무한한 명철자이시다. 그만이 우리의 기도 대상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27 절에 야곱은 자신의 탄식 과 원통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몰랐기 때문이다. 셋째, 양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한다. 젊은이의 경주 (30-31)와 독수리의 비상에 비교한 이사야는 주를 앙모하라는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권능을 받아야한다.

42. 구속의 영광 (사 43:1-28)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다. 1 절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구속 곧 재창조의 역사를 말해 준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만세 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다. (7, 21, 25) 이 구속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계획한 것이다.(엡 1:4-6 참조) 둘째, 하나님의 개별적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 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고 5-7 절에 남방과 북방의 열국을 불러 모으신 것은 복음 안으로 만민이 몰려 올 것을 예상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적이기에 함부로 부르지 않으신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을 피운다. 그 구원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가게 되어있다. 의로움에서 영화로움으로 나아간다. 애굽 에서의 구원(16-17)과 바벨론에서의 구원(18-20) 그리고 열방이 모여 연합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20) 구속의 꽃을 보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한다.

43. 나의 택한 여수룬아! (사 44:1-28) 여수룬이란 말은 “의로 세움 받기 위해 택한 자”란 뜻이다.(신 32:15) 여수 룬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한다. 2-3 절에서 두려워말라 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오는 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갈할 때 물을 받으며(요 7:38-39)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며 성신을 두심으로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신다. 둘째,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9-20 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과 비교하시면서 까지 변호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9)고 했다. 셋째,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21-23 절에 여수론을 향한 구속자의 죄 사함을 약속하기를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며 (21), 허물을 구름과 안개처럼 도말하겠다는 것이다. 여수론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44. 여호와와 팔 (사 51:9-16) - 능력을 비유한 여호와와 팔 (9) 이란 말은 구약 28 회 중 이사야에만 11 회 나온다. (30:30, 40:10 48:14, 51:5,9 52:10 53:1 59:16 62:8 63:5,12) 그 팔이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창조와 구속의 근본 이다. 창조(13)와 구속(9-11)의 배후에 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와 구원 활동이 바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말씀의 선포인 설교(preaching)는 가르침과 구분된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바로 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 를 통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으며 신령한 능력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 팔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담력으로 바뀌어진다.(12-14) 믿음으로 사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45. 고난의 종 (I) (사 52:13-53:6) - 고난의 종이 이루실 구속은 어떤 것인가? 첫째,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13)”고 약속하고 그 씨를 보고 그 손으로 여호와와의 뜻을 성취하리라(53:10)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미리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다.(창 3:15) 둘째, 인간 상상을 초월한 계획이었다. 14-15 절에 놀라워하는 두 사건이 나온다. 그 종의 고난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이고 그의 수난의 참혹함을 보고 놀라는 것이다. 연한 순과 마른 땅의 줄기 같은 탄생(1), 멸시, 간고, 질고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다.(3-4) 셋째, 믿을 때 효능을 발하는 계획이었다. 구속은 하나님이 많은 말씀과 사건을 통해 예 고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1)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짐 으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가야한다.

46. 고난의 종 (II) (사 53:6-9) - 그 고난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첫째, 대신 담당한 고난이었다.(6-7)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는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 수 있다. 4 절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고 5 절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고 8 절에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다. 둘째, 세상의 온갖 수모를 참는 고난이었다.(7) 곤욕과 심문을 당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양의 침묵을 지켰다. 자기 털을 희생하듯 그는 잠잠하였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모리아 제단의 이삭처럼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아무 대답도 없으셨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난은 실제적이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잘 배워야한다.

47. 고난의 종 (III) (사 53:10-12) -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왔는가? 첫째, 하나님을 만족시 키셨다.(10-11)-속죄 제물(보상제)이 되심으로 여호와와의 뜻을 성취하셨다. 수천 년의 역사적 사건과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증거하신 유일한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다. 둘째,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셨다. 그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의로운 위치로 올려놓고 상대해 주셨다.(11) 자기 지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속죄 표준과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뜻이다. 의의 하나님 앞에 의가 없으면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허물과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평화와 치료를 얻었다 했고(5)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이 길 것이라(10)”고 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인자로 오신 그는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얻어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48. 성수주일의 복 (사 58:3-14) - 본문은 안식에 대해 교훈을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 성수주일이란 안식일을 온 전하게 지키는 삶을 가리킨다. 주님이 한 날을 안식일로 지정한 것은 에덴동산에

인간을 불러 교제의 장소로 정하신 것처럼 7 일 중 한 날을 정하여 자기 백성과의 교제를 원하신 것이다. 둘째,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자기 절제- “네 밭을 금하라”, “오락을 금하고”. 안식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며 믿음생활에 중요한 덕목이다.(3-4) 2) 주의 뜻을 따름- “네 길로 행치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며”. 그 날은 철저히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한다. 3) 예배중심을 힘씀- “그 날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 날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다. 셋째, 주일성수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1)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얻는다. 2) 땅에서 존귀하게 된다. 3) 야곱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산이 굽이침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는 원천적 복을 받는다.(8-12) 주일을 지키므로 에덴동산의 축복을 누리야한다.

49. 노래할 이유 있네 (사 54:1-17) 이사야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1) 고 권한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장막터를 확장시키셨기 때문이다. 3 절에 보면 그들이 거하는 장막터 확장으로 인하여 노래하라고 했다. 좌우로 퍼져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는 장막터 확장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다.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8) 다시는 책망받지 못하도록 (9) 허물을 책임지시고 고쳐주시고 인자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10)고 약속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노래한다.(13-15)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으며 평강할지 어다(13)고 하였고, 학대가 멀어지고 공포가 가까이 못하리라(14)고 하였고,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하 리라(15)고 보장하셨다. 찬양이 가득 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한다.

50. 물로 나오라 (사 55:1-13) 여호와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는 (12-13)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임을 알아야한다. 본문은 이 풍성함을 약속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잔치 상에는 공홀과 사랑(7), 영혼의 소생함 (3), 3) 좋은 것과 기쁨진 것 (3) 4) 넘치는 잔 (12) 그리고 5) 하나님의 명예 (13)가 풍성히 준비되었다. 둘째, 누가 준비하셨는가? (11) 그는 전능자, 초월자, 거룩자, 전능자, 주권자, 계시자, 명령자, 인도자 그리고 성취자이신 하나님이다. 셋째, 어떻게 응해야하나? 물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곧,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다.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진노를 모두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물가로 나가야한다.

51. 평강의 길 (사 57:1-21) -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20), 의인의 마지막은 평강의 길이다. (2) 이 평강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가? 첫째, 통회. 14-15 절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마음을 소성시키시는 분이라 하였고 18 절에는 이런 자를 치료하신다 하셨다. 산상보훈에도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있다고 했다.(마 5:4) 둘째,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애통과 겸손은 통한다.. 7 절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라는 것을 보면 우상 섬기는 자의 특징은 교만으로 나타난다. 교만된 마음에는 이 평강이 머물지 않고 연합을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빌 2:1-2)

결론: 구약의 복음기자로 통하는 이사야는 신약에 나타날 복음의 영광을 미리 본 선지자로서 바울처럼 새언약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종말시대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나아가 유대 민족주의 성격을 벗어나 모든 열방에 까지 미칠 하나님의 형상의 전과와 그 열매를 내다보고 교회가 가질 선교의 사명이 죄로부터의 구출 정도에서 벗어나고 그 후에 교회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열매인 의인신 곧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날에 올것을 주목하였다.

2.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아사야와 동시대에 일한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전해야만 한 하는 사명을 수행했 지만 이사야가 본 그 영광 곧, 옛언약의 실패와 새언약의 성취를 내다보고 회개를 촉구했다. 최초로 새언약이란 말을 사용한 예레미야는 그 내용이 하나님 형상회복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과 그 골자를 자세히 말한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새법을 새기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종과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계시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예레미야서는 내용상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 (1) 1-29 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을 알림
- (2) 30-33 장은 대관식
- (3) 46-51 장은 이방에 관한 예레미야의 편집

I.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을 알림 (렘 1:-25:13)

1. 예레미야의 사명 (렘 1:11-19) -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알리는 사명을 수행할 때 어떻게 감당했는가?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12)을 보이신 하나님은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셨다. (11) 둘째, 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셨다. 북에서 남으로 향한 끊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 장차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이 우상을 섬김 죄의 결과임을 가르쳐주셨다. 그가 전할 메시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13-16) 셋째, 두려움을 견디게 하셨다. (17-19) 아이 같이 말할 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며 격려하셨다.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2. 유다의 죄 (렘 2:1-28) - 이스라엘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부패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 경외신앙을 잃은 것이다. 그 죄는 어떤 것인가? 첫째, 불순종이다. (20) 하나님이 주신 명에와 결박을 벗어 버리는 운동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벗는 것은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다. 완전한 죽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좌우된다. 둘째, 익숙한 우상숭배이다. (22-25) 발정하는 짐승처럼 이방신을 음란하게 사랑하는 죄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형태만 다를 뿐 인간 존재 속에 뿌리 내린 자아숭배 곧 탐욕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셋째, 지도자가 부패했다. (26) 왕, 족장, 제사장, 선지자가 의와 인과 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마 23:23) 이것은 그들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일에

실패한 셈이다.(눅 9:23) 이런 죄가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한다.

3. 회개치 않는 죄 (렘 2:29-3:5) - 첫째, 회개치 못하는 이유는 무책임 때문이다.(35)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 어두움 때문에 죄 없다고 주장하는 억지였다. 십자가 우편 강도가 마땅하다는 죄책감이 필요하며, 자기를 바라보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태도가 바른 회개이다. 이런 일은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실상을 늘 보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리고 신실성의 결핍에서 회개치 못했다.(3:1-5) 진실할 때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생긴다. 성경의 진실 앞에 정직히 서기 위하여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목상과 말이 모두 열납되기 원하는 체험이 일어나야한다. 둘째, 회개치 않은 결과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염치와 정절이 결핍되고 단비와 늦은 비가 그치고, 욕심주의자가 되어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시대를 사는 신자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한다.

4. 돌아오라 (렘 3:19-4:4) -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었다.(22, 16-19) 회개란 무엇인가? 첫째,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깨닫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말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제의 삶은 주님마저도 좌지우지하는 주인 노릇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인다. 둘째, 목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3)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재리와 염려와 향락의 방해물들을 제거해야한다.(마 13:7, 22)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런 싸움이기 때문이다. 셋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란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한 거듭남을 가리킨다. (롬 2:28,29) 한 밀알의 껍질이 벗겨질 때 생명을 나타내듯이 성령으로 행할 때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5.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 (렘 4:8-18) - 여호와와의 진노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타난 본문에는 경고와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키는 자가 복됨을 보여준다. 첫째, 진노의 원인은 매우 종교적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 원인이다. (17-18) 9 절에 보면 왕, 방백,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놀람은 영적 타락을 보여준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열방의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진노의 맹렬함을 피할 자가 없다. 큰 멸망과 재앙(6), 큰 놀라움(9), 칼(10)같은 것이 회리바람이나 독수리처럼 재빠르게 임한다고 했다. (13) 셋째, 진노에서 피할 방법은 회개뿐이다. 1 절에서 보인대로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에서부터 주께 돌이키는 것이 소망의 첫 걸음이다

6.한 사람 의인 (렘 5:1-19) -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 회개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킨다. 왜 의인이 필요한가? 첫째,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의 길로 치달고 있었다. (1-2) 시대의 부패 때문에 의인이 필요하다. 의란 주께서 주신 말씀 순종에서 나온다. 때로 말씀은 불(심판)과 능력과 단비로 임했고 때로 좌우의 날선 검의 치료로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며 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 사람 속에 빛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은혜로가 있다. 둘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여는 은혜는 예레미야 같은 의인을 통해 일어난다. 노아나 아브라함을 통해 그 시대의 구원 역사를 보이심은 모두 참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

7. 은혜를 막는 죄 (렘 5:20-31) -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신 하나님은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셨다. 첫째, 어떤 죄입니까? 영적 무지(21), 무절제(22), 배반(23), 거짓 충만(27), 불공평, 압제(28)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의 거짓과 탐욕(31)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을 때 일어난 결과이다. (롬 3:10-18) 그만큼 현실의 최소한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임하는 귀한 은혜를 막아버린다. 단비와 늦은 비가 중단된 이유는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사 59:1-2) 기도란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일에 힘씀으로 은혜

생활을 유지함이 복이다.

8.말씀을 즐기라 (렘 6:1-15) - 회개치 않은 예루살렘은 전쟁 후유증으로 생긴 무질서와 혼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 속에 황폐함(3), 벌 받는 성(6), 악을 솟아내는 물(7) 그리고 모든 성물이 옮겨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포함된다.(12) 첫째, 그들은 어떤 죄악을 즐겼는가? 탐남(13), 거짓, 영적 안일(14), 광포, 강탈, 그리고 포학(7)이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죄를 즐기는 그들에게 죄의 샅은 사망이라는 진리가 적용된 것이다. 둘째, 말씀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한다. 그들이 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근본 원인은(10)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생기는 말씀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엠마오 두 제자의 경험처럼 해석된 말씀인 설교를 즐기는 것이 나의 사역과 신앙 성장에 최우선이 되어야한다. 이것만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9.외식주의의 경계(렘 7:1-11) - 멸망을 가져온 유다의 죄는 외식이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3)고 권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내실주의에 비중을 둘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성전과 가나안 땅의 외모로만 평가함으로 외식에 떨어졌습니다. 야고보 경고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보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외식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이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실된 기도를 할 때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적용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자는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아 외식을 이기기 위해 기도의 밀실로 들어갑시다.

10.교회, 기도의 집 (렘 7:1-20) - 1-15 절에 실로에서 쫓겨나는 일은 하나님 면전을 떠나는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째, 자기 죄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이 없는 기도(13), 순종 없는 기도(15)는 모두가 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됩니다. 둘째, 악을 제하고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18 절에 나온 헌신이란 귀한 일입니다. 롬 12:1-2 절에 신자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은 항상 점검되어야 할 일입니다. 신자의 마음과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바뀌어져야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닌 염치와 정절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치료책입니다. 극도의 타락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할지라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통한 기도가 있다면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의 향연이 오르게 합시다.

11.진리의 백성 (렘 7:1-28)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책망은 진리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의 백성이 될까요? 첫째, 제물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출 때부터 하나님은 번제보다 목소리 청종을 더 원하셨습니다. (21-24) 순종은 언약의 기본이며 계속되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23) 우리는 제물보다 순종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일을 힘써야 합니다. 둘째, 진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치 않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26) 진리 청종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28) 다시 말하면 진리인 성경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표준을 따른 결단을 가리킵니다. 셋째,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진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에 세운 목사 안에 말씀을 두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진리의 길로 나갈 때 참 자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2.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렘 7:29-8:3) - 유대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놓인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담대하게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30) 모든 계명의 기초인 제 1 계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일월성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위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머무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헌신을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31) 흰놈 골짜기에 사당을 세우며 거기서 자녀를 불사르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 죄는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고 가시 같아 모든 은혜를 떠나게 하셨습니다.(32-34, 8:1-3) 이런 진노의 원인들로 가득 찬 현실에서 나부터 주께 돌이키며 내 이웃을 돌이키려는 거룩한 꿈을 꾸며 실천합시다.

13.이스라엘의 소망 (렘 8:4-12) - 늪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는 보통을 능가했습니다. 회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첫째, 영적 무력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귀와 결탁된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고(5), 반성할 기미도 없으며(6), 분별력도 없었습니다.(7) 결국 영치가 되어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없고(8-9) 백성과 지도자들이 모두 부패하여(10-11) 탐남, 거짓 그리고 안일에 떨어져 철면피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원하는데도 그들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것은 진실이 결여된 증거입니다. 그 진실은 성령님만이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도 바로 이 수치심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의 책망을 잘 받아 이 복된 자리로 나갑시다.

14.징계의 사람 (렘 8:13-22) - 본문은 징계의 심각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공존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징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열매가 없으며(13)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17)이 일어나며 치료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21) 하나님의 손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칼날처럼 두렵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 속에 숨어있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18,21) 이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사랑의 뜻이 숨겨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깔려있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손들고 돌아오면 살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합시다.

15.십자가 지는 생활 (렘 9:1-16) -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위하여 눈물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십자가 지는 자세(1-3)와 광야에 홀로 있기를 원하는 성결의 자세(2)를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첫째, 거짓과 싸워야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13-14) 거짓은 마침내 우상숭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청종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둘째, 애통해야합니다. 바울과 모세가 흘린 눈물은 논리를 초월한 것입니다. 어지러운 그 시대에 간구의 심령과 독자를 위한 애통이 유일한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현대의 어두움은 위험 수위를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과 시대의 어두움을 책임지고 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17.신자의 자랑(렘 9:17-26) - 울음꾼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울음을 가르쳐야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자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랑이 필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자라와는 곳은 모두 죄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진리를 배울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풍성함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엡 1:17, 요 17:3) 둘째, 하나님의 인애, 공평, 정직을 기뻐해야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영력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기서부터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 수 있어야하고 이웃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어야합니다. 이런 간증으로 채워지게 합시다.

18.진정 두려워할 분(렘 10:1-16) - 우상의 어리석음을 가르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첫째, 우상의 실체.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며(15)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며(8) 무지, 거짓, 우준함,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1) 우리는 마음의 우상인 탐심과 싸워야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독일무이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는 누구이기에 경외해야합니까? 크신 분(6), 열방의 왕(7), 살아계신 영원한 참되신 왕(10)이며, 만물의 조성자이며(16), 심판자이며(10), 모든 지혜, 권능, 명철의 근원(11) 이십니다. 그 분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비상한 시대를 능력있게 살아가는 길은 여호와 경외신앙 뿐입니다. 그 속에서 지혜의 샘이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19.언약을 지키는 생활(렘 11:1-17) -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청종하는 것뿐임으로 불순종하여 언약을 파기하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은혜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합니까? 첫째, 경계의 말씀을 잘 받아야합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와 간절한 권면(7)을 듣고서도 무시한 그들은 불행을 자처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약 1:19) 둘째, 두려움을 가져야합니다. 8 절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가난한 심령 유지를 힘써야합니다. 셋째, 좋은 열매 맺기를

힘써야합니다. 좋은 행실 맺는 푸른 감람나무(16)처럼 모든 생활에 말씀을 적용하려고 힘써야합니다. 언약을 힘써 지킴으로 신실한 약속을 누립니다.

20.십자가의 길(렘 11:18-12:6) -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선지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첫째, 순한 어린양의 잠잠함으로 십자가를 져야한다. 19 절은 이사야 53 장에 나온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은 고난의 종을 보여준다. 침묵으로 정진함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늘 위로와 함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부어진다. 둘째, 주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한다. 3 절에 나를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20 절에 원통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했다.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가 주시는 힘을 받아 행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생활이다. 나의 기대와 칠혹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한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으로 살 때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승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십자가 후에는 천국 상급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마 5:10-11)

21.하나님 사랑의 양면성 (렘 12:7-17) - 본문 13,15 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첫째,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의의 성격을 가졌다. 자기 백성을 집(7), 산업(7-8)

무너있는 매(9), 포도원(10) 그리고 밭(13)으로 비유함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으나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사정없이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징계를 통한 신자는 정금처럼 되기 때문이다. 둘째, 거저 주시는 절대적 은혜로 나타났다. 이것이 은혜언약의 특징이다. 15 절에 공훈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심은 단번에 주신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 헌신함으로 은혜 받는 길을 환히 열어 놓으신 것은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

22.교만을 이기는 길(렘 13:15-27) - 본문에 나온 유다의 교만을 화를 자초하는 근본 원인이었다.(17) 그 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째,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랑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에 익숙한 자(23), 영적 음행 자(27)로 나타난 교만은 결국 큰 수치를 당하고야만다. (16)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일에 익숙함으로서 은총과 화평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참 신자이다. (엡 4:1) 둘째, 교만의 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 (16)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리는 자리바꿈이 일어나야 한다.(15-16)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소망이 생긴다. 그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교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신자는 그 자신부터 자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영웅주의를 선호하는 현대의 넓은 길에서

겸손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좁은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한다.

23. 영적가뭇의 돌파구(렘 14:1-18) - 예루살렘 심핀의 징조로 보인 가뭇과 전쟁과 기근(1-6)은 종말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영적 가뭇을 경고하며 극복하는 길을 보여준다. 첫째 영적가뭇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인 죄에서 온 것이다. (10-11) 그 죄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했기 때문이다. (13-14) 거짓 계시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드린 것을 보면 거짓 교훈에 착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 어린아이같이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과 산 교제를 하게한다. 둘째, 영적가뭇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드리는 것이다. (7-9) 예레미야는 지금 부흥을 구하고 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런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결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24. 회복 단계들 (렘 14:19-15:9) -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절망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첫째, 목표가 변해야한다.(21) 자기 이름을 위하던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먹으나 마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될 때 소망이 있다. (고전 10:31) 둘째, 방법이 변해야한다.(21) 오랫동안 잊혀진 언약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예수의 피가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다. 셋째, 실제로 변해야 한다.(22) 진정한 변화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경외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신자는 그 은혜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25.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렘 16:1-9) - 나의 평강을 뺏고 인자와 긍휼을 제하시어 (5)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는 혼돈과 혼란에 치당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귀히 여기는 생활을 배울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 드려야 한다. 자녀와 부모가 전쟁에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결혼하지 말라(2)고 했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징벌로 애곡하나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가 통곡치 말라(5)고 했고, 신랑신부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제하시어 때문에 잔치 집에 들어가지 말라(8)고 경고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스름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으니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모든 방면의 평강을 약속하고 있다. 그 은혜를 헛되이 앎기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26.구속의 여명(렘 16:10-21) - 열조의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

보다 더 악한 자리에 떨어진 유다는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기이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첫째, 은혜의 구원을 주신다.(14-15)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과 다른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견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정오의 빛 같은 공의가 드러내시려고 포수와 어부같은 열방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심은 참 구원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열방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열방이 허무를 깨닫고 돌아올 때 여호와를 “나의 보장, 나의 힘, 나의 피난처”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새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될 일이었다. 이미 그 안에 사는 우리는 그 빛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벤전 1:8)

27.안식일을 지키라(렘 17:19-27) - 본문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유다의 죄를 경고하면서 그 계명의 복됨을 보여준다. 여기서 안식일 지키에 관해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거룩한 날로 지켜야한다.(24)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을 구별 하여 안식하게 하심은 그 자체가 큰 본이다.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이다.(창 2:1-3) 6일 동안 세상 일로 어두워진 마음이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놓음으로서 성령이 자유롭고 새롭게 일하실 날이기 때문이다. (Calvin) 둘째, 예배에 힘써야한다. 짐을 운반하는 일을 금하신 이유는 예배에 헌신하 게

하려는 것이다.(21) 오락을 중지하고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그 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한다.(사 58:13-14) 그것을 지키면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거절하면 궁전을 불태우겠다고 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약속된 귀한 복을 받아야 한다.

28.주권신앙(렘 18:1-17) - 유다의 완악한 마음을 보고 탄식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13,17) 첫째,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르치셨다. 선택의 특권을 남용하여 죄에서 즉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의 외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긴 일이다. 예정론은 기계적 태도를 갖게 하는 운명론과 다르다. 자유의지를 포함한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주의 손에 있음을 항상 주목해야한다. (6) 둘째,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다. 어떤 나라든지 악에서 돌아서면 재앙에서 돌이키시고,(8) 회개치 않으면 복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다.(9-10) 인간의 반성과 회개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한 회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엡 2:8-9)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같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한다. 그 분의 주되심을 찬양해야한다.

29.용기를 통한 경고(렘 19:1-20:6) - 흰놈(도벳)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되도록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과 일월성신 숭배로 그들의 목이 곧았기 때문이다.(15)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나? 첫째, 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옹기를 깨뜨리는 실물교육을 통한 경고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준다.(1-10) 또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돌이키는 기회를 주셨다.(11-13)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인 것이다. 둘째, 심판의 두려움을 본다. 언약을 파기한 자의 결과는 소동고모라성과 아골 골짜기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 승리의 착각을 모두 갚으시기 때문이다. 바스홀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였다.(20: 1-9) 철면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여 그의 의를 세워가야한다.

30.십자가의 길 (렘 20:7-18) - 본문은 그 선지자가 당한 일을 통해 십자가 길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 십자가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종일 조롱당한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너무 커 침묵하려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9) 읊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되었다. (14-18) 선지자는 십자가의 고통을 잘 견디었다. 둘째, 십자가는 영광을 향한 관문이다. 그러나 십자가 고통은 영광을 기약했다. (11)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의인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셋째, 십자가 길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를 건디며 나가는 그에게 찬송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사랑하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12 -13) 이것이 성령의 부으심이다. (롬 5:5)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여진다. 성령의 능력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31 생명의 길 (렘 21:1-14) 반 바벨론 정책을 시도한 시드기야가 선지자에게 부탁한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첫째, 인간적 방법을 파하신다 하셨다. (3-7) 갈대아인의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모두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을 다룰 때 살길이 열린다.(8-14)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살길을 주셨다. 매국노라는 말을 듣기 겁지않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살아난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한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선지자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러지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 지혜와 기적보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때문이다.

32.가난 속의 풍성 (렘 22:10-19) - 본래 하나님은 풍부 속의

번영이 아니라 환난 속에 풍부를 계획하셨다. 풍부 속에 하나님은 그들 조상의 풍성함을 환기시킴으로 회개를 촉구하셨다. 첫째, 고난의 원인 - 불의와 부정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17)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면 왕이 될 줄 아는 외식에 떨어져 돌이킬 수가 없는 철면피가 되었다.(18-19) 형통과 성공을 백향목 궁에서 찾지 말고 광야의 천막 속에서 찾아야한다. 둘째, 고난 속에 있는 형통. 그러나 홍해 속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가난과 절망 속에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신다. 과거의 조상들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어도 정의와 공의가 있었고 형통하였다.(15) 왜 그런가? 가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16)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영생이다. 이것이 형통의 골자이다. 형제의 연합 위에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신 것은 가난 속에 경외 중심한 삶을 참되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힘씀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야 한다.

33.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에 사용됨 (렘 22:20-30) - 유대 멸망의

원인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태도가 습관화 되었기 때문이었다.(21) 흠니와 비느하스 처럼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함으로 생각과 습관에 배어 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도자들, 동맹자들, 왕들에게 진노가 임했다. 말씀의 습관 화가 왜 큰 복인가? 첫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 할 때 효력이 나타나며 말씀을 인격화 할 때 인생의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요 15:7) 찬송, 예배, 기도, 봉사, 구제, 가치관이 바로 되는 것은 말씀의 세계를 아는 사람의 몫이다. 이것이 있을 때 신자는 생명을 넘치는 자로 살 수 있다. 둘째, 성경관이 확실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자의 생명임을 믿어야 한다. 신자는 중생할 때 받은 말씀 듣는 기능을 활용하여 영적 언어에 귀가 열려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훈련을 힘써야 한다. 작은 말씀에서부터 순종을 힘쓰며 반복할 때 습관화되고 인격화된다.

34. 의로운 순에 의한 구원 (렘 23:1-8) - 유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 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으나 (1- 2)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 행하시는 구원이다. 그 가지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의로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얻는 구원이다.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5)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신다고 하셨다.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연한 순에 붙은 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이다. 둘째, 그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여호와 경외가 핵심인 지혜로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그 구원에 붙어있는 우리는 구원의 풍성을 기대하며 그 만을 의지해야 한다. 개인 구원의 확신과 구원 역사가 많아지는 꿈을 꾸며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한다.

35.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참여함 (렘 23:9-22)** -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은 간음, 거짓 그 리고 악 때문에 소돔고모라처럼 처참했다. (14-20) 왜 하나님 백성이 처참했는가? 첫째, 여호와와의 목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목시가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16) 목시란 사람에서 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온다. 신자란 목시에서 시작하고, 목시를 먹고, 목시 로 구원을 완성한다. 그래서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마 11:27) 교회는 하나님 의 목시로 충만해야한다. 둘째,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회의란 삼위 하나 님의 계획과 작정을 가리킨다. (18, 22) 기도가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뢰고 그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슨 간구를 할지를 생각해야한다.

36. **불과 방망이 경험 (렘 23:23-40)** - 신자는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체험이 필요하다. 교회의 기초며 신앙의 근간이 바른 말씀의 깨달음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불같고 방망이 같은 체험이 란 어떤 것인가? 첫째, 불체험이 일어나야한다. 불이란 심판(불 세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를 채하고 열심을 갖게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말씀은 마음 속에서 불처럼 일하기 때문이다. 거짓된 불도 있다. 26 절에 선지자가 말씀을 제쳐놓고

떠벌리는 꿈 이야기는 성령의 꿈이 아닌 탐욕에서 나온 것이다. 참된 불은 성령의 불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밝아 지고 시원해지고 열심이 생긴다. 둘째, 방망이 체험이 일어나야한다. 불체험은 개인 성장에 필요한 것이 라면 방망이 체험은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개혁의 말씀을 체험한 것이다.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이 고정관념, 구습, 견고한 이론과 거짓된 진지를 말씀으로만 부수어진다. 그래서 하나 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20) 말씀의 불 체험, 방망이 체험이 일어나야한다.

37.무화과 두 광주리 (렘 24:1-10) - 예레미야에게 보인 두 무화과 광주리는 순종자와 불순종자의 장래를 예언한 것이다. 어떤 대조를 이루나? 첫째, 순종자가 현재 잡혀 고생할지라도 마침내 은혜로 하나님을 소유하여 전심으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약속 이다. (1-7) 매국노처럼 보이는 참기 어려운 꺾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에게는 살 길 이 생긴다. 둘째, 그러나 불순종자는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으로 멸절된다. 광주리 의 모양은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장래는 판이하 게 나타난다. 순종의 자식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 일관하여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

38 **주의 말씀 (렘 26:1-15)** 이제라도 돌이키면 살게 된다는 주의 약속(3,13)은 말씀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 가? 첫째, 사랑이 풍성한 말씀입니다. 목이 곤은 이스라엘을 향해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듣지 않던 그들 에게(5)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최후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독생자를 보내 구원을 이루신 사랑을 생각하게 한다.(히 1:1-2) 둘째, 말씀을 청종할 때 효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다.(13) 회개하라는 권고를 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려 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선지자의 선한 양심을 통해 전해졌다.(15) 죽음의 위협에도 불 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담력은 성령의 도우심이였다. 이것은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행하신 그리 스도를 보여준다.(딤후 전 6:12) 주님의 죽으심이 모든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라도 말씀대로 진실로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다. 즉시 돌이켜야한다.

39 **절망 속에 솟아난 소망 (렘 29:1-14)** -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심은 그 속에서 도 살 길을 보여주신 성령의 지혜였습니다. 첫째, 그 땅에서 정상적 삶을 살아야합니다. 4-6 절에 가정, 직장, 결혼 생활로 번성하여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착념할 때 기이한 소망이 현실화됩니다. 둘째,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합니다. 7 절에 그

성읍의 평안을 힘쓰이 자신들의 평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징계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변치 않으셨습니다. 재앙을 받아도 진정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케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우상숭배를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성실히 살지만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70 년이 지난 후 고국에 돌아와서 다윗의언약이 성취되는 일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에 속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40.계시를 존중하라(렘 29:15-32) -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존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보이는 본문에서 계시(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계시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19) 강박한 마음으로 거역함으로서 칼, 전쟁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누구든지 살 길이 생깁니다.(히 1:1-2) 둘째, 계시를 무시하면 온갖 죄가 서식합니다. (23)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처럼 계시를 왜곡시킬 때 음행과 거짓과 망령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기자는 쓴 뿌리 와 망령된 자와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히 12:15-17)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II. 대관식

1.하나님의 구원(렘 30:1-7) - 본문에 보이는 유다 회복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돌이키게 하시는 구원입니다.(3,8) 가나안 땅과 다윗 통치를 회복시키고 다친 상처에 새 살이 돋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17) 인간 구원은 실패하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원은 절대적이며 영원합니다. 둘째, 평강을 얻는 구원입니다. 태평과 안식을 주십니다.(10) 회년의 은혜가 넘침은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성령의 평안을 예견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롬 5:5) 셋째, 공의가 세워지는 구원입니다. 공도로 진책함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으로(창 18:19) 성취될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강물처럼 쏟아지는 공의와 평화는 종말 시대에 나타날 큰 부흥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대의 큰 불의는 하나님 말씀이 대접을 받을 때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를 열심히 따라갑시다.

2. **회복의 은혜(렘 30:18-2)** -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은 언약의 회복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22) 어떤 회복입니까? 첫째, 감사의 회복입니다.(19) 감사의 노래와 즐거움의 노래가 잇는 것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증거도 노래와 찬송과 감사와 경외로 나타납니다.(엡 5:18-19) 둘째, 담력의 회복입니다. (20 -22)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므비보셋을 다윗의 밥상에 참여시키듯이 그리스도는 처참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때를 따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들어가며 나올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싱그러워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히 4:16,10:20) 셋째, 번성의 회복입니다.(19) 심령의 감사로 보좌에 나가는 특권이 회복되면 모든 삶에 번성이 주어집니다. 내게 약속한 번성과 형통의 역사를 기대하며 입을 넓게 열어 구함시다.

3. **시온에 모이는 때 (렘 31:1-9)** - 본문에 보인 회복이 성취된 때는 바로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입니다. 보슬비 같은 구약의 은혜가 소낙비 같은 신약의 은혜로 발전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1-3) 은혜의 안식, 무궁한 사랑이 거저 베푸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안의 은혜를 바라보고 제도적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시대임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고후 6:2)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나갈 때입니다.(4-6)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는 큰 구원의 날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9)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이 일어나기에 적극적인 기도가 요구됩니다. 셋째, 시온으로 모이는 때입니다.(8) 바벨탑을 세울 때 흩어진 것을 이제 성령이 참 시온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으십니다. (사 2:2) 모이는 일에 힘쓰는 신자가 철든 사람입니다. 서로 강권하여 예배 모임에 열심을 품읍시다.

4.물덴동산 같은 심령 (렘 31:10-20) - 하나님의 은혜는 물덴동산 같은 변화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에덴동산의 회복입니다. 물덴동산 같은 에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아담을 손님으로 초청하여 거기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성소며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상실한 동산의 교제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름 충만의 회복입니다.(20-22) 14 절에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회복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엡 5:18, 살전 1:6) 믿은 후에 받은 성령의 은혜 외에 사역과 성화를 위하여 항상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Lloyd-Jones) 간절히 구하는 신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행 19:2) 셋째, 은혜 충만한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충만 곧, 성령의 달콤함(엡 1:13)은 시공을 초월하여 임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물덴동산으로 변화시킵시다.

5. 새 일의 창조(렘 31:21-30) -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은 언약의 회복에 의한 것입니다.(22)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약속의 회복입니다.(21 -23) 대로를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케 하시고 성소를 향할 때 복을 받게 하시는 회복입니다.(민 6:24-26, 창 12:4)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갈 3:14) 둘째, 참 만족한 회복입니다.(25-26)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 자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의 회복입니다.(27-30) 과거의 훼파는 현재의 건설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는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새 일의 창조를 믿고 큰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빌 4: 6-7)

6. 새 언약 (렘 31:31-0) - 가나안 회복은 아브라함 언약의 회복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오기까지 예비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무한대의 창조성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새 언약은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첫째, 옛 언약과 구분됩니다.(31-32) 애굽 과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새 언약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에 완전합니다. 그림자가 실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하십니다.(33) 돌비가 아닌 심비에 기록하는 일이기에

신비스러우나 보장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름 부으심이 계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34, 요일 2:20) 셋째, 모든 죄가 처리되는 효력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며 (34)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을 성전으로 변화시킵니다. (38-40)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야 합니다.

III.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1. 이가봇의 결과 (애 1:1-11) - 불순종한 유다의 모습을 관찰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라고 말했다.(6) 본문은 그 비참함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고독한 자리에 떨어졌다.(1-2) 하나님을 떠나 혈육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적막함(렘 17:)과 큰 자가 과부처럼 되어 중노동과 슬픔과 환난의 연속이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재현된 것이다. 둘째,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다.(3-7)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고 제사장이 탄식하는 까닭은 할례 없는 백성들이 성회에 들어와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셋째, 원수가 주관하게 되었다.(8- 11) 주관하던 유다가 열방의 노예가 되어 위로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의 신앙적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 때문이었다.(8) 눈물의 선지자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2. 제사장적 기도 (애 1:12-22) - 탄식과 곤비가 많은(22) 유다의 죄를 자기 것으로 책임지고 원수의 심판을 기원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무슨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 첫째, 기도자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아야한다.(12-21)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다는 힘을 잃었으나 위로가 없고(17) 영적 지도자가 없음으로(19) 괴로움이 더해졌다.(20) 이것은 징계를 받은 증거이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현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통감해야한다. 둘째, 제사장적 기도자가 되어야한다. (16-22) 과거의 구원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약속한다. “내가(18-21)”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문제를 책임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는 증거이다. 이런 기도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70 년 후에 일어날 회복을 이루신 것이다. 극심한 원수의 조롱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대신지고 보좌에 나가는 제사장적 기도자가 필요하다. 제사장적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3. 진노에서의 회복 (애 2:1-10)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을 쫓아 오는 증거가 여기 나타난다.(롬 1:18-19) 그 진노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째, 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1-7) 은혜와 평강과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심은 그들의 배은 망덕한 죄 때문이다. 권위가 추락되는 처참한 지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가 붙잡을 것은 오직 계시인 성경뿐이다. 둘째, 회개는 회개의 길이다. (10) 굵은 베옷을 입고 책임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 아이성의 패배 원인인 이스라엘의 죄를 책임진 여호수아가 온 종일 땅에 앉아 회개하였을 때 소망이 일어났고, 모르두개의 금식기도는 이스라엘의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회개자가 참 지도자이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길이 생긴다. 회개운동을 일어나야 한다.

4. 보좌 앞에 흘린 눈물 (애 2:11-22)- 탄식으로 시작된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 피어나는 소망의 꽃을 발견한다. 첫째, 거짓 선지자의 거짓 계시를 따른 것이 근본 문제였다. (14) 안일을 구하는 계시로 인간적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멸을 가져왔지만 선지자처럼 듣기 거북한 계시라도 겸손히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평탄대로를 허락하셨다.(렘 29:4-8) 둘째,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 양식이 없어 젖먹이가 어미 품에서 죽었으며 (12) 심지어 아이를 잡아먹고 남녀노유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20-22) 예루살렘의 영광은 열방의 조소거리가 되었다.(13, 15-18) 셋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된 기도만이 살길이다.(18-19) 선지자의 십자가 진 기도를 본받아(11) 손들고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다. (렘 29: 12-13)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자신과 가정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5. 제사장 같은 선지자 (애 3:1-18)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예언하면서 시대의죄를 책임지고 회개하는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2:818-19)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대신하는 고난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1) 그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기 고난인줄 알고 대신 회개했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가족, 나의 뼈, 나의 흑암, 나의 사슬”이란 말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동시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께서 행하신 징계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와의 분노로 흑암 속에 거하며, 고통과 수고가 넘치며, 사슬에 매이게 됨과 고통과 사자처럼 맹렬하였음을 보았습니다. (1- 11)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에서 떨어져(17)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잃었음을 직시했습니다.(18) 모든 일이 주께로 나옴을 알아 선지자처럼 현실의 문제를 대신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영광이 따릅니다.(롬 8:18)

6.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애 3:19-39) 책임지는 선지자의 마음에는 탄식과 아울러 주님만을 바라는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19-23) 낙심 속에서도 여호와와의 무수한 긍휼과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다림으로 나타났습니다.(25-26) 첫째, 그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22) 고초와 재난 그리고 담즙과

쑥과 같은 고난이 소망이 된 것은 여호와와 인자와 공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부은바 되었기 때문입니다.(롬 5:5) 둘째, 그는 성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23) 그의 사랑은 성실을 배경으로 나타냅니다. 그 성실을 맞본 선지자는 아침마다 기쁨으로 새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의 어려운 사역을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채움 받았기에 감당한 것입니다. (시 90:14) 셋째, 그는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38) 여전히 선지자의 마음은 주권에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린 것을 알았고 그와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 지는 목표를 항상 기억합니다.(엡 3:19)

7. 중보기도의 본(애 3:40-54)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도고)는 신자에게 항상 필요한 일입니다. 본문은 중보기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공동체의 회개를 가르칩니다.(40- 41) “우리”로 표현된 교회는 자기 행위를 살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알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합니다.(43-47) 도고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야합니다. 둘째,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로 나아간 선지자의 진실한 기도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에 넘친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통곡과 히스기야의 눈물처럼 참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참 소망이 일어납니다. 셋째, 응답받기까지 행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도고의 목표는 하나님이 공홀히 여기시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50) 무화과나무와

산들 그리고 무슨 문제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습니다.(마 21: 19-22) 할 일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중보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8. 심정을 통한 기도 (애 3:55-66)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훈을 배우니까? 첫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55- 58) 무저갱과 같은 고난의 심연에서 그가 행한 유일한 것은 주님을 상대한 기도였습니다.(55) 한나 처럼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침묵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56) 마음의 원통을 다 아뢰어 빈 마음이 되기까지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풀어주셨습니다.(58) 둘째, 원수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60-65) 보복하고 모해하며 비방하며 종일 조롱하는 교만한 원수를 대할 때 평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60)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반드시 건짐을 받습니다.

9.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애 4:1-10) 예레미야의 탄식은 영안이 뜨여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의 참상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째, 그는 어떤 참상을 보았습니까? 성소가 훼파되고(1), 시온의 아들이 질항아리처럼

깨어지고(2), 짐승 같은 잔인한 피해를 받으며(3-4), 소돔의 죄보다 더하며(6), 피골이 상접하여(7,8)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기근(10)을 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비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영적 비극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여호와 경외의 삶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5 절에 언급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인 계속성, 인내성 그리고 교제성에 집중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요 10:10)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은 성령이 항상 운행하시도록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따라가야합니다.

10. 영적 권위를 세우자 (애 4:11-22) 성소의 역할을 잃을 때 영적지도력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권위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째, 왜 권위가 추락되었습니까? 권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범죄하여 계시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13,16) 계시가 무시되는 곳에 권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특별계시인 성경을 먼저 알고 준행하고 증거하는 일의 회복이 우선되어야합니다. 둘째, 어떻게 회복됩니까? 메시야가 오심으로 회복됩니다. 콧김으로 비유된 메시야가 오심으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20)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힘씀으로서 속사람부터 강건하여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퇴락된 권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품고 살아갑시다.

11. 부흥을 구하라 (애 5:1-22) 조국의 멸망을 바라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흥의 권면으로 본서를 마칩니다. (1, 21) 성경적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부흥의 필요성- 모든 기업이 이방으로 넘어가 외로운 자식과 과부가 되었고(2-4) 죄의 결과로 비참한 지경이 되었고(7) 방백, 장로, 노인, 소년, 처녀들의 삶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으며(11-15),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 (15)이 부흥을 요구함을 본 것입니다. 둘째, 부흥의 시작- 성도의 탄식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되려는 갈구와 주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부른 것처럼(창 4:26) 회개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중심이 뜨거우셔서 부흥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선지자를 위시한 경건자들의 간구는 마침내 가나안 회복을 이루었습니다.(단 9:2) 우리 시대의 영적 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책임지고 부흥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부으십니다. (눅 11:13) 부흥의 불쏘시개가 됩시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 형상회복을 갈망하여 경건한 우물증에 빠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애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의 회복이 단지 외형적인 종교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도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심령부터 변화하여 가난한 마음에서 애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사람의 십자가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여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십자가 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나타낸다.

IV.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에스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관점에서 검토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구속적 성격을 본다. 1) 하나님이 받아드릴 수 있는 의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한다. (겔 14:14,33:13,14,20, 18:20,22) 2) 그리고 의는 신적 평가의 기준이다. (출 45:9) 3) 그들이 자신의 불의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4) 개인적인 의가 그의 구원의 조건이고 나의 개인적 의가 다른 이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겔 18:20) 오직 개인적 칭의가 자기 구원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겔 33:19)

이 글은 외방 땅에서 언약백성 속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연구하는 것이다. 신정의 흐름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의, 긍휼, 신실함을 다음 세구절 즉, 겔 1:1-28 37:1-14 그리고 겔 47:1-12 에서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주제 즉, 1. 영광의 성령의 역사 2. 성령의 바람 3. 성령의 강수 아래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실체를 나타낼 것이다.

I. 영광의 영의 역사

영광의 영의 신학적 개념은 클라인의 책, 왕국의 서론에 서술되었다. 그는 메라하벨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라 창 1:2)이 구속 역사상 중요한 구속적 개념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것은 스테반이 말한대로 이스라엘 속의 광야교회의 구속적 시건과 관계되었다. (행 7:38) 성령의 선지자로 일컬리는 에스겔은 1 장에서 모세가 애굽의 억압에서 구속 활동의 영광의 영을 관찰한 것처럼 바벨론 억압 속에 억압받는 백성 위에 영광의 성령의 나타남을 보였다.

특히 에스겔 1 장은 세상에 신정을 이루려는 그의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방에서도 영광의 성령이 이스라엘을

돌보심을 나타낸다. 그 때 에스겔은 처음 이상에 영광의 성령의 역사에 좃춤에 맞춘다. 영광의 성령은 네 종류의 얼굴 곧, 사람, 독수리, 황소 그리고 사자의 모습을 한 네 생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계시록 4:7-8 에 나타난 네 얼굴의 다른 관점이다. 우리가 1 장에 나온 네 생물의 얼굴을 그럴 때 몬스터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의 표현을 주의 깊이 관찰하면 그 비존의 실제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불꽃 속의 바퀴 안의 바퀴의 재빠른 활동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령의 실체를 이해한다. 그래서 본문은 영광의 성령의 형상을 나타냄으로 결론을 내린다.(겔 2:28)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본절은 쉼기나의 영광의 움직임으로 기울어진다. (출 40:34-38 출 25:18-22 왕상 86-11) 그래서 불룩은 말하기를 “이 이상에 가장 가까운 성경적 유추는 이스라엘의 시가서에 나온다. 특히 시편은 여호와를 “ 초케즈 바 아라불” “ 구름을 불드신 분 그리고 “ 요세브케루빔, 그룹 안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한다. (NICOT on the book of Ezekiel, pp105-106)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영광의 영 혹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로 관찰한다. 우리는 그 실체를 성육신 하기 전 그리스도, 혹은, 영광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주체이신 영광의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1. **에스겔의 소명(겔2:1-10)**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 세계를 보았다. 천상의 보좌를 중심한 네 생물의 사역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그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소명을 받는다.(1) 그 소명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적용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의 소명, 모세의 소명, 바울의 소명이 모두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과 같다. 그의 소명은 절대적이며 효과적이었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일이었다.(7) 목이 굳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와 믿음을 갖는 어려운 일을 맡은 그는 먼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단맛을 체험하고 순종을 즐겨야 한다. 말씀과 함께, 안에서,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불신앙으로 굳어버린 이스라엘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4) 얼굴은 뻘뻘하고 마음은 굳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항상 마음의 상태이다. 굳은 마음은 자신을 주께 헌신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이다. 산 제물로 드러진 사람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다. 가난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2. **영광의 형상(겔2:11-28)** 그발 강가에서 하늘 세계가 펼쳐지는 정황을 접한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는 그림으로 그려질 수 없는 기이한 형 상을 보았습니다. 바퀴가 구르며 불이 나오고 바퀴

속의 바퀴가 있고, 생물의 네 얼굴 곧,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형상을 가진 생물은 날개로 날면서 일사 분란하게 움직였다. 그 속에 성령이 주체가 되어 전체를 이끌었다. 이것은 계시록의 천상구도를 다른 형태로 보여준 것이다. 둘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했다. 이 형상은 하나님과 그의 성품을 가리킨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스겔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에스겔은 보좌에 계시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실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만 한다.

3.성령의 사역(겔3:1-15) -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셨다.(3)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먹을 때 생긴 단맛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엄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일어난 불 체험과 수가성 여인의 샘물 체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동일한 성령이 말씀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은 계시의 세계로 이끄셨다.(12)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하늘 세계를 보게하셨다. 금강석 같이 굳은 마음과 목이 굳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언 사역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따른 것뿐이다. 계시를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특별계시인 성경을 깨닫게 하는

조명(illumination)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성령은 그를 감동시키셨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홀연히 펼쳐지는 사차원 세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을 발하고 근심할 때 성령은 강권적으로 그를 사로잡아 주의 뜻을 따르게 하셨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야 한다.

4.시대의 파수군(겔3:16-27) - 에스겔이 받은 패역한 세대를 향한 파수군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는 일이다..(17) 패역한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의 입으로 부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따른 일이다.(22-24) 그발강 가 네 생물의 사역과 선지자의 삶의 주체이신 성령은 또 말씀사역 현장에 나타나셔서 친히 주도하셨습니다. 성경연구와 준행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영감을 사모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27) 선지자의 사역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가 침묵하고 외치는 일뿐 아니라 결과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비상한 시대에 파수군의 사명을 다함시다.

5. **첫째 상징주의 (겔4:1-21)** - 일반적으로 그림과 설명의 두 형태로 나타나는 계시가 본문에는 상징을 통한 심판 경고로 보여졌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성의 조감도를 만들고 그 옆에 높게 하심으로 심판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1-3) 이것은 심판하시는 이유를 자세히 살피시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을 강조한 일입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로 살아야합니다. 둘째, 그리고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보임(4-8)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서슬이 퍼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죄를 책임지는 자로 부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눈 앞에 반드시 드러나며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의와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야합니다.

6. **둘째 상징주의 (겔4:9-17)** - 그 다음에 나타난 상징주의는 고생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심판의 참상이다.

첫째, 고생 중에 음식을 먹게 하셨다.390일을 누워 음식을 먹하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환난에서의 공핍을 보이시며 십자가 짐을 가르치셨다. 둘째,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심은 포로생활의 고생을 보여준 것이다. 영양가 없는 음식을 인분의 불에 구워 먹을 정도로

부정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셨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나타난 끈고한 날을 회상시킴으로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가르치셨다. 셋째,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 심판을 보였다.(16) 유다의 은혜는 여호와만을 의뢰할 때 임했는데 다른 우상인 군사력이나 번성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모두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끄셨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마련한 풍성한 사랑과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다.

7.셋째 상징주의(겔5:1-17) - 에스겔이 보여준 또 다른 상징은 선지자가 자기 수염과 머리털을 깎은 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불태우고 바람에 날림으로서 심각한 심판을 가르쳤다. 그 심판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심판이다.(2) 구원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 역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에스겔의 말씀 사역 뒤에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둘째, 전무후무한 심판이었다.(9) 큰 사랑을 거절한 그들에게 큰 심판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는 비극을 허락하셨다.(10)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루어질 참상을 보인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심판이었다. (13-17) 구원처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심판을 단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을 엄하게 다루심으로 그 의를 만 천하에 알게하신

것이다.

8. **종말의 경고 (겔7:1-27)** - 에스겔 선지에게 주어진 `사명은 유다에게 회 개를 촉구하는 경고였다. 그 심판의 두려움을 칼,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란 최종 상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본문은 장차 올 신약 종말의 성격을 미리 말한 것이다.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게 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마저 거절하는 자는 최대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독생자를 주 기까지 한 그 사랑마저 거절한 `심판이기에 마땅한 결과이다. 둘째,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종말의 정황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두려는 교만으로 치솟게 되어있다. 유다의 교 만이 하늘을 찌를 때 종말이 온 것처럼 인본주의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셋째, 목시가 사라진다. 유다 말기의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의 타락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종말시대의 혼란은 목 시를 떠남에 있다. 성경관이 혼란해진 우리 시 대에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해야한다. 이것이 종말 을 잘 통과하는 `중요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9. **목시가 없는 시대(겔7:14-27)** - 세상 종말의 특징을 보여 주는 유다 말기의 특징은 어떠하였는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나타났다.(16) 바벨론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배은망덕을 징계하는 수단이었다. 밖에는 칼,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체가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린다는 경고이다. 이런 환경뿐 아니라 개별적인 죄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여 찾아온 외로움과 근심과 염려는 그들을 괴롭히게 된 것이다. 주님 안의 삶을 좋아하고 그 안에 쉬어야 합니다. 그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시(성경)를 무시하게 된다.(26) 그 시대의 비참은 외형적 차원을 넘어 내적 참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능력의 근간인 삼중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선지자에게 목시를 구하나 대답하지 못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제사장에게 율법을 구하나 그 법이 없어지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사라지고 왕은 놀라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의인신의 뼈대가 무너져 혼란과 공허에 떨어진 것이다. 여기서 일어날 소망은 오직 계시인 성경으로 돌아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10. **에스겔 이 본 나라 (겔8:1-18)** - 하나님 백성의 생명인 목시를 받은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는가? 첫째, 그는 불의 형상을 보았다. 그것은 일찌기 그발강 가에서 하늘을 통해 보여진 형상이 만물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순종해야한다. 둘째, 그가 본 것은 성전 밖에 새겨진 질투의 우상, 각종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 태양상 그리고 풍요의 우상,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이였다.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보다 더 많은 우상을 가진 유다는 영적으로 최대의

비참에 처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보았다. 그 땅을 포학으로 채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였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소한의 긍휼마저 거두어 가셨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에스겔 때 보다 더 심각함을 예언한다.

11. 주의 영의 인도 (겔11:1-13) - 에스겔의 사역은 어떤 특징을 이루었는가? 첫째,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이다.(1,7)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이시며 말씀을 주셨다. 성전 동편문 앞에 모인 25명과 야 아사냐와 블라다의 실상을 보임으로 사역을 효과적이게 하셨다. 성경 앞에 정직히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한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는 원인을 드러내셨다. (6-7)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가득 찬 모습을 보임으로서 죄의 값이 사망이며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신 것이다. 의를 전하는 에스겔의 사역만이 그 시대의 소망이었다. 복음의 의를 가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온 세상에 열심히 증거해야한다. 셋째, 중보 사역을 하게 하셨다. (13) 고관 중 하나인 블라다가 죽었기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음은 남은 자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였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에 힘써야한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써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 기도에 힘써야한다.

12. 새 마음 (겔11:14-25) -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더 견고하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신다. 바벨론 포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심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의 뜻을 보인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행하시는 것만이 참 구원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 둘째, 군신관계의 회복을 이루신다. 언약의 목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군신, 부자 그리고 부부 관계의 사랑과 복종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살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신다. 심령의 가난 상태가 새 마음의 핵심이다.(마5:3) 셋째,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 그런 영적 변화는 오직 성령이 친히 만드신다. 그말강 가에서 본 영광의 영은 에스겔의 사역에 함께하셨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임하 신다. 이 영광의 영을 따라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한다.

13. 계시에 근거한 삶(겔12:17-25) - 구약 선지자인데도 복음의 삶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포악으로 가득한 땅이 황폐하게 된(19)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 성령은 유다의 참상을 미리 보여주셨다. 포악이 가득한 유다는 참상이 가득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착함은 복을 가져오나 포악은 황폐함을 낳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 인, 신은 빛의 열매이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와 믿음으로 악한 심령을 착하게 변화시키신다. 그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는 시대를 맞는다.(22) 이스라엘의 생명은 목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데 목시를 무시함은 모든 생명과 복의 원천을 무시함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이 땅에 자기 힘으로 유평피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율주의자의 망상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현대인의 주장은 계시를 무시한 말이다. 계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기에 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는 겸손에 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비판주의와 낙관주의를 오가며 살아야한다.

14. **말씀의 성취(겔12:1-16,)** -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보여진 심판과 구원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 보여졌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성에 뿌리를 두고있다. 첫째, 심판의 성취-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칼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온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외적 황폐보다 더 무서운 영적 황폐이다. 하나님과 산 교제가 끊겨진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종 노릇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말 심판의 전주곡이다. 최종심판대 작함으로 설 자는 아무도 없다. 둘째, 구원의 역사 - 그런 진노 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28) 그 분이 하신 구원 약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그 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신실한 말씀 앞에 서서 그것에 성실한 자가 복되다.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시작된 종말시대 곧, 우리 시대는 제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겔 20:41 하,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 며” 향기로운 제물에 관해 말한다. 유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종말의 구원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인간의 자력으로 성취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구원이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삶이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향기 같아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물이 며 그 은혜는 온 세상의 향기가 된다. 마리아의 향유 같이 주께 바쳐진 헌신의 삶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산제사의 삶이 이것이다.

그리고 겔 22: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1)에 의하면, 선지자 에스겔 사역은 항상 위로 부터 공급 받는 말씀에 좌우되었다. 개별적으로 여호와와 말씀이 상황에 따라 임하여 선지자 사역의 근거가 되었다. 그 리스도인의 구원이후의 삶도 계속 찾아오는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목표에 이르게 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영적 가난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 5:3의 심령의 가난 상태가 최고의 복이다, 주여 나로 아굴처럼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것이어야한다. 또 “자기의 모든 가 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2)에서 유다의 고관들의 부패는 사회에 온갖 죄악의 만신창이가 되게 했을 보인다. 그 때 일어난 죄악 은 십계명의 기본을 모두 무너뜨린 죄악 즉, 부모 거역, 나그네 학대, 고아와 과부의 상해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가 득실거렸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우리 주님의 시대 평가 그대로가 이미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실한 그들은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불신실로 연단되어있다. 우리 시대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유다 정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 한사람이 먼저 그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 에 책임지고 회개하는 일이다.

그리고 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는 종말 시대를 암시한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은혜 언약은 자기 백성의 마음의 변화 로 성취 된다. 언약 관계의 복종을 요구했으나 모든 일에 실패했다.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 언약 백성의 마음 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새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워진다. 곧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리킨다.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분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지킨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긍휼과 화평으로 덕을 세우려 힘쓴다. 그 사람만이 언약 백성의 실질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겔 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은 개인적 구원을 강조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참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누가 결코 덧붙일 수가 없다. 의를 증거 하던 노아,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용된 경건한 사람, 다니엘 그리고 심한 고난 속에서도 중보자를 바라본 욥은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사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 이상이 그리스도 위에 오르내리는 중보 사역으로 완성된 것은 구약의 교회 역시 그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그들의 경외 신앙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이다. (딤후 2:5) 이것을 겔 18:31 에는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겔 18:31) -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닌 영혼 곧, 마음을 구원하신다.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 자리에 나가야만 복종을 배우게 되고 자 아부인과 십자가 지는 일이 가능해진다. 성령을 보내 새 생명을 이식하여 거듭난 생명은 흑암이 광명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에스겔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도 새 마음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완전한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말씀을 받아 날로 새로워지는 체험 을 한다.

다음 세 구절은 에스겔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특징을 보인다.

1) **겔 16:15-34**

1)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15) 화려한 자리를 차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였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가리킨다. 의복, 장식품, 음식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데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이 우상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순간에 구원받은 나는 긴 여정에 믿음의 의로서 현실에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위에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가?

2)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22)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음행은

첫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다. 피통이가 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임을 알고 겸손히 나아갈 때 살아난다.

2) 겔 19:1-14

1) “이스라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1) 이스라엘의 방백을 위한 에스겔의 애가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인다. 두 사자의 비유는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과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가리킨다. 그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였다. 결국 이스라엘이 영권을 상실하자 정치 지도자가 될만한 일꾼이 사라져 큰 혼란 상태에 떨어지게 됨을 탄식하며 슬퍼한다. 이것은 우리시대의 애가이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 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지도자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2)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10)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붙어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에게 붙어있는 것이 거듭난 사랑의 관건이다 여기서 모든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떠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이것의 돌연변이 같은 힘은 파괴적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것을 제어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좁은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3) 겔 12:17-28

1)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19) 에스겔에게 명하신 실물교육을 통해 성령은 유다의 참상을 미리 보여주셨다. 포악이 가득한 유다는 참상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들은 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착함은 복을 가져오나 포악은 황폐함을 낳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 인, 신은 빛의 열매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악한 심령이 착하게 변하게 하신다. 그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

2)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22) 이스라엘의 생명은 목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다. 목시를 무시함은 모든 생명과 복의 원천을 무시함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더 나아지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율주의자의 망상이다. 모든 것이 시간이 잘 되리라는 현대인의 주장은 계시를 무시한 말이다. 계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기에 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겸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오가며 살아간다.

15.우리 시대의 선지자, 성경 (겔13:1-23) - 고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목시가 파수 되는 일을 주목하신다. 본문은 그 복됨과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그 위험성 - 목시를 받은

선지자가 그대로 증거 하지 않고 거짓된 평안을 알릴 때 백성들이 회개할 수 없었다. 계시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말했기 때문이다. 회칠한 무덤같은 그들에게 폭우와 폭풍으로 모두 무너뜨리신다고 하셨다. (11-13) 그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선지자의 역할에 놓여 있다. 교회의 유일한 계시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정직 하게 서는 사람만이 살아난다. 교회는 이 계시를 말과 행동으로 알리는 사명을 받았다. (벧전2:9) 둘째, 그 중요성- 어두움 속의 빛 처럼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인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살아난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온갖 사상과 흐름을 경계하며 성경의 존사색의 구원을 깊이 세워야 한다. 바른 성경관을 이탈하려는 우리 시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성경을 영이요 생명으로 믿는 우리 주님과 사도의 성경관을 지킴이 우리 시대의 선지자를 바로 대함인 것이다.

16. **개별적 구원(겔14:12-23)** -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아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구원임을 보여준다. 첫째, 다니엘의 중보기도로 개인의 심판이 제해될 수 없다. 하루에 세번 기도한 경건의 본인 다니엘가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누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이 구원을 받는다. (14) 둘째, 노아의 중보사 역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가 당대에 의인이었을 지라도 그 자신만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 영향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 그럼자

역할은 실체가 올때에 모두 끝날 뿐이다. 참 노아되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셋째, 욥의 인내의 경건으로도 남을 구하지 못하고 그 자신만이 구원받는다. 깊은 경건으로 순전을 지키려 했으나 그 역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죄의 길에 떨어 졌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 그는 재에 앉아 다 시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오 직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을 때 온다.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개별적 구원 진리는 그리스도안에서 더욱 더 선명해 졌다,

17.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 (겔15:1-8) -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왜 불심판을 받았는가? 첫째, 최대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다.(6-7)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특권을 가지고 그와의 언약을 맺었어도 이스라엘은 그것마저 거절하여 우상숭배에 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해도 이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그에게는 그 사랑의 맛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이기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한다. 최대의 사랑은 최대의 사랑을 요구한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깊이 알게하신다. 둘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2-3)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순종과 배반으로 포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의, 인, 신을 나타기 보다 사탄의 형상, 불의, 무자비, 불신실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신자는 그 분과의 교제를 힘쓰기 위하여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와의 연합 관계에 성실해야한다.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15:5)

18.구속의 사랑 (겔16:1-14) - 심판 중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본문은 구속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자기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절대 불능에서 구속하셨다. (3-7) 예루살렘의 시작을 가나안, 아모리와 헷 족속의 기거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나오시고 길러주신 것은 물론 벌거벗은 신생아처럼 밖에 버려진 상태였다. 그리스도인의 구원 역시 시작이 미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이것을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 이 절대 가난 상태가 복이다. (마5:3) 둘째,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8) 발가숭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정착 그리고 왕정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셨다. 은혜의 선택이다. 그리스도인의 구속은 시작부터 진행 과정이 모두 은혜이다. 은혜 위에 은혜의 공급으로 지금 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살전5:16-17) 셋째, 영화롭게 하셨다. (9-14) 그 구속은 실질적인 영화로 나아간다. 예루살렘의 영화가 열방의 중심이듯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화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창대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창12:3)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

II. 성령의 바람 - 겔 37:

다음, 영광의 성령은 에스겔 37 장에 또 다른 상징주의 즉, 마른 죽은 뼈의 회복을 위하여 죽음의 골짜기로 불었던 바람처럼 나타나셨다. 생기가 죽은 시체에 닿자마자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통해 신정을 이루는데 성령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의미한다.(겔 37:11-14)

그 상징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묘사했다. 성경 속에 성령의 역사의 비유는 인간의 창조 속에 나타났고 (창 2:7) 구약의 노아 홍수 심판에 회복 속에 나타났고 (창 8:1) 그리고 신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 쉰 것으로 나타났고 (요 20:22) 후에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 속에 폭풍으로 나타나 그 절정을 이루었다. (행 2:2) 바벨론에 있었던 언약 백성이 신정을 세우기 위하여 바람 혹은, 폭풍같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비록 그들의 현재의 삶이 마른 해골과 같아할지라도 영광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조상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는 언약 백성을 회복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다.

더욱이 바람같은 성령은 종말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의 특징을 가리키는 그림 속에 여러 사건을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 1) 치료의 능력은 여호와 구속자로부터 온다. 2) 참된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의 말씀이다. 3) 부활의 능력이 여호와와 생기로 왔다.(8,10) 마른 뼈는 성령의 회복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부활되었다. (요 3:7-8) 4) 갱신의 영은 영광의 영이다. (14) 성령의 기운이 인간의 말을 신적 언어로 사용하여 만드신 것이 성경이다. (딤후 3:16-17)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 설교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람같은 성령이 교회에 일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람같은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III. 성령의 생수

에스겔 47 장은 바벨론의 죽음의 계곡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광의 성령의 다른 상징주의를 나타낸다. 우리는 40:-48: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된 사건 즉, 새로운 성전 (40:1-43:11), 새로운 율법 (43:12-46:24) 새로운 땅 (47:1-48:29) 그리고 새 도시(48:30-35)를 관찰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신정의 회복을 보여준다. 신정의 회복은 생수같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그 이상 속에서 생수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성전을

채웠고, 모든 불행한 것을 신성의 풍성함으로 채웠고(렘 3:24 참조) 그리고 치료하셨다.

정말 신약에 그리스도가 계시한 삶은 풍성하고 자상한 복이었고 의인신의 요구를 성취했다. 오직 구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의인신의 구속의 열매로 계시된 독특성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에스겔의 이상 속에 바람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종말론적 실체를 나타내셨다. 요한의 생수와 사도행전의 바람은 에스겔의 이상 속의 성령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풍성한 구원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신실하다. “구약개론”의 저자인 롱맨은 에스겔에서 그와 관련되어 세 주제를 지적하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 그리고 개인적 책임이 그것이다. 그 이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열매로서 영광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다.

결론: 모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애굽에서 처럼 바벨론에서 에스겔의 계시에 의해 또 계시 되었다. 성령의 영광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바람과 생수같은 성령의 역사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역을 보며 그 계시 안에 거함으로서 즐긴다. 오늘날 캄보디아 교회가 성령의 영광의 실체를 본다면 그들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인간의 앎밖한 프로그램이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분위기로 부패한 심령을

자극하여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이키려는 활동은 성령의 존귀한 역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그럴듯한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보다 인간적 형상, 곧 배후에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참의 형상, 불의, 광포 낭가 불신실성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원리를 겸손히 다룰 때 주께서는 그 어디서도 위대한 그 나라의 형상, 의인신을 풍성히 나타내실 것이다. 에스겔 속에 보여진 원리는 현재 우리 시대의 원리가 되어야하고 사역자들과 교회는 그 좁은 길을 이탈함이 없이 생명의 길로 가야한다.

어두운 시대에 에스겔처럼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나타내고, 장차 올 인자의 예언 (단 7:13)과 인자의 완성된 신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며 그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예언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 말은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도구로서 그 어두운 시대에 궁창의 반짝이는 별처럼 쓰임받았다. 그의 삶속에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열고러지지 않고 더 선명한 의인신을 열방에 나타낸 것이 우리가 주목할 일이다. 또한 그를 통해 보여진 종말 시대의 증거대로 온 세상에 지식이 많아 질 것이라(단)는 예언의 성취를 지금 본다. 급변한 온 열방의 지식은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어 복음의 원형적 모습을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상안에서의 변혁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런 공격을 벗어나 살 수 없을지라도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그 원형적 형상을 생의 비존으로 삼을 때 가능한 것이다. [제 2 권 끝]

참고도서

Calvin, True Christian Life
Calvin, The Eternal Truth in All Time
Williamson, Essay of Reformed position
Williamson, Westminster Confession
Frame, Christian Life
The Glory of God
Kline, Kingdom Prologue
Kline, the Glory in the Midst
Joel Bekey, Puritan Theology
Vos Gerrhardus Biblical Theology
Jay Adams, Pastoral Theology
Poythress Vern

전 화 령 (White Young Jeon)

캄보디아 교육선교사/ 캄보디아개혁신앙연구소장

(CEMF & CRFI president)

- Biblical Theology (O.T), Expository Preaching and Puritanism
- D. M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A, USA (1996)
- M.Div., Hapdong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outh Korea (1981)
- B.A.,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outh Korea (1978)
- Taught in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Cambodia (Chairman of Old Testament)
- Taught in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USA (Preaching Professor)

책제목: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1 권)

발행일: 2020 2.16

발행소: 캄보디아 개혁신앙연구소

편집: 메리 루, 미국 가정상담전문가

